

나라경제

2008 September
nara.kdi.re.kr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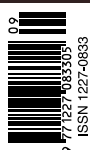
불을 끄고 별을 켜자



만남 **이만의**
환경부 장관

사물을 배운다
'우리 떡' 이야기

좌담 **금융허브,**
어디까지 왔나?



9 771227 083305
ISSN 1227-0833

아무것도 아닌 마을에 갔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어떻게 그런 곳에 살면서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

케냐마사이 부족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채한 듯 무겁다. 그냥 단지 케냐 민속촌에 다녀온 것으로 치면 그 만인데 마음은 자꾸 나를 잡아당긴다.

일단 그들의 집이 그랬다. 쇠뿔에 진흙을 섞어 여섯 평쯤 되는 집을 짓고 사는데 집 안이 너무 어둡고 쇠뿔 냄새가 가득하고 몇 개의 식기를 제외하곤 그 어떤 문명도 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그들의 마당이 그랬다. 하루 종일 들에 나가 풀을 뜯어 먹은 소들이 해가 지면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그 소의 숫자가 엄청난 마당은 그냥 마구간이기도 해서 쇠뿔으로 넘쳐났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지 쇠뿔이 아니라 모아서 집도 짓고 말려서 땀감으로도 써야 하는 자원이지만 왜 하필 그것밖에는 고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쇠뿔 냄새쯤이야 구수하다고 여기면 그만이었으나 그 무수한 파리 떼들은 또 뭐란 말인가.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사진 찍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너무 많은 파리가 앉아 있어 이내 민망해 카메라를 내려놓기를 몇 번. 그래도 아이들은 그것이 파리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듯 보였다. 도에 통한 아이들.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의 이런저런 충격들로 나뭇 그늘에 앉아 있을 무렵, 저 멀리 여인네들

이 물동이를 지고 힘차게 걸어오고 있었다. 수도시설을 마련하는 일도 어렵지 않을 텐데 저 여인네들은 꽤 무거워 보이는 물동이를 뒤희리로 이마로 받치고 물을 똑똑 흘리며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보니 이들은 농사조차도 짓지 않는다. 그래서 뭘 먹느냐 물었더니 우유와 고기만 먹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추측하건데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살던 그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거나 걸쳐 입기 시작했고 단지 그뿐.

간단하며 생략되어진 삶.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며 그 자체로 모자람이 없는 삶. 그것은 우리가 감히 셈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방식이라.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사는 것 또한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자부심 때문이라. 그들은 단순히 '살고 있다'가 아니라 고집스럽게 수천 년을 '지키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문명과는 멀리 떨어져 산다. 그러면서 어느 한편 문명을 조소하고 있는 기분마저 들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들의 삶이 심각한 문제라든 양 어질어질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무의미 속의 의미, 무지(無

地: 색이나 무늬가 없는 상태) 속의 무늬. 차라리 나는 마사이 마을에서 그런 것을 봤다고 해야 할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의미를 끌고 밀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매일매일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일들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케냐 중앙고지에 사는 마사이족



이병률 시인 · 방송작가

1967년 충북 제천 출생.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바람의 생활》, 여행시집 《산문집》(글랑)을 펴냈으며 현재 도서출판 《달》을 운영하고 있다.

C o n t e n t s

p14 **특집**

불을 끄고 별을 켜자

- 16 화려했던 한강 다리 조명 당분간 끈다
박수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18 2020년, 폐기물 에너지 경제 효과 연간 4조 원
최병철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팀장
- 20 가로등 하나 건너 하나만
박정욱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장
- 21 온천수 지역난방, 자전거 무상보급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 22 밤 9시부터 5분간 다함께 '불 꺼'
이기명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 24 지구촌은 초(超) 절전 모드
김영화 헤럴드경제 국제부 기자
- 26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2030년 1조 달러
정창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 27 신재생에너지 사용 공기업이 앞장선다
이규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과장
- 28 하이브리드카, 미래의 희망이다
남궁재웅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산업과 사무관
- 29 천연가스자동차 일석삼조
심무경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30 해답은 버스·지하철이다
박진영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 32 서울시, 2010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360km 만든다
김길남 서울시 녹색교통팀장
- 34 만약에 석유가 없다면?
박승욱 전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 저자

10 [만남] 이만의 환경부 장관

“습지는 생명을
만드는 오아시스”

대담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48 [요즘 뭘 하십니까]

장승우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여수엑스포조직위원장

“생산 유발 10조, 엑스포는
월드컵과 맞먹는 국가축제죠”

대담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78 좌담 금융허브, 어디까지 왔나?

“DNA 바꾸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함상문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한수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표지 | 토막포토

9

Vol.214 September

C o n t e n t s

경제정책해설

36 [01 기획재정부]
산은·기은은 민영화, 주공·토공은 통합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38 [02 교육과학기술부]
5년 후 7대 과학기술강국으로
문해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장

40 [03 농림수산식품부]
현대판 노아방주 '국제종자보존소' 만든다
이광남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기술서기관

41 [04 금융위원회]
금융소외자도 은행대출 가능해
유영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서기관

42 [05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시설 밖으로 불러내자
강민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

03 [천천히 걷기]
아무것도 아닌 마을에 갔다
이병률 시인·방송작가

44 [부처탐방]
'영 파워'로 녹색 성장을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사무관

47 [내 인생의 영화]
쉬운 대사에서 배우는
인생의 교훈-넘버 3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52 [김두얼의 경제사 이야기]
육의전, 보부상도 회사?
김두얼 KDI 연구위원

54 [경제 돋보기]
'부자 논리' 극복해야 부동산
살아난다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

56 [한국을 배운다]
"우간다 대통령 될래요"
서지영 나라경제 기자

72 [고승철의 '추천 이 달의 경제서']
인생 1막과의 결별
고승철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73 [그림 속 경제]
비디오 아트 낳은 비빔밥 정신
이미란 아트블루 전시기획실장

74 [시골의사 박경철의 부자되기]
소비지표만 '제대로' 읽어도
투자 고수
박경철 경제 칼럼니스트

80 [고일동의 박물지]
마로니에나 칠엽수냐
고일동 KDI 연구위원

82 [이기호의 문화견문록]
생가(生家)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기호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84 [해외시장 리포트]
미국 유통업 '그린 정책'으로
변신중
박상협 KOTRA 델러스무역관장

87 [나라 밖 경제]
쓰레기로 기름을 만든다고?
서지영 나라경제 기자

88 [이동진과 함께 보는 영화]
다크나이트, 월·E
이동진 영화평론가

90 [사진작가 권태균의 오지기행]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번...

94 [아름다운 그곳]
금산에 살어리랏다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97 [건강하게 삽시다]
인체에서 가장 맑은 폐
김철규 하늘꽃한의원장

98 [시평]
우리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최경수 KDI 연구위원

사물을 배운다

'우리 떡' 이야기

59 유리왕, 떡에 난 잇자국으로 왕위에 오르다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60 떡, 소망과 감사를 담은 상징
윤숙자 한국전통음식연구소장

61 떡의 변신은 무죄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62 찌고 치고 지지고 살고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63 결혼식날 먹어선 안 되는 떡은?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65 빵보다 떡!
서지영 나라경제 기자

66 "뉴욕에서 떡카페 하자네요"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67 "전통 떡의 계량화가 급선무조"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68 이젠 쌀이 아니라 쌀가루다
금준석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위원

70 '깊은 맛'에 관한 한 나는 완벽주의자
서지영 나라경제 기자

71 떡에 美를 입힌다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p58

Reader's Letter

읽을수록 빠져드는 <나라경제>

지난 호 '특집'의 '그 숨겨졌던 경제 사건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한국전쟁부터 외환위기, 한·일 월드컵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굵직한 일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나라경제>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연병선 경기 가평군 가평읍

우리 아빠 만세!

언론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최고로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런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호 '만남' 코너에서 소개된 칼 달만 교수가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의 공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지향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우리 시대 가장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네요.

김소희 전남 목포시 연산동

나는 부채 마니아-

선풍기·에어컨이 제 아무리 시원하다 해도 부채의 미학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로부터 더위를 쫓는 것만이 아니라 춤의 도구로, 그림 도화지로도 쓰였던 부채는 지금도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 '사물을 배운다-부채' 편을 통해 잠시 잊고 있었던 부채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내년 여름에도 예쁜 부채로 더위를 달래야겠어요.

이재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가 법지도 무 겁지도 않은 통화

이 코너는 14개 경제부처와 KDI가 함께 만든 경제정책지 나라경제 지난호를 놓고, 애독자와 전화로 이런저런 비평과 뒷얘기를 나누는 난입니다.

이번 호 통화 통화의 주인공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해양 사무관. 밝지만 다소 긴장된 음성이었다. 나라경제 8월호를 살살이 통독했다. 아니 통독만이 아니라 정독한 게 확실한 것이 편집실이 놓쳤던 부분까지 정교하게 짚어낸다. "건국 60년 특집 중 김찬호 교수의 글은 이전 문화권 문록에서 봤던 내용과 논조가 너무 흡사하더라고요." 와우~ 눈밝은 독자! 그리고요? 또요? 나로 하여금 연신 재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아무리 60주년 특집이지만 과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40년 후 즉 건국 100년까지 짚어봤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물가변동부분을 그래프로 보여준 건 일목요연해서 좋았구요. 좌담은 재미있긴 한데 지나치게 촛불집회 중심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기존 정당정치의 나아갈 길까지 짚어줬더라면 더 흥미진진했을 텐데..."

<나라경제>, 더욱 진지하게, 완벽하게 기획·편집해야겠다는 각오가 솟게 만드는 전화다. 이런 독자가 있는 한 편집실은 아무리 바빠도 즐거울 수밖에 없다. 정 사무관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큰 틀을 짜는 작업 중이다. "부처 통폐합하면서 과학기술 파트의 비중이 줄어든 듯해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부처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알게 된 건 수확이죠. 서로 떨어져 일할 때는 부처간 업무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자각하면 늦은 밤까지 일해도 피로는커녕 힘이 불끈 솟는다고!

9월호는 인간과 생명과 에너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특집 <불을 끄고 별을 쬔다>를 마련했다. 추석이 든 달이라 전통과 떡에 관한 이야기도 펼쳐냈다. 이번 호는 정책해설을 5개나 실을 수 있어 뿌듯하다. 각 부처 간사들은 다음 달에도 나라경제에 정책해설 한 꼭지씩 반드시 던져주시길!

나라경제 독자여러분, 다들 해피 추석하소서!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나라경제

2008. 9 [제19권 9호 통권 214호]

발행 |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 현정택 KDI 원장
편집인 | 임종룡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관 | 김동률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홍보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이국형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문해주 과학기술정책과장
외교통상부 최연호 통상홍보기획관
행정안전부 김현기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김동규 기획재정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김대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지식경제부 안병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가족부 하성 정책기획관
환경부 이윤선 전략총괄과장
노동부 이수영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김경옥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정한근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경쟁정책총괄과장
금융위원회 변영한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 이미희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 김서령 KDI 경제정보센터
취재·편집기자 | 공은주, 이정미, 김준범, 안선경, 서지영

배포 | 김경숙, 김정철

발행처 | KDI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02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 02-958-4656, 4654
팩스 | 02-3295-0744
홈페이지 | <http://nara.kdi.re.kr>
e-mail | nara@kdi.re.kr

발행일 | 2008년 8월 31일 (매월 말일 발행)
제19권 9호 (통권 214호)
등록일 |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 02-958-4664
광고 문의 | 02-958-4667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12
구독료 |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주)
인쇄 | (주)삼화인쇄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대담 :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때 : 2008년 8월 20일 오후 4시

곳 : 장관 집무실

“습지는 생명을 만드는 오아시스”

김서령 : 환경부의 역할과 비중이 많이 커졌다. 부처에 딱히 순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최근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도 그렇고, 아래쪽에서 위로 확 올라온 느낌이다. 환경이 중요한 시점에 장관으로 일하는 소감은?

이만의 : 환경부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뜻이다. 환경이라면 경제를 발목 잡고 기업인이 기피하는 파트였는데 이제는 경제를 뒷받침하고 좋은 이미지를 접목시켜주는 곳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정책도 시장에 바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시장의 역할을 하는 국민이 양적인 성장보다 환경·복지 등 질적인 요소들을 중시하니 거기에 발 맞춰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미래 환경부의 비중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또 커지는 게 당연하다.

김서령 : 역대 환경부 장관은 이미지가 부드럽고 환경과 관련 있는 인물이 많았다. 장관은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만의 :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70년대에 다른 사람들이 인맥 쌓으러 행정대학원 갈 때 나는 갓 생긴 환경대학원에 갔다(73~75). 그리고 76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1차 UN인간주거환경회의(해비타트)에 실무자급 정부대표단원으로 참석했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현장에서 환경훈련을 받은 후 환경 관련 기관에 접목된 케이스다. 내무부(현 행정안전자치부)에서 정책을 수립해 보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일선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집행했다. 전남 여천시장으로 일할 때 광양만, 여수 근해에서 해양생태계 오염 조사,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조사, 그린벨트 설정 논의 등을 한 것은 아주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된다.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가 없었다면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없었을 것이다. 환경정책을 펴는데 이론뿐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어 아주 유익하다.

김서령 : 환경보다 개발이 중요한 과제였을 70년대에 남보다 먼저 환경대학원을 주목했던 이유는 뭔가?

이만의 : 도시화·경제성장도 좋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이 파괴돼선 삶이 결국 공허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대도시에서 태어나 자연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엘리트라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나처럼 산간오지에서 태어나 중도시에서 중등학교 다니고 대도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찌면 마음 한구석에 순수가 남아 있는 진정한 현대인일지도 모른다. 개인적인 호감으로 환경대학원엔 진학했다. 환경대학원은 특히 도시계획·도시설계 등 공학적 측면이 많아 수학과 화학을 좋아한 나로서는 공부가 아주 즐거웠다.

김서령 : 그때는 훗날 환경부 장관이 될 거라는 예측은 못 했을 텐데...

이만의 : 환경 부문의 가이드나 볼런티어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제기구에서 환경 부문의 지도자·봉사자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 여건이 안돼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환경이 여러 분야에 연관되어 내가 기여할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김서령 : 그전 장관 퇴임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다. 국제기구 환경봉사자로 활동할 이 장관의 미래를 기대한다. 다음 달에 창원에서 람사르 총회가 열린다. 어떤 회의인가? 생각보다 규모가 크던데, 준비는 잘 돼가나?

이만의 : 람사르 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현재 158개국이 가입돼 있고, 전세계에 한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각국 정부



1946년 生
광주제일고, 조선대 영문과
서울대 환경대학원(환경계획학)
1972 행시 11회
1982 ~ 1988 내무부 재정과장
1989 ~ 1991 전남 여천시장
1995 ~ 1998 내무부 지방세제국장
2002 ~ 2003 환경부 차관
2003 ~ 2006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2006 ~ 2007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상근집행위원

대표와 국제기구, 학자, NGO 등을 포함해 2천여 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규모 회의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습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오아시스는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체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경제·부라는 성장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그만 습지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지금까지 성장일변도로 뛰어가는 사이에 소홀했던 생명·사랑을 배울 수 있는 오아시스가 바로 습지다.

환경부는 이번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와 우리 습지를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려 한다. 그런 목적으로 기반 시설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습지문제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찾는, 의미있고 역사적인 행사를 내 재임기간에 개최할 수 있어 행복하다.

김서령: 우포늪은 세계에도 몇 안 되는 자랑스러운 습지라는데 정작 우리 기본 적도 없다.

이만의: 우포늪은 국민의 이름으로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를 다짐할 만한 값진 자원이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다. 그런데 일반국민들은 물론 지식인조차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다. 우포늪은 눈에 안 보였던 조그만 것들이 우리 삶의 질과 미래비전 세팅에 진정 중요하다는 걸 부각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김서령: 유가공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석유에 의존해 온 우리로서는 고유가가 치명적이다. 석유 없이는 밥도 못 먹겠더라.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90%가 석유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만의: 그렇다. 농약, 비료, 농기계 생산이 모두 석유와 관련되어 있다. 석유자원은 40년 후면 고갈될 걸로 본다. 브릭스 같은 신흥국들이 경기활황으로 에너지 소비가 커지면 40년 이전에 고갈될 수도 있다. 석유가 고갈되는 것은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 우리 조상들도 ‘궁즉통(窮卽通)’이라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반드시 그 해법을 찾지 않았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대체 에너지라는 좀 더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조력 발전소를 이용해 에너



지를 얻지 않나. 최근에는 땅 속의 열을 활용해 에너지화시키는 시스템까지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폐기물(쓰레기)에 관심이 많다. 폐기물에서 나오는 가스를 태워서 발전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버려졌다는 뜻의 폐기물이 아니라 돌려쓴다는 의미의 순환 자원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프랑스가 원자력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고, 독일·우리나라·일본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발전시킬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석유고갈에 따른 대체수단을 개발 중이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나타날 위험성을 정확히 예측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

민이자 숙제다.

캠페인도 필요하다. 만족스럽게 사는 방법 중 하나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마음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전문용어로는 수요관리라 한다. 큰 자동차, 큰 집, 비싼 전기료로 편하고 호화롭게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란 걸 다 같이 느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김서령: 욕망을 줄여서 만족하는 삶은 개인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중형차 타는 사람보다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더 품위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하지 않을까. 환경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큰 것 같다.

이만의: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그린스타트 운동을 설계했다. 그린스타트 운동은 국민 개개인이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문화를 확산· 정착시켜 저탄소사회를 구현하자는 운동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8·15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이 운동은 국민들과 함께 의식과 문화, 생활방식, 사고방식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자연에 가장 가깝게, 자연 의존도를 높여가며, 자연과 하나 되자는 운동이다. 65개의 실천항목을 뽑아 국민에게 권장해 나가고 있다.

김서령: 그런 운동은 위에서 솔선수범하는 게 효과적일 텐데. 장관은 무얼 실천하고 있나?

이만의: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장관 차부터 작은 차로 바꾸자 해서 실은 얼마 전 연비가 좋은 작은 차로 바꿨다. 앞으로는 지도 충일수록 소형차, 하이브리드카로 바꿀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 큰 차 못 타던 사람들은 이제라도 큰 차 한 번 타보자고 생각할 테니 쉽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떨치고 모두가 새로운 흐름에 합류해 친환경적으로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개혁 캠페인에 미디어 역할이 매우 크다. 『나라경제』같은 잡지가 앞장서서 잘 홍보해줬으면 좋겠다.

김서령: 이력이 재밌더라. 영어 선생님이 고시공부를 하셨나?

이만의: 2년간 중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은사님께서 “기생하고 선생은 3년 안에 떠나지 못하면 평생 그 직업을 붙들고 산다”셨다.

김서령: 하하. ‘生’ 자 돌림이네

이만의: 은사님은 교직에 평생 몸담을 거면 계속 있고 아니면 3년이 되기 전에 떠나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2년 하고 대책 없이 관두고 고시공부했다. 아마도 인생 끝무렵에 아름다운 환경행정을 하라고 합격이 됐나 보다.

환경을 좋아하다 보니 꽃과 대화하고 구름과 교감하고 흙을 밟으면서 한발 디딜 때마다 감격하고 빈들에 농작물 채워주는 농민께 감사하다. 환경은 참으로 훌륭한 교사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 철학자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메시지다. 자연 속에 들어오면 모두가 시인이 될 수밖에 없다.

김서령: 멋지다. 환경장관과의 이야기에서 시인의 감성을 느끼니 행복하다. 말을 바꾸자. 올 여름 내 기상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 예보관을 수입한단 소리도 있던데.

이만의: 그 부분은 내가 할 말 많다. 우리나라 기상 적중도가 85%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이 86.5%다. 겨우 1.5% 차이인데 못 맞춘다고 난리다. 85% 적중시킨 공은 생각 안하고 15% 오보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 기상청이 곤혹스럽지. 날씨야말로 진인사대천명이다. 최선을 다해 정확하게 예보하도록 노력하되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기상청에 계신 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내부혁신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국민은 관대해지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해 그의 전문성을 배우고 기상청 직원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최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다양하게 변한다. 노약자·어린이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예보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은 미흡한데 85% 적중만을 주장하니 시장에서 배반현상이 생겨났다

고 본다.

김서령: 장관도 지금 잠깐 기후변화에 대해 말했지만, 기후변화가 인류의 미래에 끼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 환경부는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나

이만의: 기후변화는 지구촌 최대의 화두다. 내년을 시한으로 하는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해 국제협상이 전개되고 있고 선진 각국은 이를 계기로 자국 경쟁력을 높이려고 혈안이다.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합의한 발리 Action Plan에 따라 2012년 이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 제도’, 저탄소형 문화 확산을 위한 ‘탄소라벨링 제도’, Eco-driving(경제적 운전)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빨리 저탄소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김서령: 후배들에게 인생의 지침이 될 말씀을 해달라.

이만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와 ‘한 개의 얼굴을 가져라’다. 특히 공직자는 상황에 맞춰 자기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선 안 된다. 교사생활할 때 중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밭에서 김매다 허름하게 입고 온 학부형에겐 앉으라고도 하지 않고 악어백 들고 온 학부형한테 아주 친절하더라. 반대로는 못 해도 똑같이 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그때부터 평생 한 개의 얼굴로 살자고 다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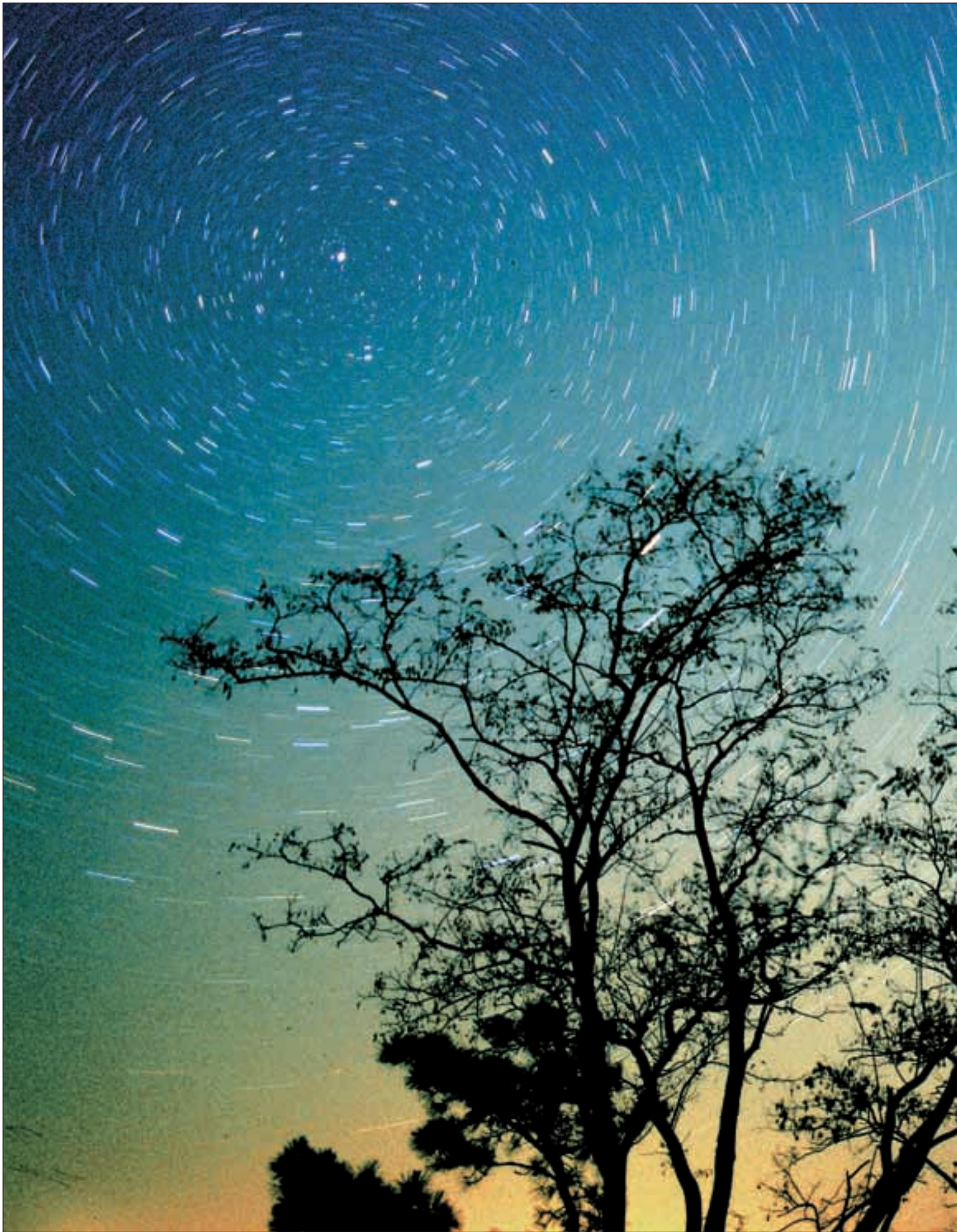
김서령: 가족은?

이만의: 애들이 많다. 딸 셋 아들 하나다.

딸들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목적으로 낳았고, 셋째·넷째(아들·딸)는 말하자면 덤으로 얻은 선물이다. 80년대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사람들이 우릴 원숭이 보듯 했는데, 이젠 애국자가 된 기분이다.(웃음)

김서령: 장관이 떠나고 난 후 환경부는 어떻게 달라질까? 즉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나?

이만의: 명품을 만드는 것도 시장(market)이고 도태시키는 것도 시장이다. 환경부 직원의 능력과 국민의 애정, 미래 비전 등이 모이면 환경부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경제가 선진화되고 국민 의식이 세계화될수록 환경부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환경부 역할이 국민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그걸로 난 대만족이다. 





불을 끄고 별을 켜자

‘에너지 소비량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석유 수입 세계 4위, 석유 소비량 세계 7위’

대한민국의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데 큰일이다. 에너지가 위기다. 화석연료는 바닥을 보이고 있고 대안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나라경제』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살펴보고 가정과 기업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본다.

화려했던 한강 다리 조명 당분간 끈다

에너지 수요 감축과 대체에너지 개발로 고유가 이겨야

2008년은 에너지안보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해로 기억될 것이다. 140달러를 넘어선 초고유가로 정부는 공공기관 자동차 2부제 운행이라는 초강수의 에너지절약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유가급등은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불안은 물론 구매력 저하와 함께 경제 성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미래학자 바커와 에릭슨 등이 쓴 〈Five regions of the Future〉에서는 2050년에 공해 없는 에너지세상이 등장한다. 수소가 주연료가 되며 석유는 플라스틱, 윤활유나 다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연료로만 이용되고 핵융합 원자로로 전력을 생산해 전력 공급이 어려운 곳까지 사용되게 한다. 미래의 에너지는 일정량의 화석에너지와 신에너지로 감당한다는 소설 같은 얘기가 이제는 현실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겪는 구조적인 문제는 체질개선이 더욱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에 바탕을 두고 있어 선진국보다 에너지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근간으로 하는 고유가 대응책이 중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많은 연구기관에 따르면 향후 유가 평균 150달러 수준에서는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고유가를 막을 수 있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수요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대체 가능한 에너지 개발이다.

초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 국민적 정서를 모아야 한다. 기업체는 제품 생산성 향상에서 에너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은 너무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강다리를 수놓던 경관조명 시간이 단축됐다.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아래부터)의 경관조명이 모두 꺼지고 가로등만 불을 밝히고 있다.

나 주관적이다. 공동 사용에너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를 극복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적 여건을 인식한 시민운동일 것이다. 독일에서 시작된 그룬네 슈타트(Gruene Stadt) 운동은 기존의 시민운동과 달리 자율적인 녹색바람과 에너지 인식도를 높여 생활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킨 좋은 사례이다.

다음으로 에너지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세계 주요국들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과 새로운 에너지공급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석유비중 축소, 에너지공급원 다양화를 위

한 기술개발 및 상품화에 대한 노력,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에너지 여건은 자원 의존형 체제에서 기술 의존형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규제와 에너지효율 기준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이 발효됨에 따라 21세기는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를 에너지 기술력 확보에 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 개발의 기술과 보급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중점분야를 선정해 집중 연구해야 한다. 또한 신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방향 아래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할 때 우리나라는 에너지위기에 대처하고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 응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흐름에서 낭비요소를 풀어내야 한다. 수요부문의 경우 무엇보다도 현 시스템 내에서 해법이 요구된다. 즉 최종에너지 수단인 산업, 수송, 가정 및 건물 등 각 분야에서 에너지 이용기와 기술들에 대한 적용분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 단기적으로 절약목표에도

달하도록 해야 한다. 공급부문의 경우 에너지 사용 패턴을 변화시켜 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에너지수급 안정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 공급사에서 의무적으로 수요관리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와 같은 에너지공급자대상 정책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만하다. EERS는 에너지 공급업체들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국가 또는 지역의 에너지효율을 높여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적 도구이다. 또한 절감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 시장친화적인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주들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시행 중이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고 미래에 닥쳐올 에너지위기에 대비하려면 세계수준에 접근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과 함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흐름상에서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여러 형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방법을 찾아 내야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박수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위원
supark@kier.re.kr

2020년, 폐기물 에너지 경제 효과 연간 4조 원

원유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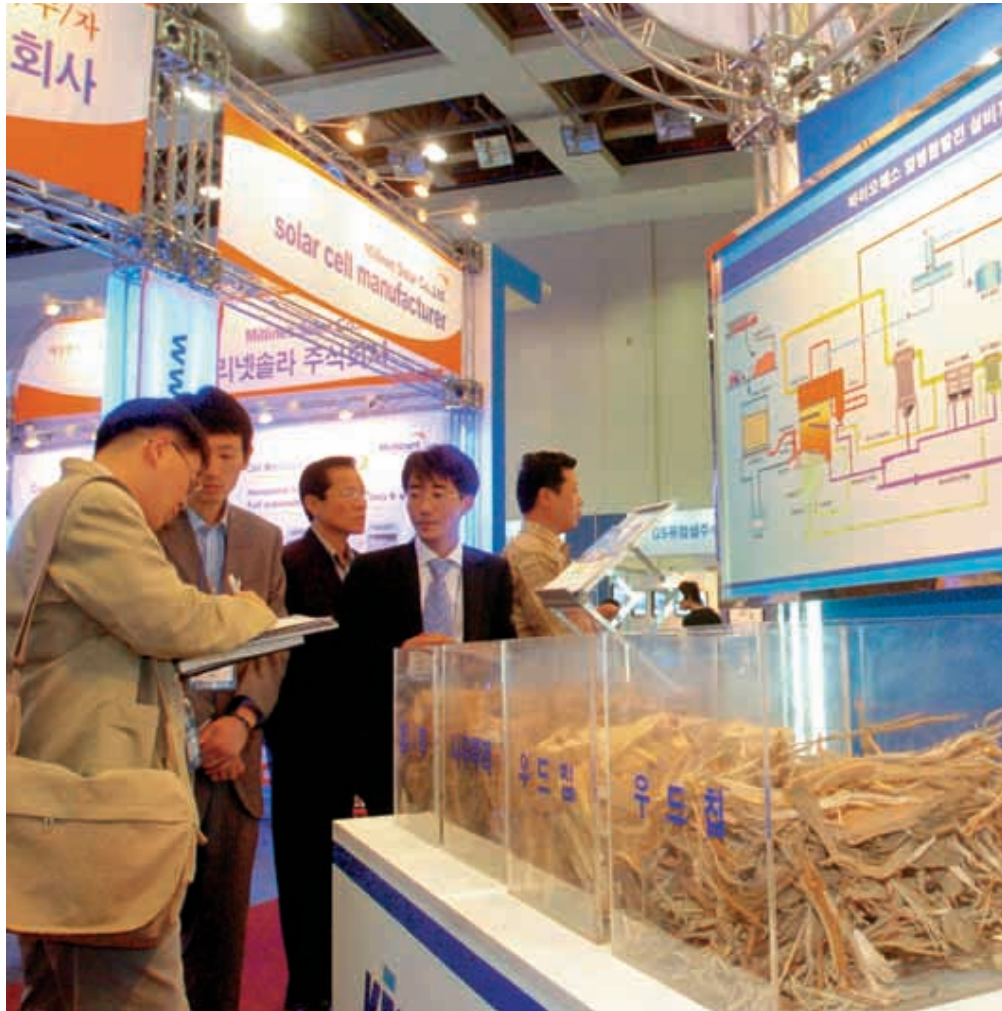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미국의 7.6배에 달한다. 발생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환경부에서는 고유가시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런던협약 및 수산물 안전을 위한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 억제 등 시대 상황 변화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뿐 아니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EU, 독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폐기물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했다. EU는 폐기물 직매립 억제제를 통하여 폐기물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일본은 중소형 소각로를 고효율로(RDF)연소시설로 전환하고, '바이오매스타운'을 건설해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고효율로(RDF)와 석탄을 혼합해 연소하는 발전소 3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폐기물에너지화를 위해 매립되는 가연성폐기물과 해양에 투기되는 유기성폐기물(1,218만톤/년)을 2012년까지 31%, 2020년까지 전량을 에너지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소각시설에서 소각열(128만Gcal/년)을, 기존 매립시설에서 매립가스(1,218만톤/년)를 회수하여 에너지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3조2천억 원을 국고(31%), 지방비(29%), 민간자본(40%)으로 투자하여 폐기물 고효율에너지화(RDF)제조시설 20개소(5,840톤/일), 열병합발전시설 10개소(5,840톤/일), 슬러지연료화시설 4개소(1,280톤/일), 음폐수가스화시설 11개소



〈표 1〉 연도별 유가 추이

(단위 : \$/배럴)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4월 14일
23.88	26.8	33.77	49.37	61.55	68.43	101.66

자료 : 대한석유협회 에너지 통계연보(두바이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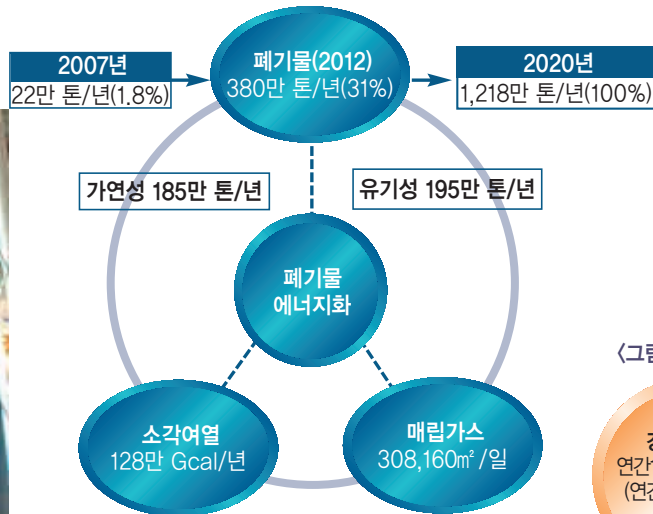
〈표 2〉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별 확충계획

		계	타운	개별
시설별	계(톤/일, 개소)	14,190 (57)	7,180 (16)	7,010 (41)
	RDF제조	5,840 (20)	2,400 (4)	3,440 (16)
	발전시설	2,800 (10)	1,400 (4)	1,400 (6)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1,280 (4)	1,000 (1)	280 (3)
	음폐수가스화	2,690 (11)	1,820 (4)	870 (7)
	병합가스화	1,580 (12)	560 (3)	1,02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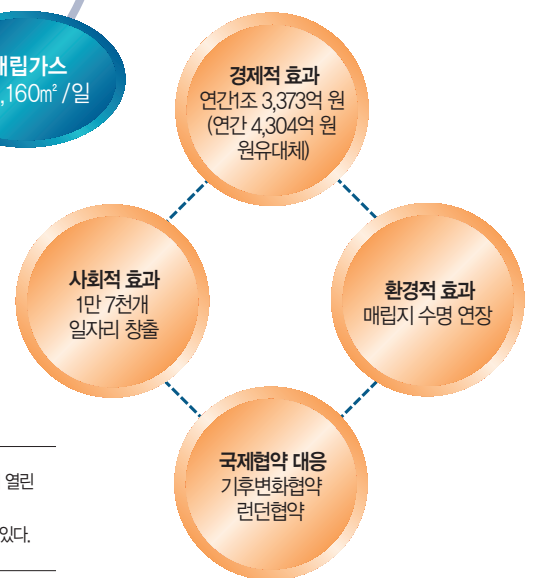
주 : 타운 내 음폐수와 병합가스화시설은 하나의 시설로 설치(총 4개시설)



〈그림 1〉 폐기를 에너지화



〈그림 2〉 효과



지난해 5월 엑스코(EXCO · 대구전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민관대책협의체,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관계 전문가자문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에너지화촉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원유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2012년에 연간 1조 3천억 원, 2020년에는 연간 4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1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 및 해양배출 금지 등 당면 사회·국제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매립지 수명연장 및 침출수 문제, 소각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문제 등을 원천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폐기물 에너지화는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

폐기물 에너지화의 추진으로 감량화·재이용·재활용·에너지화·안전처리로 이어지는 완성된 자원순환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면 쓰레기 없는(Zero Waste) 지속 가능한 사회는 우리에게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이다. 

(2,690톤/일)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그외 지자체 소각 열병합수시설 42개소, 매립가스 회수시설 27개소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회수할 계획이다.

이러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08년 5월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권역별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타운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참여 지자체와 협의회 구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최병철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팀장
cbc9100@me.go.kr

가로등 하나 건너 하나만

정부-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민간- 석유 10억 리터 모으기 운동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95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수출 1·2 위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액을 합한 887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만 이미 전년대비 62% 증가한 701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7월 4일에는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140.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 전망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두 자릿수의 '값싼 석유'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석유 소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은 당위성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총리 주재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자동차 기준 연비 상향조정,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확대,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등을 골자로 하는 '신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했다. 동 대책의 의의는 산업·수송·가정·건물·공공 등 각 부문별 에너지 낭비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 및 효율대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데 있다.

또한 6월 8일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원래 예산인 4,837억 원에 5백억 원을 추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20%까지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7월 6일에는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했다. 공공부문에 대해



공공기관 승용차 출퇴근 운행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5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청사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는 에너지 소비량 10% 감축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절약조치를 권장했다. 특히 석유 수요와 직결된 수송부문과 난방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상업부문을 주요대상으로 해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 승용차 출퇴근제, 경관조명 소등, 가로등 격등제, 건물냉난방 온도 및 승강기 운행 제한 강화와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민간부문에는 승용차 요일제,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 주유소의 옥외간판과 조명 사용 자제, 대형 점포의 외부조명 사용 자제, 네온사인 자제 등 자율 에너지 절약 조치를 적극 권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단기적 수요관리 대책과 병행해 중장기적 에너지 공급 안정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설비 비중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공사 대형화를 통해 생산규모를 2012년까지 30만 배럴로 늘리고, 러시아·아프리카·중아시아·중남미 등 4대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외교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작은 실천도 꼭 필요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석유 10억 리터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에어컨 끄기, 대기전력 차단 등 3가지 실천을 통해 연말까지 석유 10억 리터를 절약하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캠페인 운동이다. 우리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탄소저감형 생활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



박정욱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장
parkjw@mke.go.kr

온천수 지역난방, 자전거 무상보급

지역특색에 맞는 에너지 절약요책 속속

에너지 절약, 귀가 닳도록 듣고 있지만 절약은 습관이니 당장 실천에 옮기기 어렵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은 고유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 최근 가정·기업·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이 한창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닌데, 각 지역마다 특색 있고 참신한 에너지 절약대책들이 속속 등장했다.

서울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을 벌일 때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안을 담은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친환경 건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강남구는 국내 최초로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만큼 포인트를 제공한다. 주택은 이산화탄소 10kg 감축시 1포인트, 공공기관과 기업은 100kg 감축시 1포인트, 공공주택은 1세대 1포인트, 학교는 학생 1인당 3포인트를 받는다.

인천 강화군은 온천수를 이용해 지역난방을 해결한다. 현재 20가구에 난방용 열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2백가구까지 늘릴 예정이다.

경기도 시흥시는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자정 이후 네온사인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다. 목욕탕 등의 에너지 사용시간도 20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과천시 폐자전거 50대를 수리,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 중이다. 남양주는 11개 구간 413개 가로등에 대해 격등제를 실시한다. 가평군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해 태양광 주택 10만 가구 건설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충청북도 증평군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유가 급등으로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사진은 자전거 동호회원들

을 '에너지데이(Energy-Day)'로 지정해 전 직원 야근 안하기 운동을 전개한다. 제천시 도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을 '차 없고 야근 없는 날(Working & Family-Day)'로 지정했다. 청주시는 2007시·군 교통정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으로 교통카드(Mybi Card) 5백개를 제작, 이달 중 직원들에게 나눠줘 출·퇴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 에너지를 절약한 시민들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에너지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에너지 절약량을 마일리지로 환산해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이다. 이 운동은 천안시에서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 자전거도시로 유명한 상주시는 지난달 9일 먼 거리에 사는 직원 43명을 제외한 5백여 명의 공무원이 모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구미시에는 자전거에 이어 소음·공해 없는 전기 스쿠터가 등장했다.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 내 전가구에 자전거 1대를 무상보급하고 시가지 도로 1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창원시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출퇴근 수당제'를 도입하고 있고 시청에서 반경 3km 이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자전거 출퇴근을 의무화하고 있다. **▲**

밤 9시부터 5분간 다함께 ‘불 꺼’

에너지의 날 행사로 전력 97만 5천kW 절감

“어 정말 별이 보이네.” 지난달 20일 수요일 밤 9시 시청 광장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밤은 어둡다. 별은 밤에 보인다. 당연한 진리이지만 현대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이 당연한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휘황찬란한 야간 조명에 가려 우리 머리 위에 빛나는 별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서울 가장 한복판 서울 광장 하늘에서 별이 보였다. 물론 Just 5 minutes! 한 여름밤에 꿈을 꾸듯 정말 짧은 시간이었다. 그 광경에 사람들은 감탄사를 내뿜었다.

8월 20일은 올해로 다섯 번째 맞은 에너지의 날이었다. 시청 앞 서울 광장을 필두로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에 행사가 진행됐다. 전국적인 소동행사가 진행되는 5분 동안 지역행사를 진행하던 실무자 몇 명에게서 같은 문자가 날아왔다.

“여기 별이 보여요.”

270여개 NGO들의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왜 8월 20일 경에 에너지의 날 행사를 진행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8월이 오면 폭염도 온다. 폭염을 피해 온 국민이 피서를 떠나는 계절도 8월이다. 문제는 피서지에서 돌아와 일터에 복귀하면서부터다. 그때가 8월 20일 경. 이 때 우리에게는 비상사태가 발생한다. 전력소비가 한계에 달하기 때문이다. 주범은 에어컨의 맹기동. 에너지시민연대에서 2004년부터 시작한 에너지의 날 캠페인이 8월 20일 경에 자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때 우리들의 에너지소비에 대해 다시 성찰해 보고 절약 생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서다.

우리들은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언제나 값



싼 전기를 공급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가전제품과 밝은 조명 아래 불편함 없이 살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여름철 더위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추위에 떨 때가 더 많다.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에어컨을 펄펄 틀어대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도 편리한 보일러 덕분에 아파트 단지 어디에서나 속옷차림 또는 반팔차림으로 지낼 수 있게 됐다. 직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에 올

랐다. 석유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수입해 7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다. 천연가스도 최대 수입국 반열에 올랐다.

사 상초유의 고유가 시대다. 언제 다시 유가가 고공행진을 시작할지 모를 일이다. 지구는 너무 뜨겁다. 우리나라도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대로 바뀌었다. 지구촌 곳곳에 이로 인한 재난도 속출하고 있다. 우리가 태우는 화석연료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달 20일 서울광장 앞에서는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염원을 담은 '2020명 통기타 합주' 행사가 열렸다. 가수 한대수의 기타반주에 따라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들

에너지절약이 절실한 때이다. 물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업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도 사회 각 지도층에서부터 어린이·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나부터 먼저 실천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는 에너지 날 주제였다. 밤 9시부터 5분간 모두가 함께 불을 끄면 사라졌던 별이 돌아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는 행사이다.

전력거래소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에너지의 날 전국적인 소등으로 30만kW가 절약됐다. 같은 날 낮 2시부터 1시간 동안 전개된 에어컨 끄기 캠페인으로 67만5천kW가 절감됐다. 이날 두 가지 캠페인으로 모두 97만5천kW의 전력량이 절감된 것이다. 100만kW급 원자력 발전소 1기가 발전해내는 양과 맞먹는다. 작년의 77만kW 절감량보다 20%가 더 절감된 양이기도 하다. 전국 60여만 개가

관과 7천여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동참이 늘면서 이렇듯 매년 성과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은 미미한 숫자이다. 하지만 우리 도시 아이들에게 은혜수를 돌려줄 수 있을 때까지 에너지의 날 캠페인은 계속돼야 한다. 모두 함께 불을 꺼 전국의 모든 밤하늘에서 별이 빛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이 더욱 확산돼야 한다. 매일매일이 에너지의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에너지의 날에 이어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해 10리터씩 석유를 모으자는, 석유 10리터 모으기 천만인 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나가고자 한다. 지금까지 3만5천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참해 약 50만 리터에 달하는 석유를 모았다. 환경포털 3주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곧 환경 분야 사이트에서 TOP마크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는 쉽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안 쓰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기로, 적정 냉난방 온도 지키기로 각각 석유 10리터씩을 모을 수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에너지절약은 곧 제2의 에너지생산이다. 석유 모으기에 오늘부터 동참하자. 온라인(<http://oil.100.or.kr>)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이기명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ksdn2000@hanmail.net

지구촌은 초(超) 절전 모드

도쿄는 자전거족, 뉴욕은 노캉스족



지난 달 도쿄에서 열린 '물로 더위 식히기' 캠페인에서 3륜 택시에 장착된 마네킹이 달려진 도로 위에 물을 뿌리고 있다. 마네킹은 태양열을 이용한 동력으로 물을 뿌린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개인까지 기름값 한 톨을 아끼기 위해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새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진풍경이 펼쳐지면서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독일은 열 회수 설비나 태양열 설비 등을 설치하면 투자비의 2%를 건물주에 지급한다.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평가되면 8년간 최

대 월 160만원의 보조금을 더 준다. 프랑스는 에너지 판매업체에 일정 기간 에너지 절감 목표량을 할당하고, 어기면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창문·유리·새시 등에 단열 성능 수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중국은 공무원 차량 50% 운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태국은 공무원 재택 근무제 'e-오피스'를 도입한다.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선 전력 소모가 많은 백열전

구가 퇴출될 운명에 놓여있다.

중장기 대책으로 미국은 오는 2022년까지 적어도 360억 갤런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4억9천만 달러를 들여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짓고 있다. 영국은 북해에 새 유전을 개발하고,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인 원자력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94년 이후 17개국의 해외 유전 총 30곳을 사들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지난 2000년 ‘태양열 조례’를 도입한 바르셀로나는 공공기관에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을, 가정에는 온수를 만드는 태양열 집열판을 달고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 시와 독일 브레멘 시 등에선 가로등이 행인과 차량 통행에 맞춰 자동 점멸되거나 통행량에 따라 밝기가 달라진다.

기업들도 에너지 군살 빼기에 한창이다. 미 맥도널드사는 모든 점포의 요리 기구에 인공 칩을 달아 에너지 절감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프랑스 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 직원을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배치하고 있다. 미 모텔업체 모텔6는 객실에 손님이 없으면 자동으로 에어컨이 꺼진다. 실리콘밸리 어도비 시스템의 모든 기기에도 사람이 있어야 작동한다. 복사기 업체 후지제록스는 도쿄의 오토바이 6백여대를 전동 자전거로 교체했다. 택배업체 야마토 운수도 리어카를 단 전동자전거 8백대를 특별 제작, 소형 트럭을 대체하고 있다.

일본 타이어업체 브리지스톤은 페타이어를 활용, 전 공장에서 필요한 전기의 3분의 1을 충당한다. 화학업체 다우코닝은 제조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에서 연료를 뽑아낸다. 흥청망청 에너지를 쓰던 카지노 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그린(green) 카지노’를 표방하는 미국 미시간주 윌리엄즈버그 인근의 터틀크릭은 인공 조명 대신 자연 채광을 살리고, 음료는 캔·병이 아닌 유리잔으로 제공한다. 라스베이거스의 리조트 단지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유가는 세계인들의 생활상도 바꿔놓고 있다. 미국에선 요즘 주말을 금요일에 맞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오하이오와 뉴욕, 조지아, 캔자스 등의 주정부는 물론 미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디트로이트의 작업장들도 앞다퉈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했다. ‘TGIF(Thank God It’s Friday)’ 대신 ‘TGIT(Thank God It’s Thursday)’를 인사말로 주고받을 날도 머지않은 셈이다. 기름 값 부담이 증가하면서 미국인의 바캉스 풍속도 역시 사뭇 달라졌다.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노캉스족’ 등 알뜰 휴가족이 늘면서 휴가철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에너지 절약형 교통수단이 속출해 출퇴근길 풍경도 바뀌고 있다. 교통혼잡의 대명사였던 워싱턴은 걷고 자전거 타는 도시로 변신 중이다.

도쿄에선 소형차나 오토바이 대신 전동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샐러리맨들이 늘고 있다. 뉴욕은 하이브리드(hybrid) 카가 거리 일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뉴욕시는 오는 2012년까지 옐로캡(시내 운행 택시)을 모두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일리노이 주에선 골프 카트가 거리에 등장했으며 대서양 건너편 스웨덴에선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나무 가스차가 다시 출현했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기내식을 판매하는 비행기도 생겨나고 있다. 미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 항공은 기내식을 3달러에 팔며 유나이티드 항공도 국내선에 유료 간식을 선보였다. ■



김영화
헤럴드경제 국제부 기자
bettykim@heraldm.com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정책을
쉽게 설명한
「나라경제」를
권합니다.

정기구독 문의 및 신청

▶ 02-958-4656

nara@kdi.re.kr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2030년 1조 달러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을 향한 희망

지난달 열린 베이징 올림픽과 지난 6월에 열린 스페인 사라고사엑스포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그린 올림픽, 그린 엑스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신재생에너지가 원유수급과 유가불안정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를 왜든나할 핵심 열쇠라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신재생에너지는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 벤처캐피탈의 친환경기술 투자자금은 1990년 1억7천만달러에서 2007년에는 20억달러가 넘는 정도로 증가했고, 2030년 세계 재생에너지시장은 1조 달러로 성장이 예측(Morgan Stanley, '07.10)된다.

우리나라도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우리 미래 사업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예산 규모는 총 1,94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0%나 증가한 규모다. 이렇게 급증한 예산으로 우선 성장가능성이 높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유기성 태양전지 개발을 통한 스포츠 의류,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시장창출과 해양바이오자원인 홍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개발 등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 등이 진행된다.

아직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고성능·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대안을 넘어 국가 성장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엑스포'에 소개된 태양광발전소.

저비용 혁신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저풍속에 서도 효과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 시스템, 저수설비·하천 등을 활용하기 위한 소수력발전시스템 개발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설비 국산화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수요·공급 기업의 공동참여를 유도한다. 보다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시장환경, 기술수준, 사업화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올해 안에 제시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아직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시장규모도 크지 않아 그 개발과 보급에 많은 돈이 필요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할

때 신재생에너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2007년 태양전지 세계 1위를 차지한 독일 큐셀사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1999년 4명으로 회사를 설립한 지 8년 만에 세계 1위 샤프를 제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정확한 기술 트렌드 파악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힘이 아우러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할 때 신재생에너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계]



정창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cjeong@mke.go.kr

신재생에너지 사용 공기업이 앞장선다

정부,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협약(RPA) 체결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 협약(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이하 RPA)을 체결했다.

RPA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관련연구 개발투자,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 사업자 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규모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정부와의 약속이다.

한국전력 등 9개 RPA 참여기관은 2006년 1,246억 원, 2007년 2,409억 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올해는 5,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RPA협약사업으로 각 참여기관은 지난해 85.9MW 규모의 발전설비와 18.6Gcal/hr 규모의 열설비를 공급하는 등 총 28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등 총 412억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며 특히 부산 '아이들의 집(태양광 35kW)', 전주 '무지개 가족(태양광 50kW, 태양열 107㎡, 지열 120RT)', 성남 '자광원(태양열 104㎡)', 양구 '가칠봉 GOP(태양광 15kW)'와 같은 공동협약사업을 통해 복지시설, 군부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복지향상에도 기여했다.

올해에는 발전설비 245.2MW(수력 17.3, 풍력 33.2 태양광 27.8, 기타 166.9) 및 열설비 39.6Gcal/hr(바이오 14.7, 소각장 9, 히트펌프 15.6, 지열 0.2)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 925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008에너지대전 및 종합홍보관 신축



RPA협약사업으로 설치한 제주도 한경풍력단지 풍력 발전기(위),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군에 가동 중인 300mw급 태양광 발전소(아래)

에 13억3천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RPA 기관 간의 공동협약을 통한 복지사업으로 춘천 '광림 노인전문요양원(태양광 20kW, 지열 700kW)', 음성 '꽃동네 노인요양원(태양열 326㎡)', 양구 '가칠봉 GOP(풍력 20kW)'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1차 RPA협약의 마지막 해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3년 동안 2차 RPA협약을 진행할 것이다. 특히 2012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2차 RPA협약기간 동안에는 기존 1차 협약기간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지]



이규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과장
lgt@kemco.or.kr

하이브리드카, 미래의 희망이다

LPG 엔진과 전기모터 동시사용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2007년 409만 대를 생산, 285만 대를 수출했다. 무역수지 흑자 425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제1위의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유럽·중국·인도·베트남에서도 116만 대를 생산해 총 생산대수 525만 대를 기록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의 7.1%를 점유하는 성과를 올렸다. 반세기 전인 1955년, 불과 7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우리나라 자동차업체가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에 투자한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국민적 관심의 결과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가급등과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은 고효율·친환경차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고효율의 연비가 좋은 친환경차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미국·유럽 등은 환경규제를 강화해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지 못하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도 판매할 수 없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친환경차는 2010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급격히 대체해 2035년경에는 신규 차량 전량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친환경차 기술의 선점여부가 미래 자동차시장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매년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지원해 왔다. 정부 지원과 자동차 업계 노력의 성과로 드디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카가 양산될 전망이다. 하이브리드카는 내연기관만으로 구동하는 기존 자동차와는 달리 '내연기관 엔진'과 '배터리와 전기모터' 두 종류의 동력을 조



지난 5월 현대자동차는 LPG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쏘나타 LP(LPG Injection)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보였다. 이 차는 기존 엔진 대비 45% 연비향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했다.

하이브리드카(hybrid car)란?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는 '집중, 혼합' 등을 의미하는 단어의 뜻 그대로 두 가지의 동력원을 함께 사용하는 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자동차에 사용되던 내연기관 엔진에 전기모터를 결합한 형태를 일컫는다. 전기모터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배터리는 자동차가 움직일 때 다시 충전된다.

합해 구동하는 자동차로서 첨단기술로 자동차의 연료소비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기술에서 최고의 에너지절약대안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하이브리드카는 LPG를 연료로 사용한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LPG 자동차 기술과 LPG 연료가격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자동차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

는 고효율의 차가 탄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각 부처는 자동차업계의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경쟁을 독려하고 부품업체의 조기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세제혜택 등 하이브리드카 구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등 미래 친환경·고효율차 기술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지원정책도 준비 중이다.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카는 내년부터 양산된다. 소비자의 사랑을 받으며 도로 위를 질주하고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미래 우리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



남궁재용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산업과 사무관
jynk@mke.go.kr

천연가스자동차 일석삼조

환경개선 · 에너지대체 · 일자리창출

환 정부는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1992년부터 G7차세대자동차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버스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였다. 1998년 인천 · 안산지역에서 4대의 CNG 시내버스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매연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승차감도 뛰어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2000년 본격적으로 보급을 시작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천연가스자동차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2003년에 천연가스청소차, 2004년에 통근 · 통학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 등으로 보급을 확대했다.

2008년 6월말 현재 천연가스버스는 1만 6,538대, 천연가스청소차 338대가 운행 중이다. 천연가스 충전소 262개가 설치됐고 2010년까지 2,200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해 전국 시내버스의 약 75%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CNG차량이 지닌 짧은 운행거리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여 1회 충전으로 2배 이상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자동차가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 공항버스 등을 대상으로 시범보급을 한 후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천연가스차량의 보급확대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경유와 천연가스 가격차가 더욱 벌어져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첫째 매연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적게 배출되어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에 유리하다. 둘째 천연가스



현대자동차가 올해 새로 출시한 천연가스버스

자동차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셋째 고유가 시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천연가스를 사용해 석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한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관련제품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0월에 아시아태평양천연가스차량협회(ANGVA) 총회 및 전시회를 강원도 동해시에 유치했으며 2012년 세계천연가스차량협회(IANGV) 총회 및 전시회를 강원도 춘천시

에 유치했다. 우리나라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차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천연가스자동차 학교(NGV School)를 매년 개최한다. 올해는 한-아세안국가간 경제 · 기술 협력사업의 하나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 · 기술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올해는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산업이 세계무대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심무경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karma58@me.go.kr

해답은 버스·지하철이다

환승체계 효율, 소요시간 절감이 핵심

국내 수송부문 에너지는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1990~2006년 동안 연평균 6.3%씩 성장했다. 도로부문의 에너지소비가 79%로 가장 높고 해운 12%, 항공 8%, 철도부문이 1%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경유가 45%, 휘발유가 21%, 기타 23%, B-C 계열 9%, 전력이 2%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1.4%의 증가율로 총소비량은 2006년 3,600만 TOE(편집자 주: 에너지 소비 단위로 Ton Of Equivalent, 열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유로 환산한 단위)에서 2030년 5,100만 TOE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총 에너지 수요는 2006년 1억2,400만 TOE에서 2030년 1억1,800만 TOE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국가총 에너지 수요가 감소해도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교통부문의 에너지수요는 줄이기 힘들 뿐더러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통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승용차와 대중교통, 녹색교통의 효율성은 다음 사진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 기준 승용차는 26.1%의 수단분담률을 보이면서 에너지소비는 53.2%를 차지하고 있다. 반해 지하철은 35.0%의 수단분담률에 12.0%의 에너지 소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대중교통이 이용자들에게 선택가능한 교통수단이 되게 해야 한다. 대용량인 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오산IC 구간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첫날인 7월 1일 반포IC 인근 모습. 버스전용차로는 소통이 원활하나 일반차로는 밀려든 차량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중교통의 특성상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각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며 운영에서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대중교통 수요에 맞는 적절한 용량의 대중교통 수단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기능에 따라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는 교통체계가 필요하다. 이상적인 교통체계는 교통수요와 거리에 따라 광역급행전철과 지하철, 간선버스, 지선버스 등으로 나누어 전체 지역에 대중교통 확실히 공급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수

도권의 경우 기존 광역철도의 급행화, 신규 철도의 건설, 광역버스, 간선버스 등을 통해 간선 기능을 확보하고 지선버스를 이용해 간선 대중교통 수단에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중교통이 승용차에 비해 효율 측면에서 우월한 교통수단이어야 한다. 대중교통의 장점은 낮은 비용과 정시성이라 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켜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통행시간을 줄여 시간비용을 절감하거나 대중교통 요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통행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이동시간 감소와 환승시간 및 대기시간 감소가 필요하다. 버스에 대한 전용차로 확보, 전용출입구 설치, 전용신호체계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동시간을 승용차에 비해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같은 수의 승객 운송에 필요한 승용차와 버스, 그리고 자전거 (Poster in city of Muenster Planning Office, Germany, August 2001)

환승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환승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홍콩의 경우 서로 다른 지하철 노선간의 환승이 동일 평면상에서 가능하고 지하철과 간선버스, 지선버스의 환승이 특정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환승에 따른 수고와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지하철 노선간의 환승이 매우 불편한 경우가 많아 환승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운행정보와 예상 도착시간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통행시간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은 저렴한 요금이라는 목표와 고급스런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봉급생활자들의 대중교통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이를 회사가 정부에 내는 세금에서 감면하는 형태로 보조하고 있다. 또한 정기권이나 교통카드 마일리지 제도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승용차 중심 사회인 미국도 고유가로 올해 1분기에 대중교통 수단이 26억 통행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천5백만 통행이 증가한 것이다(APTA :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대중교통 이용 증가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21]



박진영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 책임연구원
jypark@koti.re.kr

서울시, 2010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360km 만든다

자전거로 출퇴근, 쇼핑까지

서울은 내사산(內四山)과 외사산(外四山)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지형이 고르지 못하다. 도시계획에 의한 시가지가 아니라 자연발생한 고도(古都)로서 그동안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에 역점을 둔 자동차 중심의 정책이 유지됐다. 도시 곳곳에 터널, 교량, 고가도로 등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고려하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쉽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 10여 년간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해 자전거 도로 715km, 자전거 보관대 약 2천5백 개소(7만5천대)를 설치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설확충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이 여전히 레저·여가 수단에 그치고 실생활 속에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비율이 약 0.9%(2005년 통계청 조사)로 저조하다. 이는 자전거 정책을 소외시킨 일면과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서울시는 자전거 시설공급에 치중했던 자전거 정책으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자전거를 출퇴근이나 근거리 교통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과 같이 자전거 이용의 잠재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출퇴근, 쇼핑, 통학 및 생활 등 기능별로 생활권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활권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시기부터 미리 자전거 이용습관을 들이고 자전거 이용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2006년 10월부터 중·고교를 대상으로 '자전거통학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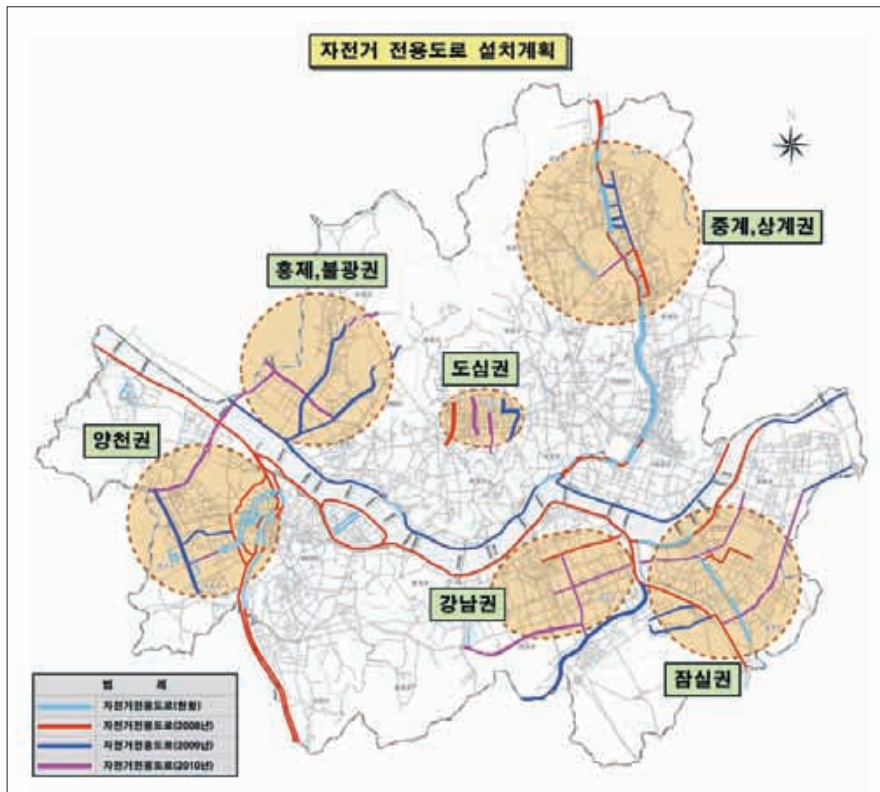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로 출근하는 직장인

하고 앞으로는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학생들이 통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대 등 서울 시내 19개 대학을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해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와 초등학생에게는 자전거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면허증 발급과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서 자전거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시민패트를 제도'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400여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시책에

반영됐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의 자전거 통학생을 자전거 학생패트를 대원으로 위촉해 3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고장난 자전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전담 처리했던 방치자전거를 서울시, 자치구, 처리업체가 각각 업무를 분담해 처리하는 '방치자전거 광역단위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다양한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5월에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의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보



도 및 하천 정비공사와 병행해 보도와 둔치에 설치함으로써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겸용도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겸용도로에 불법주정차와 물건적치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겸용도로는 자전거 도로와 보도,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로 분리하고 차도 상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의 도로망(Network)을 한강과 한

강지천, 자전거 생활권역(중계·상계권, 잠실권, 양천권, 홍제·불광권), 도심권 및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360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2010년까지 구축하고, 자전거 도로 광역화를 위해 단절된 구리시(1.64km) 및 하남시(4.18km)와 자전거 도로 연결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령정비를 병행추진하고 있다. 자전거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현재 통행순위를 후순위에서 긴급자동차 다음의 2순위,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자전거손해배상보장법'(가칭) 제정, 방치 자전거 처리기간 단축(54일 이상→24일 이상) 및 매각 외 재활용 허용,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 자전거 타기의 장점은?

- ① **자립심을 길러준다** 자전거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교통수단이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시내버스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승용차를 얻어 타기 위해 가족의 누군가에게 얹매일 필요도 없다.
- ②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자전거는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생각보다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비만과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하체운동을 통해 근력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다리회전에 따라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유연성도 좋아지게 된다.
- ③ **도심지 내 빠른 교통수단** 자전거는 도시 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매우 적합하다.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전거는 도시의 5km 이내에서는 어떤 다른 교통수단보다도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 ④ **깨끗한 교통수단** 자전거는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으며, 대기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쓰레기 발생량도 극히 적지만 대부분 부품을 교환 또는 재활용할 수 있어 쓰레기 관리 면에서 효율적이다.
- ⑤ **공간의 효율적 사용** 자전거는 통행하는 데 있어 승용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면적을 차지한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승용차가 통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면적은 18㎡인데 자전거는 그 8분의 1인 2.2㎡이면 충분하다.
- ⑥ **안전하다** 자전거는 매우 안전한 교통수단에 속한다. 교통사고 원인자를 기준으로 할 때 자전거를 10이라고 하면 시내버스는 자전거의 5배, 승용차는 자전거의 58배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 ⑦ **경제적 교통수단** 자전거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도움이 된다. 초기 구입비용이 10~20만 원으로 저렴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부과했던 벌점의 폐지, 자전거 신호등 기준 마련, 자전거 등록을 위한 자전거 차대번호 표준화 및 전국 전산망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 제·개정 중에 있다. [1]



김길남
서울시 녹색교통팀장
kkn@seoul.go.kr

만약에 석유가 없다면?

쿠바와 북한은 석유 없는 세상을 이미 겪어

만약 우리에게 석유가 없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생각해 보았는가.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꼭 한 번 생각해 보자. 이삼십 대 젊은이라면 더욱 필요한 상상이다. 앞으로 결혼해서 태어날 아들딸들은 거의 틀림없이 석유가 귀하거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침실에서 삼푸에 이르기까지, 방바닥재에서 단열재까지, 옷가지와 옷의 색깔까지, 핸드폰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에서 일상생활용품까지, 화장품에서 의약품까지, 자가용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우리의 식주 일상생활 구석구석 석유가 들어가지 않은 물건이 거의 없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 90%도 석유다. 씨앗에서부터 논밭갈기, 비료, 농약, 수확, 탈곡, 포장, 보관, 운송 등 식량 생산에 들어가는 석유를 전부 계산하면 먹을거리의 90%가 석유다.

한마디로 석유는 자연이 준 기적이다. 인류는 이 기적을 이용해서 20세기 후반부터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풍요로운 자본주의 산업문명을 건설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수준도 곰곰 따져 보면 역대 어느 황제보다도 호화로워졌다. 네로 황제가 겨울에 수박을 먹을 수는 없었으며 세종대왕도 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가마를 타고 출퇴근할 수는 없었다.

한국도 지난 몇 십 년 동안 이른바 압축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런 산업문명의 호사를 누리는데 열매에 끼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차상위 빈곤계층의 한 달 수입은 북한과 동남아 노동자들의 2~3년치 연봉과 같다.

물론 자연은 이 기적을 서력 기원후 20세



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정부·시민단체·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국민행동' 발대식이 열렸다. 참여인사들이 한반도 모형의 수조에 석유를 채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 후반에서부터 21세기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에게만 사용하라고 특별히 무슨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인류는 마치 특권이라도 얻은 양 석유를 마음껏, 솔직히 말하면 미친 듯이 퍼다 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는 미래세대의 저금통장을 약탈해서 마구잡이로 잔치를 벌이는 파렴치한 강도짓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거의 극한에 다다른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풍요는 조만간, 영원히, 다시는 누릴 수 없는 전혀 지속불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석유가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뿐만이 아니다. 모든 천연자원이 다 급속히 고갈되어 가고 있다.

석유 없는 세상을 이미 겪은 두 나라가 있

다. 쿠바와 북한이다. 1990년대 초 구소련이 붕괴되자 구소련으로부터 공짜에 가깝게 석유를 공급받고 있던 북한과 쿠바는 갑자기 석유 없는 세상으로 내팽개쳐져 버렸다.

북한은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남한보다도 훨씬 더 잘사는 공업사회였다. 1950년대 남한이 보릿고개로 대표되는 기아와 극심한 빈곤에서 허덕였다면 북한은 남한에 1대도 없던 트랙터를 3천 대나 보유하면서 석유농업의 풍요를 구가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석유가 끊어지자 공장이 멈춰서는 것은 물론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북한인민들이 굶어죽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 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쿠바는 석유 공급이 끊기자 북한과 달리 몇 년의 혼란과 모색 뒤에 석유가 투입되지 않는 유기농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적어도 굶어죽는 사람은 없는 사회로 전환을 했다.

북한의 경험은 우리하고는 아득히 먼 남의 얘기가 결코 아니다. 북한이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 수도 있다. 석유 없는 세상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말이다. 지금 당장 자동차와 이혼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자. 그것이 당신의 아들딸, 손자손녀에게 만에 하나라도 북한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다. 



박승욱

'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 저자
재생에너지 시민기업 시민발전 대표
gileseo@ournature.org

산은·기은은 민영화, 주공·토공은 통합

현재 공공기관 예산 338조 원, GDP 대비 35% 수준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활기찬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능동적 개방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의 추진이 긴요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공공부문 개혁이 지속되지 못해 '02~'07년간 공공기관 45개가 신설됐고, 인력 38%, 예산 43%가 늘었다.

공공기관은 기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은 시장성이 높은 기관으로 한전 등 24개, 준정부기관은 정부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기관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77개,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기업 자회사 등 204개가 있다. 공공기관 종사인력은 25만9천 명('07말)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1%, 예산은 338조 원('08)으로 GDP 대비 35%수준으로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관 특성 고려한 선진화 방안, 투명한 절차

그동안 공공기관은 전기·가스·물·교통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영역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경쟁이 부족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가 어려워 국민들로부터 '방만 경영',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인건비 증가율, 사내 복지근로자 임금 과다 출연 등 방만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고, 민간

역량이 성숙한 상황에서도 기존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또 같은 산업에 비슷한 지원기관이 중복해 기관 간 갈등요인과 비효율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선진화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원칙하에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대해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한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하고 금융 등 민간역할이 성숙한 분야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조정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진화 방향으로 나간다.

둘째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기관에 적합한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여건이 형성됐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는 민영화하고 업무가 상호유사·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기관은 기능 재조정을 추진한다.

셋째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선진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을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넷째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보완대책을 병행한다.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요금 인상 우려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민영화 대상기관은 일정기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민영화한다. 통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우선 자연감소분을 활용하고 희망퇴직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공기업 선진화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영화대상 공기업은 민영화시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하고,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해당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보완대책은 지자체 및 해당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력 집중, 외국자본의 지배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매수자 조건을 제한하지는 않되, 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참여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효율 제거하고 경쟁력 높여

정부는 지난달 11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41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

27개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자회사 2개 포함)과 기업은행(자회사 3개 포함)은 민간 금융이 발달한 추세를 감안해 민영화하고,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적자금 지원 등으로 공공부문에 편입된 14개 구조조정 기관은 민영화하되 추진시기와 방법 등은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민간과 결합하는 공기업 자회사 5개도 민영화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국제적인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15%)를 포함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49% 이내 범위에서 지분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공·토공은 일원화된 주택·택지관리 체계 개편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목표로 택지개발기능 중복 문제, 분양주택 부문의 민간과 결합 등을 고려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개발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고유 목적인 관광진흥기능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할 계획이다.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는 대형화를 통해 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센터 3개를 매각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징수기능은 건강보험공



지난달 11일,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이 국회 공기업 대책 특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앞은 이)과 보고할 내용을 의논하고 있다.

단으로 일원화해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지원기능은 해외지원은 KOTRA, 국내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각각 일원화할 계획이다.

1차로 발표된 기관들은 앞으로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공

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최소 10% 향상을 목표로 조직·인력·예산 관리 등 올해 안에 경영효율화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지속적·상시적으로 추진해 공공부문 경쟁력을 확보해갈 것이다. [국회]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88ychang@naver.com

5년 후 7대 과학기술강국으로

신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20세기가 노동력과 자본을 주축으로 한 산업경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역량과 인적 자원이 국가발전을 결정하는 기술혁신의 시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2006년 기준 총연구개발투자규모는 286.2억 달러로 세계 7위이며 GDP 대비 3.23%로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1/12, 일본의 1/5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기술역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도입)는 2006년 기준 0.4로 미국의 2.2('04), 일본의 3.1('0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국내외 경제·사회환경을 분석·예측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이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적 과학기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종합계획이다. 향후 5년간 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총망라된 이번 기본계획은 신정부의 국정철학, 국정과제 실현, 국가 R&D 투자전략의 추진과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정립을 원칙으로 하였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77 전략이다. 자원 투입 측면에서 국가 총연구개발투자(정부+민간)를 2012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확보된 재원을 7대 기술분야(R&D)에 집중하고 7대 과학기술 시스템을 선진화해 5년 후

7대 과학기술강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2012년 국가 총연구개발투자, GDP 대비 5% 달성 추진

정부는 2006년 기준 GDP 대비 3.23%였던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 5%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 정부는 연구개발투자를 2008년 10.8조원에서 2012년 16조2천억 원으로 5년간('08~'12) 1.5배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민간 R&D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는 조세지원, 연구소설립 규제완화 등 민간부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정부는 5년간 집중 투자할 7대 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이는 50개 중점육성기술과 40개 후보기술로 구성되었다. 7대 기술분야

중점육성으로 5년 뒤에는 융합기술지원을 통해 바이오 칩·센서기술의 세계최고기술 확보, 로봇을 이용한 생활의 편의 증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7대 시스템 선진화

국가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7대 주요 시스템 선진화도 아울러 추진한다.

① 과학기술인력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을 추진한다. 2007년 초·중·고등학교의 0.59% 수준인 영재교육 대상을 2012년까지 학년별 1%까지 확대하고 과학영재학교를 2007년 1개에서 2012년 4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과학영재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세계수

<표> 7대 중점투자 분야

1. 주력기간산업 기술(Cash Cow) : 주력기간산업 고도화

(예) 자동차, 조선, 기계·제조공정, 반도체 등

2. 신산업 창출(Green Ocean) : IT 기반 신산업, 신약·보건의료 분야 성장동력 확보

(예) 차세대시스템 S/W, 암 진단·치료, 뇌과학 등

3. 지식기반서비스(Knowledge Based S&T) : S/W, 문화기술(CT), 디자인산업 R&D 투자 확대

(예) 융합형 콘텐츠, 첨단물류, 통신방송융합기술 등

4. 국가주도기술(Big Science) : 우주, 국방, 원자력 등 개발 강화

(예) 위성체 개발, 차세대 무기, 차세대원자로 기술 등

5. 현안관련 특정분야(Rick Science) :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질병, 부품소재 등 현안해결

(예) 식품안전성 평가, IT 노소자 기술 등

6. 글로벌 이슈대응(Mega Trend Science) : 고유가, 자원, 식량 등 세계적 이슈 대응 강화

(예)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예측·적응 등

7. 기초·기반·융합기술(National Platform Technology)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예) 바이오칩·센서, 지능형 로봇,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기술 등

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2008년 1,650억원)은 통해 해외우수 과학기술인재의 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②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원천연구를 진흥한다. 기초원천연구투자비율을 2008년 25.6%에서 2012년 50%로 대폭 확대하고 이공계 교수의 기초연구비수혜율도 2006년 25.7% 2012년 6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강화 일환으로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기초원천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지원 사업도 기존 13개 사업을 연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5개 사업으로 재편한다.

③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 창업규제 완화 및 창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민간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기술평가 위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그림〉 과학기술 기본계획(577전략)

국가비전	선진일류 국가(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투입	5%투자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 GDP 대비 5% 달성	
과정	7대 분야	R&D	시스템
		① 주력기간산업 ② 신산업 창출 ③ 지식기반서비스 ④ 국가주도기술 ⑤ 현안관련 분야 ⑥ 글로벌 이슈대응 ⑦ 기초·기반·융합	①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② 기초원천연구 진흥 ③ 중소·벤처 기술혁신 ④ 과학기술 국제화 ⑤ 지역 기술혁신 ⑥ 과학기술 하부구조 ⑦ 과학기술문화
성과	7대 강국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④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R&D국제협력의 조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R&D국제협력 협의체 신설 등을 추진한다.

⑤ 지역발전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 지역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R&D특구 등 지역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우수지방대학 연구집단을 육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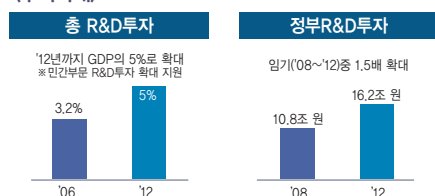
⑥ 연구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를 추진한다.

⑦ 국민이 과학을 재미있게 즐기도록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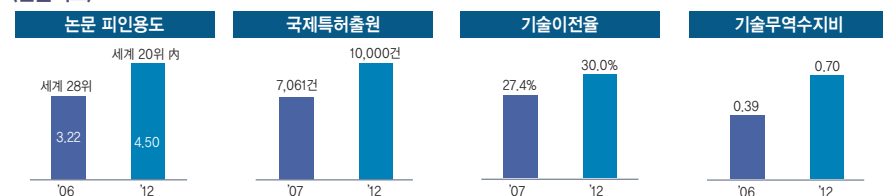
게 과학기술을 접하도록 생활과학교실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오는 11월 국립과천과학관 개관을 계기로 2012년까지 전국의 과학관을 120개로 확충하여 이를 지역 과학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간다.

우리가 선진국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통해 5년 후 7대 과학기술강국 진입을 실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과학기술투자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선진일류 국가의 비전을 현실화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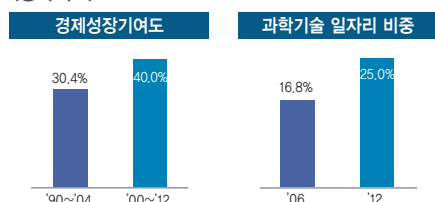
〈투자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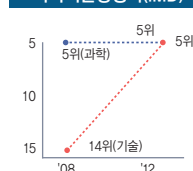
〈산출지표〉



〈성과지표〉



과학기술경쟁력(IMD)



문해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장
hjmoon@mest.go.kr

현대판 노아방주 ‘국제종자보존소’ 만든다

「농업유전자원법」 제정 BT 산업 허브국가로

농업유전자원이란 산과 들에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동·식물 및 미생물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인류는 이 자원으로부터 입고 먹고 마시기 위한 모든 것을 얻고 있다. 지구역사 45억년의 진화산물인 유전자원은 오늘날 신식품개발, 신물질 탐색 및 바이오신약 개발 등의 기초재료로서 국가 식량안보의 기초이자 우리나라 농업생명공학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원은 한번 소실되면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유전자원의 확보에 주력해 품종을 개발하고 지식재산권을 강화해 왔다. 자원보유국들은 '93년도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국제조약을 통해 자국의 자원주권 및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업이 국가경제 기반인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농업유전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유전자원의 수집, 평가 및 보존 등의 관리가 개별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해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비용 중복 등 유전자원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해 관련 정보의 습득·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유용한 재래종 유전자원이 무단으로 미국·일본 등으로 밀반출 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하고도

처벌규정이 없어 강력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농업유전자원을 국가자산으로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로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농업유전자원 현황을 조사·수집해 목록을 작성토록 했다. 목록상의 농업유전자원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농업유전자원 보존목록'에 등재토록 해 농업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농업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

둘째 보유 농업유전자원의 형태적·유전적 특성을 분석·평가해 데이터베이스(DB)화했다. 시험·연구자들이 필요한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유전자원의 활용범위 확대를 꾀했다.

셋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는 경우나 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기 위한 방침으로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원의 등급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반출승

인을 받거나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넷째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명공학 기본소재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재래종 유전자원을 조사·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재래종 유전자원 보존농가 보존, 특성평가 등의 시책도 마련했다.

다섯째 농업유전자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이 설치된다.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4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를 '국제종자보존소'로 인증했다.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저장고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기관을 국제종자보존소로 지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개도국의 종자를 보존하게 될 경우 이를 기탁국과 공동으로 활용해 농업생명과학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종자수출시장 개척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농업유전자원법률이 안으로는 우리 유전자원의 효과적 보존·관리를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밖으로는 BT(Bio Technology, 생명공학) 산업의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



이광하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기술서기관
kwangha@miltaff.go.kr

금융소외자도 은행대출 가능해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그 금융소외자란 낮은 신용등급 또는 채
□ 무불이행 상태로 인해 제도권 금융
회사들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뜻한다. 올해 5월 말 현재 금융소
외자는 신용등급 7등급~10등급에 해당하
는 720만 명과 사금융만을 이용하는 57만
명 등을 포함해 약 780만 명 이상으로 추정
된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이 늘어나고 금융수
요가 증가했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
융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금융소외 계
층이 확대됐다. 이는 대부시장의 과도한 성
장을 야기했고 고금리 또는 불법추심 피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
외자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우선
국민연금 납부액의 50%를 대여받아 조정
된 채무를 상환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
용회복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신용
회복위원회 등에서 추진하는 신용회복 프
로그램을 2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한 30만7
천여 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 중'이라는
특수기록 정보를 삭제해 이들의 신용등급
을 상승시키고 취업이 용이하도록 했다. 아
울러 지난 7월 24일 발표된 '금융소외자 지
원 종합대책'을 마련, 금융소외자들에게 맞
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활방안
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신용회복기금'을 설치
해 채무 재조정 및 환승 지원 사업을 실시하

게 된다. '채무 재조정'이란 금융채무 불이
행자들의 부실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
해 채무자들로 하여금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승 지원' 이
란 30% 이상의 고금리 채무자가 신용회복
기금의 보증을 통해 제도권의 저금리 대출
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기
금의 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 약 7천억
원을 금융회사로부터 기부 또는 출연 받아
조달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금융소외를 겪지 않도록

과거에도 부실 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 재
조정 사업(한마음, 희망모아등)이 시행되긴
했지만 대부업체의 부실 채권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대부업체 연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들도 채무 재조
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
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1
천만 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1천만 원 초
과 3천만 원 이하 채무자로 그 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우선 기존 채무가 객
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또한 현재의 재산
상황으로 채무의 상환이 곤란함이 명백해야
하며 성실한 자활 및 상환의지가 있어야 한
다. 이 기금을 통해 약 72만 명의 금융소외
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

회복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
사가 담당한다.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저소득·금융소외자 지원제도
를 종합·연계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소외
자는 이 네트워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상담창구에서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각자
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신용회복 및 각종 자
활 제도에 대해 안내 받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 1단계로 우선 구축되는 '중
합 안내 시스템'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뿐
만 아니라 노동부, 복지부, 지자체, 중기청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금융소
외자의 복지수급 및 자활제도 수혜현황 등
을 종합 조회할 수 있는 '종합 조회 및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년 중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여러 법에서 각기 다
르게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행위를 체계화
하고 불법·부당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서
민들의 고통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금융소외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
센티브 부여방안과 휴면예금의 기부절차마
련방안 등이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소외자들이 신용회복 후에도 다시 금융소외를
겪지 않도록 신용관리 교육도 강화할 계획
이다. [E]



유영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서기관
youngjun@fsc.go.kr

장애인, 시설 밖으로 불러내자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발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수는 210만 명(2007년 12월 말 기준)이다. 1997년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개념의 변화,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려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의지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향상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와 급증하는 장애인구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개년계획과 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장애인등록 판정체계 도입

지난 8월 6일 확정된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은 실용정부의 능동적 복지 실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수립되었다.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장애인복지 선진화, 장애인 교육문화증진,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등 4개 분야에 총 58개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58개 정책과제 중에



지난 6월 20일, 현대홈쇼핑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초청해 방송 시스템을 체험하는 행사를 벌였다.

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 선진화이다. 장애 개념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정책과제다. 장애인등록 판정체계 및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선진화를 들 수 있다. 이 과제는 기존의 장애판정

시 의학적 기준에 의존하던 것을 의학적 기준 이외에 근로(직업)능력, 복지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장애등록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의 의지 확산 도모이다.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이념의 지

〈표 1〉 장애유형별 인구현황 (2007년 12월 기준)

(단위 : 천 명)

장애종별 (천명)	계	외부 신체기능장애						내부 기관장애					정신적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2,104	1,114	215	217	203	15	2	48	14	14	6	11	9	143	12	82

속적인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2007년 4월 도입된 활동보조서비스의 정착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시설 밖에서 살게 하고 지역공동체로 편입하게

만드는 일이다. 혼자사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활동보조인의 역량을 높여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소규모화, 이용시설 선택제 등 장애인생활시설 구조혁신 방안과 함께 장애인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생활시설, 지역사회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려 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을 지원해 탈시설화와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 증진 위해 성년후견서비스제도 도입

셋째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과제 적극 개발이다.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과제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계 개편, 요금감면 제도의 확대, 기초장애연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주

〈표 2〉 장애인정책 4대 목표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거보장 욕구 충족을 위해 농어촌 외에 전국 재가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지속적 확대로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공급주택의 장애인 지원제도를 개선해 장애인 주거서비스를 늘려 장애유형별 주택설계,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물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노력이다.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중심의 의무고용제도 개편이나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지원 등 장애인 고용확대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려 한다. 장애인 의무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구축과 통합교육 환경 구축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

별 교육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문화바우처사업 확대와 문화시설 내 편의시설 개선, 그리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장

아인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철도 및 전철 이동편의 시설 확충, 그리고 보행 환경 개선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또한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 및 지침 제정, IT 전문 교육 및 e-Biz 창업 교육 등 정보화를 활용한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탈시설화, 정상화, 자립생활, 장애인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있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각종 장애인 정책이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 차원에서 시행될 때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강만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
mgkang2507@hanmail.net

「내 인생의 영화·책」은 정부부처 공무원이 감명깊게 본 영화·책을 소개하는 난입니다.
한 편의 영화·책으로 삶의 빛과 꿈을 얻게 된 경험에 귀 기울여 주세요.

쉬운 대사에서 배우는 인생의 교훈

송능한 감독의 '넘버3'

국 제업무를 하는 사람의 직업병 때문일까? 평생을 따라다니는 영어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한국영화가 너무 좋다. 귀가 확 뚫리면서 미세한 감정표현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니 정겹기 그지없다. 거기에 인생의 교훈까지 얻을 수 있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으랴.

수많은 한국영화중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넘버3'다. '넘버3'는 전형적인 조폭영화다. 15년 경력의 삼류 갱패 태주(한석규분)는 위기에 처한 두목 도식(안석환 분)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중간 두목의 자리에 오른다. 이후 단순 무식한 재떨이(박상면 분)와 '넘버 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결국 조직에서 제거당할 위험에 처한 태주는 갱패생활에 회의를 느껴 자신이 속한 조직을 검찰에 신고하고 조직은 일망타진된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다. 하지만 주요 장면마다 나오는 대사가 일품이다. 현학적이지 않아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넘버3'라는 제목부터 흥미롭다. 주인공 태주는 남들이 '넘버 쓰리'라고 부를 때 자기는 '넘버 투'라며 으스스대다 버림을 받는다. 1등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재떨이로 흥한 자 재떨이로 망한다"는 명대사가 있다. 태주와 라이벌인 재떨이는 결국 자신이 많은 사람을 죽인 방법 그대로 재떨이에 맞아 죽는다. 성공한 것을 통해 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혹 무언가를 이뤘다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라경제는 더욱 그렇다. 변화하는 노력 없이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언제 2류, 3류 경제로 추락할지 모른다.

"호수에 떠있는 백조가 우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물 밑에서 두 다리를 엄청 움직인다." 주인공이 약간 푼수 끼가 있는 아내 현제(이미연 분)에게 하는 말이다. 노력 없이는 어떤 성과도 없다는 평범한 교훈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운 때문이라고 폄하하지는 않는지, 또는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과만 기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대목이다.

"죄가 무슨 죄가 있냐고, 죄를 지은 사람이 많지." 마동팔 검사(최민식 분)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주인공에게 하는 얘기다.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도 한 번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법도 하다.

이 밖에도 주옥 같은 명대사가 많지만 백마디 설명보다 직접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느껴보는 게 좋겠다. 조폭 영화인 만큼 육설과 비속어는 감수해야겠지만 철학책과 역사책이 어렵고 지겨웠다면 이 영화 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최근 이 영화를 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 일본 조폭과 한 판 벌일 때 우리 조폭이 하던 말이다.

"야, 똑바로 전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영화 '넘버3' 중 한 장면.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jyshin@most.go.kr



김서령 : 여수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조직위원장으로 어깨가 무겁겠다.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0년 상해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상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들었다. 상해가 2년 앞서 열리는데 우리가 그쪽 노하우를 전수받게 되는 건가?

장승우 : 상해는 이미 기본 계획, 도로 시설 등이 완료되었다. 여수와 상해 MOU 체결은 엑스포 준비기간과 전시 내용 등에서 서로 협력하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다. MOU 체결에 따라 양국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김서령 : 상해엑스포와 여수엑스포는 어떻게 다른가?

장승우 : 엑스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등록엑스포(Registered Exhibitions) 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엑스포(Recognized Exhibitions) 이다. 등록 엑스포는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며 주제가 광범위하다. 2010년 상해엑스포는 등록 엑스포이고, 여수엑스포는 인정엑스포다. 상해엑스포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생활', 여수엑스포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이 그 주제다. 상해는 6개월, 여수는 3개월 동안 진행된다. 93년 대전 엑스포도 인정엑스포였는데 여수는 모로코의 탕헤르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여 유치에 성공했다.



1948년 생
경기고, 서울대 상학과, 예일대 경영학 석사
1970 행시 7회
1977 청와대비서실 경제비서관
1996 제4대 통계청장
1996~1997 해양수산부 차관
2002~2003 기획예산처 장관
2003~2005 해양수산부 장관
2008 여수엑스포조직위원장

> 요즘 뭘 하십니까

장승우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여수엑스포조직위원장

대담 :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때 : 2008년 8월 14일 오후 2시

곳 : 조직위원장 집무실

“생산 유발 10조, 엑스포는 월드컵과 맞먹는 국가축제죠”

한 자체 축제지만 여수엑스포는 국가가 주관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세계적 축제다. 이를 국민들에게 잘 인식시켜 올림픽·월드컵과 같은 국가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김서령 :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가나?

장승우 : 박람회 부지 조성 SOC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로·공항·철도 등 인프라 시설확충에 7조 7천억 원, 부지 및 시설조성에 1조 7천억 원, 호텔·리조트 등 민간투자 2조 원 등 총 11조 4천억 원이 투입된다.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가 여수까지 연장되고, 국도 17호선이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된다. 또한 엑스포역까지 KTX가 개통되어 서울~여수간 소요시간을 5시간에서 3시간대로 줄여 여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여수는 아직 개발이 덜 된 천혜의 관광지라는 점이다. 때문에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SOC를 확충할 것이다.

김서령 : 2005년엔 일본 아이치엑스포가 열렸고, 2010년엔 상해엑스포가 열린다. 한·중·일 동북아 3국 모두가 세계 엑스포를 2~3년 간격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여수가 가장 마지막에 열리니 가장 훌륭해야 할 텐데 어떻게 차별화할 계획인가?

장승우 : 여수엑스포 주제가 해양인 만큼 이 주제를 더욱 발전·세분화시켜 상해엑스포와 차별화할 것이다. 엑스포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부족하다. 여기저기에서 엑스포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 ‘무슨 엑스포가 이리도 많을까’ 의문을 제기한다. 이천 도자기엑스포나 함평 나비엑스포는 지역축제다. 그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



2004년 4월 4일 당시 항만 노사정 대표들이
'항만평화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욱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최봉홍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서령: 여수 엑스포 추진 내용 중 미리 살짝 공개할 것은?

장승우: 아직은 조금 이르다.(웃음) 기다려 달라.

김서령: 해수부 장관시절 주력했던 일들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이 어떤 이득이 있길래 그렇게 애를 썼나? 그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인가?

장승우: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바다는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터다. 부산항·광양항 개발로 물류 기업이 대형화 되면 외국기업의 투자도 늘어나고, 세계물류 산업 발전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삼면이 바다다. 때문에 해안과 대륙을 연계·발전시키기에 알맞은 천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졌다. 물류는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대량의 일자리 창출, 항만 해운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당시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고 건설부 내 TF팀까지 만들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는 못했다. 기존의 중소 물류업체들이 기득권을 놓고 다투는 바람에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거다. 현 정부의 국토해양부가 새롭게 달라졌으니 기대를 해본다.

김서령: 그럼 동북아 물류 허브 계획은 중단됐단 말인가?

장승우: 중국의 항만이 워낙 큰 규모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내 항만의 개발 우선순위가 밀려났다. 후속조치도 늦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FTA 등으로 개방화 시대가 오면 기존 항만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될 때가 곧 올 것이다.

김서령: 장관 시절 남해안 일대 각종 어류를 싹쓸이하는 불법어업을 그야말로 싹쓸이했다던데?

장승우: 불법 어로 행위는 아무리 단속해도 근절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정부가 저인망 어선을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압수를 해도 되지만 어민들의 생계문제를 고려해 특별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한 저인망 어선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싹쓸이 어로 행위는 거의 사라졌다. 당시 김승규 법무장관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결했다. 부처간 화합으로 50년 골머리를 앓았던 숙원을 풀었던 좋은 선례다.

김서령: 기획원 시절 누구나 탐낸다는 노른자 세 자리(종합기획과장, 경제기획국장, 차관보)를 다 거쳤다. 운이 좋았던 건가? 실력이 빼어났던 건가?

장승우: (웃음) 운이 좋았다기보다 평소 경제 일반에 대해 폭넓은 공부를 해온 덕택이 아닐까. 77년 청와대 들어가서 경제 종합업무

김서령: 개최까지 남은 기간이 4년인데 SOC 확충 기간은 충분한가?

장승우: 2011년까지 모든 시설을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휴가철에 직원들이 쉬지도 못했다(웃음)

김서령: 여수 엑스포에 따른 기대 이익은?

장승우: 여수엑스포를 단순히 여수·전남권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경상남도·제주도 등 남해안 인접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모멘텀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남해안지역의 SOC가 대대적으로 확충되면 현재 추진 중인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남해안이 국민에게 보다 가까워지고 관광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의 진입도 기대해 볼 만하다. 국가 브랜드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예상하는 구체적 기대 효과는 생산유발 10조3백억 원, 부가가치 4조 120억 원 정도다.

김서령: 여수엔 자주 내려가나?

장승우: 열흘에 한 번 정도. 2010년에는 사무실이 모두 여수로 내려갈 계획이다.

김서령: 바다와 인연이 깊은 것 같다. 해수부장·차관직을 모두 거쳤는데 원래 바다에 관심이 많았나?

장승우: 바다에 대한 관심도 컸지만 인연도 독특했다. 92년 경제기획원 국장 시절, 미래 해양시대를 대비하고자 해양수산부 신설 계획을 내 손으로 추진했다. 당시 실현은 못했지만 나중 내가 만든 부처의 수장직을 맡게 됐으니 큰 인연이 아닌가.

를 수행했다. 그 덕분인지 기획국에서는 사무관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과장 업무를 맡았다.

김서령: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 등 굵직한 경제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던 당사자인데?

장승우: 기획국에 오래 있다 보니 금융실명제·토지공개념 등에 관여했다. 개발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토지공개념은 20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부문이어서 시행이 미루어졌다. 금융실명제 추진 당시에는 기획국장이어서 팀 일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전체적 틀이 잡히면 이를 검토하는 역할이나 했지. 최후 시행을 긴급명령으로 처리할 것인지 특별조치법으로 할 것인지, 실명제 후속 조치를 고민했고 어떻게 안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힘을 쏟았다.

김서령: 우리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가장 신났던 기억은? 혹은 힘들었던 일은?

장승우: 평소 덩덤하게 살아서 특별히 신났던 기억은 없다.(웃음)

김서령: 그럴 리가…

장승우: 1992년 2월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해 정원식 총리를 모시고 평양에 갔었다. 문화 충격으로 쇼크를 받을까봐 그랬는지 평양 방문 전 미리 심전도 검사까지 받고 준비가 대단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였지. 남북이 지금처럼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시기여서 평양 분위기와 그 때 만난 북한사람들의 인상이 잊혀지지 않는다.

김서령: 해수부 장관 시절 독도 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데?

장승우: 97년 해수부 차관 시절 어민 숙소, 경비길 등 독도 접안시설 준공을 했다. 몇 년 후 해수부 장관 때 다시 가보니 어민숙소가 황폐해져 있었다. 독도 접안시설에 대한 시설 확충은 충분히 찬성한다. 하지만 동도와 서도를 연결해 개발하자는 제안은 신중해야 한다. 독도의 암석이 단단하지 않다. 언제든 흘러내릴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은 안된다. 실제 공사 가능성과 독도의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김서령: 직접 나서서 이어도에 해양관측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독도에도 해양관측시설이 가능한가?

장승우: 조그만 바위에 불과했던 이어도에 관측기지를 만들었다.

지금 거기서 태풍진로 판단과 기상관측 및 주변 해양 조사를 하고 있다. 해수부 시절 큰일 중 하나였다. 독도에 관측기지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일들을 차분하게 진행해 독도에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꾸준히 관리해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

김서령: 상대를 설득하는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장관은 과연 표정이 맑고 온화하다. 조정의 달인이 된 비법이라도 있나?

장승우: 하하 달인은 무슨…. 기획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부처간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조정역할 또한 맡을 수밖에 없었다. 조정이란 한 쪽이 양보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안을 많이 만들어 양 극단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는 법도 있다. 조금씩 양보해 서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 타협도 양보도 쉬워지더라. 그런데 이런 중간 대안을 여럿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더라.(웃음)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신뢰도 구축되어야 한다.

김서령: 후배 공무원들에게 해 줄 조언이 있다면?

장승우: 기회는 항상 온다. 그러나 가만 있으면 이걸 잡을 수 없다.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업무가 많다 보니 자기계발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다. 하지만 자기계발을 위한 목표를 세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생활하라고 말하고 싶다. 암만 바빠도 그 일을 염두에 둔다면 한 걸음씩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김서령: 올해 환갑인데 이토록 유연한 방법을

물어도 될까?

장승우: 특별한 것은 없다.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꾸준히 한다. 산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금강산 세존봉이었다. 날씨 좋은 날 거기서 내려다보면 '금수강산'을 잊을 수 없다. 이제 여수에 내려가면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거다.

김서령: 좌우명이 남다를 것 같다.

장승우: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평소 부드러운 지킬 것은 지켜서 남에게 휩쓸리지 않는 거다. 國

육의전, 보부상도 회사?

1918년 ‘회사령’ 철폐 이후 조선인 소유회사 10%에서 40%로

기업과 회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통용되는 낱말들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 두 단어는 명확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경제학, 특히 일반균형이론에서 기업(企業, firm)이란 생산의 기본단위를 지칭한다. 어떤 농부가 혼자 농사를 짓건, 수만 명의 사람이 협력해서 반도체를 만들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개별 단위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모두 한 개의 기업으로 취급된다. 이에 비해 회사(會社)는 법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법인(法人) 가운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회사라고 정의한다. 결국 회사는 기업의 부분집합이며, 국가가 어떤 기업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해야만 회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한다.

전근대사회 혹은 초기근대국가들에서는 법인격의 부여가 허가사항이었고, 이러한 허가는 대개 독점권과 같은 특권과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영국 정부가 미대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한 회사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회사의 설립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모든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 나라 중 하나다. 18세기 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9세기 초까지도 회사, 즉 corporation의 설립을 위해서는 각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1850년경이 되면 대부분의 주에서 등록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미국 경제의 성장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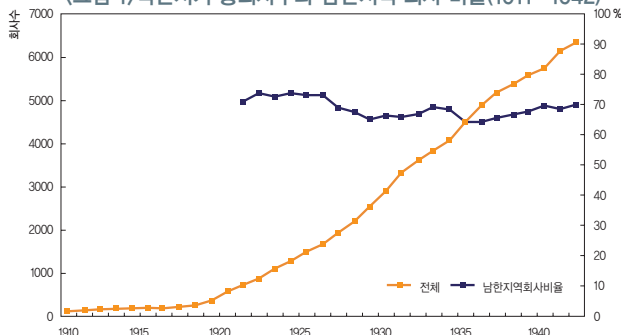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개항기 이전에 회사의 전신이라고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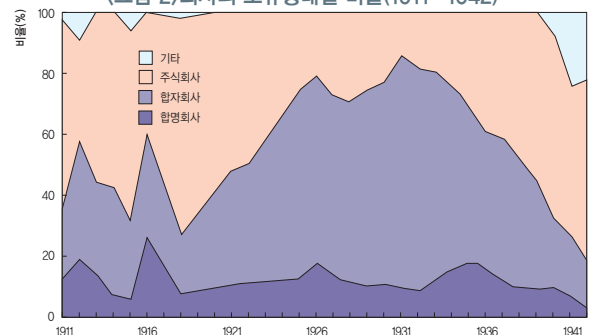
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육의전이나 보부상, 공인과 같은 상인 혹은 상인집단에게 정부가 어떤 물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을 부여하긴 했으나 이것이 과연 법인격 부여를 동반했는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corporation이 무엇인가라는, 서유럽 사회와 우리나라 혹은 동양 사회 간의 사회구조 차이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맞닿아 있는데 향후 심도 있는 비교사적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19세기 말 개항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서구의 회사제도가 소개되기 시작한다. 1883년 한성순보에 게재된 ‘회사설(會社說)’은 회사조직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최초의 문건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앞서 정의에 합당한 회사, 즉 회사법에 근거한 영리법인의 등장은 1910년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는 ‘사(社)’, ‘회(會)’, 또는 ‘회사(會社)’라는 명칭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개 정부가 직접 설립하거나 정부 관료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한 특권회사들이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들을

〈그림 1〉식민지기 총회사수와 남한지역 회사 비율(1911~1942)



〈그림 2〉회사의 소유형태별 비율(1911~1942)





1910년대 종각주변의 종로거리. 좌측에 상점가인 육의전, 우측에는 종각이 있다.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 회사의 등장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근대적 회사법에 근거했는지 여부라는 기준에서 보면 전사(前史)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회사법에 기반한 근대적 회사제도가 한반도에 출현하게 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고 1910년에 회사령(會社令)을 실시하게 되면서부터다. 1920년까지 지속된 회사령 자체는 하나의 특별법에 불과하지만 이 법은 일본의 회사법을 전제로 몇 가지 규제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회사법의 실시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 회사법은 오늘날 우리나라 회사법의 모체를 이루게 된다.

식민지 기간 동안 회사 수는 크게 늘어났다. 총독부가 회사령에 근거해서 회사 수를 통제하던 기간 동안에는 2백 개 남짓 수준에 머물렀지만, 1918년에 회사령이 사실상 철폐된 이후에는 회사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1942년에 이르러서는 6천3백여 개에 이르렀다(〈그림 1〉 참조). 관보 등의 자료에는 대주주들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민족별 소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조선인 소유 회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1910년대에는 조선인 회사의 비율이 10% 안팎이었지만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전체 회사 중 40%가 조선인들이 주축으로 설립된 회사로 나타난다. 물론 대규모

기업들은 일본인 기업 혹은 일본 본사 기업의 지사들이고 자본금 규모 면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지만, 조선인 회사들의 평균자본금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 기업들의 존재를 단순히 무시해버릴 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 회사들의 지리적 분포 역시 재미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식민지기 동안 전체 회사가운데 70%가 남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식민지기 동안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보다 더 근대화되었다는 기존의 이미지와 매우 다른 양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식민지기 경제의 이해를 위해서나 해방 후의 경제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회사제도는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오늘날 우리 경제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회사제도가 오늘날 기업 활동에 적절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법에는 회사 설립의 목적 등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회사의 90% 이상은 주식회사이며, 이러한 쏠림 현상은 1960~70년대에 이미 명확하게 나타난다. 과연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다양한 기업 활동을 잘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적절한 틀이 제공되지 못해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인지는 논란거리다.

재미있는 것은 식민지기에는 회사 형태가 훨씬 다양했다는 사실이다(〈그림 2〉 참조). 주식회사의 비율은 높을 때는 60%, 낮을 때는 20% 수준이며, 합자회사처럼 다른 형태의 회사들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 식민지기에는 소유 형태가 이렇게 다양했는지,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는 왜 주식회사가 지배적인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해 본다면 회사제도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회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제도사적 연구가 이뤄져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김두열 KDI 연구위원

duolkim@kdi.re.kr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제도와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부자 논리’ 극복해야 부동산 살아난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국면인가

정 부와한나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여권과 야권 사이에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죽어서는 시장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다”며 참여정부가 쏟아부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30종 이상의 규제를 펴부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후분양제도와 층수제한, 용적률 규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평형 의무 건설,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후분양제, 전매 제한 강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우선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50%)으로 동결하고 종부세 대상주택(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률의 상한선을 50%에서 25%로 낮추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또 1주택자와 고령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골프장 등 기업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예외로 하는 등 기업 소유 부동산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정기국회에 대비해 8월 말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이 많은 종부세의 과세기준 완화(6억→9억원), 주택양도시점까지의 세금납부유예(과세이연) 등은 일단 뒤로 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 특히 민주당은 올 들어 ‘버블 세븐’ 지역에서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비로소 안정국면을 찾

아가는 것으로 진단한다. 참여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억제책이 마침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 등 과중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세금 상승의 요인이 되는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현행 세제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수단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보다 큰 가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6억 원 이하 주택과 투기성이 없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적정화’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대안이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속셈은 종부세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에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훈·이종구 의원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그 증거라고 단언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면 전체 세대의 2%(38만 세대)밖에 안 되는 과세대상에서 60%가 빠져나가고, 인별 합산으로

바뀌면 종부세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총공세다. 2%를 위할 것인지, 98%를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고 요구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편가르기 공세에 여권은 몹시 곤혹스러운 것 같다. 새 정부 출범 때부터 ‘부자내각’ 비난에 시달린데다, 지지율마저 10%대에서 최근에는 20%대로 올라선 상황이니 그럴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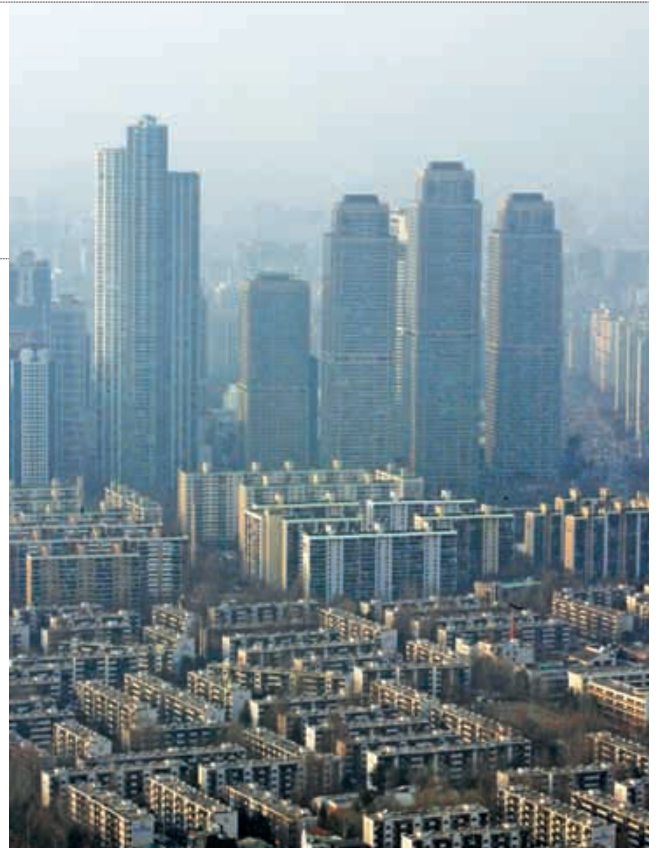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13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2005년 이전 대비 60% 이상 거래가 격감한 부동산 시장이 안정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까. 배 아픈 것을 고치겠다며 항생제를 쏟아붓고 위 축소수술까지 한 결과, 배 고파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시장 현주소다. 부자 2%의 돈을 빼앗아 동네 잔치를 되풀이하려다 보니 국민경제 전체가 망하고 있다.

하다. ‘세금 폭탄’ 공세를 앞세워 집권했던 기세를 감안하면 여권의 대응 모습은 웅색하기 짝이 없다. 수비에만 급급할 뿐 최소한의 철학도, 국정 비전도 엿보이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했던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전 대통령 정책실장)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빌어 중부세를 예찬했다. 프리드먼은 감세론의 최고 권위자임에도 “오래 전에 헨리 조지가 제안했던 투자 가치세가 이 세상의 세금 중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설파했다며 그런 정신을 이땅에서 실현한 것이 중부세라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세정(稅政)을 통한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을 바로잡으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1% 부자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또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정을 주택경기 부양으로 몰타기하려 한다고 꼬집는다.

과연 그럴까.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하며 100조 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한꺼번에 풀었기 때문이다. 국토균형 개발을 내세워 불난 집에 계속 기름을 끼얹었던 것이다. 또 2005년 가을에 들어서야 참여정부는 수요억제책에서 공급 확대정책으로 방향 선회했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폭탄으로 수요만 억누르다 보니 서울 강남에서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광풍이 버블 세브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던 것이다. 이것이 해방 이후 이어져온 4차 부동산 폭동의 시작이자 결과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13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주택이 쌓여가고 2005년 이전 대비 60% 이상 거래가 격감한 부동산 시장이 안정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집권 이후 부동산 세제개



버블세븐 지역 중 하나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편의 기대로 매물이 회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시 관망상태에 접어들었다는데 맞는 말일까. 현재의 관망세만 따진다면 맞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땐 틀렸다. 배아픈 것을 고치겠다며 항생제를 쏟아붓고 위 축소수술까지 한 결과, 배고파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현주소다. 부자 2%의 돈을 빼앗아 동네 잔치를 되풀이하려다 보니 국민경제 전체가 멍들고 있다. 자산 가격 하락은 먼저 서민과 중산층에 고통이 가해진다.

집을 팔고 이사가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움찔달작하지 못하는 지금의 세제는 정상이 아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값이 안정되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여권은 ‘소득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에 유리, 공제 축소는 서민 부담 가중, 중부세 완화는 땅부자에 특혜’라는 이념의 공세부터 극복해야 한다. 그 시금석이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여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라는 기본으로 눈을 돌린다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정치·경제·사회부 기자를 거쳐 현재는 논설위원으로 있다.

“우간다 대통령 될래요”

Harriet Akello 우간다 여성·노동·사회개발부 서기관

선진국의 문턱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3세계 개발국가들에게 여전히 경이와 경외의 대상이다. 가까운 베트남부터 아득히 먼 우간다 나 콩고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려는 열기는 뜨겁다. 거기 앞장선 이들이 그 나라 공무원이다. 「한국을 배운다」는 그들의 꿈과 노력을 들여보는 난이다.

우 간다는 UN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 50개국 중 하나다. 우간다 ‘여성·노동·사회개발부(Ministry of Gender, Labour & Social Development)’의 서기관 격(Senior Literacy Officer)인 Harriet Akello(33세) 씨는 우간다에 희망과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가 공부하고 있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의 임은미 교수는 “이 친구는 언젠가 우간다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차별하지만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를 만났다.

– 우간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가난과 차별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우간다의 문맹률은 50%가 넘는다. 이들에게 읽고 쓰고 셈하는 법을 가르친다.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참여하지 못한다. 지금 우간다에서는 소수의 인력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생산성을 더 높이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참여해 기여해야 한다.

아동의 경우 정부에서 3단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대상은 주로 시골지역과 빈곤층의 15세 이상 성인이다. 이들을 모아놓고 보면 90% 이상이 여성이다. 여성들에게 결혼과 육아만을 기대할 뿐 바깥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관습 때문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1990년부터 남녀차별 없이 모든 어린이를 의무교육에 참여토록 했다. 여성 해방을 위해 직업 분야에서도 차별철폐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골로 갈수록, 가난할수록 여성문맹률은 아직도 높다.

– 여성차별도 문제지만 아동착취, 소년병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다.

문제의 근원은 가난과 굶주림이다. 생활의 원천도 없고 소득도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사치다. 이 아이들은 배고픔을 참고 하루 열 시간이고 열다섯 시간이고 일해 살림에 보탠다.

계속되는 가난과 실업으로 인한 고통은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이들 중 일부가 반란군(rebel group)을 조직해 정부에 저항한다. 이들은 이웃마을에 쳐들어가 재산, 가축, 음식, 여성들을 강탈하고 어린이들을 납치한다. 반란군의 규모를 늘려 정부를 위협하기 위해 어린이를 훈련시켜 군사로 만든다. 이런 아동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보호 테두리를 벗어나 흡연과 마약, 폭력에 노출된다.

–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여성과 어린이가 바로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보호대상인데.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 주려 노력한다. 정부가 경제 발전과 지역 균형 개발, 국가 보안, 보건 위생,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국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권력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과 평화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갈등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없다. 그 통로가 없어지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반군세력이 될 수 있다.

국제단체와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정부와 국제단체는 이들 반군 주도자들에 체포령을 내렸다. 대부분 휴전협정(cease-fire agreement)에 서명했고 일부는 체포됐다. 그 후 3년간은 내전이 다소 완화됐다. 반군 활동은 북부지역에만 한정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안전한 편이다.

–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우간다의 경제개발 사업은 한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는 차관과 증여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는데, 나는 증여의 일환으로 한국에 와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

여성과 개발에 대해 공부한다. 이화여대는 특히 여성문제에 전문성이 있어 내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기도 한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지도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이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위

해 고군분투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 정신이다. 또한 1960년대의 새마을 운동이 인상적이다. 우간다는 수도인 캄팔라 지역만 삶의 질과 환경이 우수할 뿐 이외의 지역은 낙후돼 지역차가 크게 난다. 이런 지역에 병원·학교 등의 시설을 마련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정부의 과제인 만큼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서 배울 것이 많다.

- 우간다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가?

인기가 높다. '한국' 하면 일단 태권도다. 우간다의 군대, 경찰, 교도관, 사설 경호원들은 모두 태권도를 훈련하게 돼 있다. 최근에는 '예쁜 여자'들이 호신술로서 태권도를 배우기도 한다. 또 우간다에는 비옥하지만 놓고 있는 땅이 많은데 한국의 영농기술이 도입돼 쌀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 꿈은? 정말 대통령에 도전할 건가?

Why not!(웃음) 내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번 석사학위를 마치면 박사학위에 도전하고 싶다. 가난한 나라의 저임금 공무원이기 때문에(웃음) 막대한 학자금이 고민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포기하면 내 자신에게 부끄럽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성인교육과 지역개발, 또는 여성개발에 대해 공부해 우간다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내 꿈이다.

- 지난 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간다 투자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간다의 공직자로서 우간다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우간다의 미래, 밝다고 자신한다. 우간다



에는 아직도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분야가 많다. 우간다는 지력이 뛰어나고 기후가 적합해 어떤 작물을 재배해도 생산성이 높다. 그땅들이 놓고 있다. 한국 사람들 고구마 좋아하지 않나? 시장에 가보면 물량이 적더라. 우간다에서는 땅마다 고구마가 널려있어 밭에 채일 정도다(웃음). 농약이나 비료도 필요 없다. 그냥 자란다. 에너지 분야도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간다는 수요에 비해 전력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수많은 자연폭포를 이용한 전력 생산 잠재력이 있지만 자금이 없어 못하고 있다. 또한 동아프리카 최대 호

수인 빅토리아호를 이용해 수산·어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우간다는 잠재된 거대한 시장이다. 지금 우간다의 실업률은 30%가 넘는다. 우간다에 와서 저렴한 노동력을 고용하라. 그러면 이들에게 소득이 생기고 구매력이 생긴다. 이들이 다시 시장에서 물건을 살 것이다.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시장은 살아날 것이다. 선순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 당신들의 투자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어느 곳보다도 완벽한 자유 시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떡’ 이야기

신랑신부가 찰떡처럼 붙어서 백년해로 하라는 ‘인절미’,
고집불통 시어머니도 살살 녹였다는 병어리 찰떡,
단아한 한 폭의 그림 같은 ‘각색편’.
이름만 들어도 절로 군침이 돌는다.
우리 떡의 유래, 종류, 시장 규모, 떡을 만드는 장인 등
떡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리왕, 떡에 난 잇자국으로 왕위에 오르다

부족국가 때부터 인절미 · 절편 즐겨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떡을 먹었을까? 삼국 이전 부족국가 시대부터인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한다. 떡의 주재료인 곡류가 이미 생산되고 있었고 갈판과 갈돌, 시루가 유물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 신석기 유적지에서는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드는 데 쓰이는 갈돌이, 경기도 북변리와 동창리 무문토기시대 유적지에서는 갈돌 이전 단계인 돌확이 발견됐다.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 시루에 찐 음식이라면 '시루떡'이므로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루떡 및 시루에 찐 떡을 쳐서 만드는 인절미, 절편 등도 병류(찜어 만든 떡)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 이 떡들은 무천 · 영고 · 동맹과 같은 제천의식에 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유리왕 탈해가 왕위를 다투는 장면이 나온다. 왕위 결정 방법은 간단했다. 두 사람이 떡을 깨물어 떡에 난 잇자국이 많은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다. 이 시험에서 이가 많았던 유리가 신라 3대왕 '유리 이사금'이 되었다. 이사금은 차리(齒理)라는 뜻으로 이가 많은 사람, 즉 연장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 기록은 떡에 관한 우리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유리와 탈해가 문 떡은 찰떡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고분에서는 어김없이 시루가 출토되어 떡이 일반화되었음을 알려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육식을 멀리하고 차를 즐기면서 다과와 떡도 발달했다. 중국 '거가필용'이란 책에 '고려 울고'라는 떡이 나오는데 울고란 밤가루와 찹쌀가루를 섞어 시루에 찐 일종의 밤설기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상사일(上巳日)에 청애병(靑艾餅)을 해 먹는다"고 적었다. 청애병은 "어린 숙 잎을 쌀가루에 섞어 찌서 만든다"고 했으니 쑥설기다. 몽고와 잦은 교류도 고려 음식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줬다. 특히 밀가루에 술을 넣고 부풀려 소를 넣고 찐 증편류인 상화(霜花)가 몽고에서 들어왔는데 증편의 원조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농업기술과 조리가공법의 발달로 떡의 종류와 맛도 한층 다양해졌고 궁중과 반가를 중심으로 더욱 사치스럽게 발전했다. 각종 의례와 잔치, 무의(巫儀)에도 떡은 빠지지 않았다. 설기떡류로는 백설기, 밤설기, 쑥설기, 감설기 외에도 석탄병(惜呑餅), 잡과점설기, 잡과꿀설기, 도행병(桃杏餅), 감자병, 유고, 기단가오 등이 있다. 기단가오는 메조가루에 삶은 대추, 콩, 팥을 섞어 무리로 찐 떡(규합총서, 1815년)으로 차진 메조가 생산되는 북쪽 지방의 향토떡이다. 유고는 쌀가루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섞은 다음 잣과 대추를 잘게 썰어 고명으로 얹어 시루에 찐 것으로(역주방문, 1800년대 중반) 오늘날의 백편과 비슷하다.

시루떡도 팔시루떡, 콩시루떡 외에 무시루떡, 꿀찰편, 청애시루떡, 녹두편, 거피팔녹두편, 호박편 등이 있다. 두텁떡은 찹쌀가루를 찌서 유자청 등의 소를 박고 볶은 팔가루고물을 얹어 찐 것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최고의 떡이다.

인절미는 찹쌀을 찌서 치는 단순한 형태에서 점차 쑥, 대추, 당귀잎을 넣어 색다른 맛을 냈다. 절편은 쑥, 수리취, 송기 등을 첨가하고 떡살로 무늬를 박아 모양과 색을 아름답게 했다. '음식디미방(1670년경)'에는 '전화법'이라 하여 두견화(진달래), 장미꽃, 출단화를 찹가루에 섞어 지져내는 떡이 소개되어 있다. 빈자떡은 "녹두를 누 없이 거피하여 되직하게 갈아 번죽에 기름을 부어 끓으면 조금씩 떠 놓아 거피한 팔을 꿀에 말아 소로 넣고, 그 위에 녹두 간 것을 덮어 빛이 유자빛 같이 되게 지져야 한다."고 해 현재 빈대떡과 달리 본래 떡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이후 떡은 서양에서 들어온 빵에 의해 점차 식단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최근 '떡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떡집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쌀가루 등을 찰 때 쓰는 한국 고유 의 찢기인 떡시루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혼례 때는 신부 집에서 찹쌀에 붉은 팔고물을 얹고 그 위에 대추와 밤을 얹어 찐 봉치떡을 준비한다.

떡, 소망과 감사를 담은 상징

혼례 · 빈례 · 제례에 필수품



떡은 곡식을 가루 내어 물과 반죽해 찌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른다. 떡은 열량 공급을 위한 주요 음식일 뿐 아니라 농사의 풍요를 빌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천제 행위를 할 때의 기본 음식이다. 농경문화의 정착과 그 역사를 함께 한 우리 전통 음식 중의 하나다.

혼례 · 빈례 · 제례 등 각종 행사와 대 · 소연회에 필수로 자리 잡은 떡은 궁중과 반가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했다. 조선시대 음식관련 조리서에 등장하는 떡의 종류만 해도 무려 198가지고, 떡에 사용된 재료도 95가지나 됐다.

이처럼 떡은 단순히 즐기는 음식에 그치지 않는다. 떡은 감사와 축복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떡을 만들었다. 좋은 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떡은 반드시 이웃과 나누었다. 이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떡에는 조상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담겨 있다. 어린 아기의 백일이나 생일에는 백설기 · 수수팔경단 등을 만들어 먹였다. 깨끗한 백설기에는 아기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붉은 수수팔경단에는 나쁜 병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망을 담았다. 책례 때는 깨나 팥 · 콩 등으로 소를 꽂 채운 송편을 만들어 돌리는데 송편처럼 학문도 짝 치라는 의미가 포

함되어 있다.

혼례 때에는 신랑과 신부 집에서 찹쌀에 붉은 팔고물을 얹고 그 위에 대추와 밤을 얹어 찐 봉치떡을 준비한다. 찹쌀은 부부가 찹떡궁합으로 잘살라는 뜻에서 2켜로 엮는다. 대추는 아들을 많이 낳고 자손이 번성하라는 의미를, 밤은 풍요롭게 살라는 의미를 갖는다. 봉치떡은 칼로 잘라서도, 떡이 담장 밖을 넘어서도 안 된다. 그 날 모인 사람이 다 돌려서 먹어야 했다.

이토록 우리의 조상들은 건강하고 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떡을 만들어 먹었다. 그런데 외국식품의 유입과 식생활의 변화로 그 종류도 많이 줄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옛 맛을 잃어가고 있다. 케이크 · 도넛 · 빵 등이 떡을 대신한 지 이미 오래다. 떡에 깃든 의미와 소망이 케이크 · 빵으로 대체될 순 없다. 이제라도 떡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연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떡에 깃든 우리네 정취가 퇴색되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되길 바란다. 



윤숙자 한국전통음식연구소장
전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tradcook@paran.com

떡의 변신은 무죄

‘떡보의 하루’ 쌀와플 · 떡샌드위치 젊은 입맛 사로잡아

떡과 케이크 나란히 놓여있다면 어디에 먼저 손이 갈까? 부드럽고 달콤한 케이크에 먼저 손이 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화려한 변신으로 돌아온 떡이 케이크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양한 모양, 화려한 색상, 맛과 영양의 다각화를 추구하면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다.

전국 16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떡 전문 프랜차이즈 ‘떡보의 하루’가 지난 7월, 신촌에 처음으로 떡카페를 오픈했다. 방앗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떡카페는 다양한 종류의 떡은 물론 커피, 음료 등을 여유 있게 마시며 즐기는 공간이다. 까다로운 손님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 순수 국내산 쌀을 사용해 만든 떡,

쌀와플, 쌀빵 등의 메뉴는 새로운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카페 의자, 점원 유니폼, 벽면 포인트 모두가 모두 연두인 이 유도 웰빙의 컨셉을 강조한 것이다.

떡카페의 최고 장점은 떡을 빵처럼 날개로 판매해 입맛에 맞는 떡을 다채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찰떡의 종류만도 13가지에 달한다. 호박, 흑깨, 쑥, 포도, 녹차, 등굴레 찰떡 등은 다양한 빛깔 · 맛 · 효능으로 개성 강한 젊은 소비자층의 주목을 끈다. 신메뉴로 떡 샌드위치와 쌀빵 샌드위치까지 출시될 예정이다라니 떡의 변신, 어디까지 계속될까.

〈고객 인터뷰〉

이름: 김홍석 나이: 25세
직업: 학생

- 떡 카페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

쿠폰 책자를 통해 신촌에 떡 카페가 생긴 것을 알았다. 떡 카페 하면 인사동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앞에 떡카페가 생기니 너무 반갑다. 사실 신촌 주변에는 떡 파는 곳 없다.

- 와 보니 어떨까? 스타벅스나 다른 카페와 비교해 보다면?

일단 스타벅스보다 가격이 저렴해 좋다. 다양한 음료와 먹을거리 메뉴도 눈길을 끈다. 커피, 떡은 물론이고 쌀와플, 떡빙수, 쌀빵까지 있으니 친구와 디저트로 무엇을 먹을까 다투지 않아도 된다(웃음).

- 즐겨찾는 메뉴는?

쌀와플을 좋아한다. 와플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만점의 디저트다. 이 곳 와플은 쌀로 반죽을 해 같은 바삭하지만 안은 부드럽다. 밀 보다는 쌀이 몸에 더 좋으니 쌀와플을 먹고 나면 왠지 더 든든해지는 것 같다.

- 떡카페, 앞으로 젊은층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젊은이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빵보다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농산물이고 다양한 빛깔과 모양을 가진 떡이 인기 없을 이유가 없다. 맛도 아주 좋다. 인테리어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시키면 좋겠다.

- 떡에는 어떤 음료가 어울릴까?

피자엔 콜라, 파전엔 동동주, 빵에는 우유, 떡에는 왠지 전통차가 어울릴 것 같다. 하지만 커피와도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달콤한 떡과 향긋한 커피 한잔이면 분위기도 한층 살아나고 배도 든든하다.



글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사진 오상민 중앙일보사사미디어 기자

찌고 치고 지지고 삶고

꿀떡만 있나, 꿀떡도 있지!

‘2007 부산 건강 및 음식박람회’
가 지난해 11월 1일, 부산 해운대 벅
스코에서 개막돼 요리 강사들이 우
리 농산물을 만든 전통 떡과 과자
등을 직접 만들어 보이고 있다.



떡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찌는떡, 치는떡, 지지는떡, 삶는떡으로 나눈다. 시루떡으로 대표되는 찌는떡은 멥쌀이나 찹쌀을 먼저 물에 담갔다가 가루로 만들어 시루에 안친 뒤 김을 올려 익힌다. 찌는떡은 다시 설기떡(무리떡)과 켜떡으로 구분되는데, 설기떡은 찌는떡의 가장 기본으로 멥쌀가루에 물을 내려서 한 덩어리가 되게 찌고, 켜떡은 멥쌀이나 찹쌀가루를 시루에 고물로 얹어가며 안쳐서 찐다. 이 밖에 찌는 떡으로는 백설기, 궁설기, 쑥설기, 호박시루떡, 거피말찰편, 붉은팔찰편, 녹두고물찰편, 석이증편, 밤·대추증편, 삼색송편 등이 있다.

치는떡은 곡물의 겉질을 벗겨 낱알이나 가루로 만들어서 시루에 찐 다음 더울 때에 절구나 인반 등에서 끈기가 나도록 친 후 떡살로 모양을 내거나 콩고물을 문힌다. 멥쌀로 찌서 치는 가래떡이나 절편류, 찹쌀로 찌서 치는 인절미류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쑥개떡, 꿀맛떡, 감자찰떡, 대추단자, 쑥굴레 등이 있다.

지지는떡은 쌀가루를 익반죽한 후 모양을 빚어서 기름에 지져내는 과정을 거친다. 화전, 부꾸미, 주악, 우메기, 노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삶는떡은 쌀가루를 익반죽해 끓는 물에 삶아 건져서 고물을 문힌 떡으로 경단류와 단자류가 대표적이다.

계절에 따른 떡의 종류도 다양한데 주로 제철에 나는 과실이나 꽃을 이용한다. 봄에는 진달래 화전, 꽃경단, 겹송편, 꽃말이찰떡, 쑥자개떡, 딸기설기 등 주로 꽃을 이용한 떡이 많다. 여름에는 수박설기, 과일말이찰떡, 아카시아부꾸미, 오디설기, 모시떡 등 과일을 이용한 떡이 있다. 가을 떡은 감단자, 표고송편, 밤송편, 호두약편, 신과병 등이, 겨울 떡으로는 인삼약식, 밤쌈떡, 흑임자송편, 생강설기 등이 있다.

지역에 따라 먹는 떡도 다르다. 서울·경기 지방은 쌀·수수 등이 유명해 이를 이용한 떡이 발달했다. 강화도엔 질 좋은 쑥이 많아 쑥떡이, 서해안에서는 맛 좋은 굴이 생산되어 이를 이용한 떡도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도 떡은 일반적으로 맛이 구수하고 양이 많은 게 특징이나, 개성 떡만은 사치스러운 편이

빙떡 고운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을 두른 번철에 얇게 펴 놓고 가운데에 양념한 무채 소를 넣고 말아서 지진 떡. 빙빙 돌려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티 가장 또는 찹쌀을 엇기름으로 삭혀서 지진 떡. 주로 명절 때 먹는다.

곤떡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글납작하게 빚고 지초 기름에 지져 붉은색이 나게 만든 지지는 떡(유전병). 색과 모양이 특히 곱다 하여 처음에는 고운떡으로 불리다가 차차 곤떡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쟁이떡 찹쌀가루를 찌서 찢은 후 팔소를 넣고 오쟁이(씨앗망태와 비슷하게 새끼를 엮어 네모지게 만든 씨앗을 담아두는 주머니) 모양으로 큼직하게 만들어 콩고물을 문힌 떡.

다. 이 지역의 떡은 개성경단, 개성주악, 배피떡 등 개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떡이 주류를 이루며, 두텁떡·단자류·수수지지미·개떡 등이 있다.

강원도는 멥쌀이나 찹쌀로 만든 떡보다는 감자를 중심으로 한 발작물과 산채를 이용해 만든 떡이 발달되어 있다. 이 지방의 떡은 감자·찹·옥수수·메밀 등 잡곡과 산채를 주로 하는 만큼 맛이 극히 소박하고 구수한 것이 특징이다. 감자떡·옥수수보리개떡·메밀전병·무송편 등을 즐겨 먹는다.

전라도는 먹을거리가 풍부해 감을 이용한 사치스러운 떡에서부터 약초로 만든 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 감시루떡·수리취떡·차조기떡·구기자약떡·뽕기송편이 유

명하다.

경상도는 과일을 이용한 떡과 산간 지대에서 나는 찹·모시풀·청미래당굴잎 등을 이용한 떡이 널리 발달되어 있다. 상주와 문경에는 밤·대추·감으로 만든 설기떡과 편떡이, 경주에는 제사떡이 유독 많다.

제주도는 쌀보다 잡곡이 더 흔하므로 평상시의 떡은 주로 잡곡이나 고구마·감자·보리 등 발작물을 이용하여 만든다. 오메기떡·조칩떡·빙떡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충청도는 해장떡·곤떡·도토리떡, 평안도는 노티·감자시루떡, 함경도는 콩떡·갯잎떡, 황해도에는 오쟁이떡·좁쌀떡이 유명하다. ❷

떡 시장, 빵 시장의 1/6

국내 쌀 가공시장은 2007년 현재 약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류나 주정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음료시장은 1,400억 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떡의 총생산액은 2006년 현재 1,329

억9,300만 원이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다소비 식품 순위에서 41위이다. 과자류 품목별 출하액은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빵과 케이크·도넛류 총 출하액(1조1,861억9,200만 원, 점유율 30.5%)과 비교해 볼 때 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2006년 떡산업 규모는 총 생산량 7만9,072t, 출하액 1,436억3천만 원, 수출액 56만3천 달러로 42위를 차지하고 있다. 빵류는 6,044억5,200만 원으로 떡류시장의 6배에 달한다. 우리 전통음식인 떡이 빵이나 피자보다 인기를 잃고 있는 이유는 뭘까? ❸

생산량 기준 국민 다소비 식품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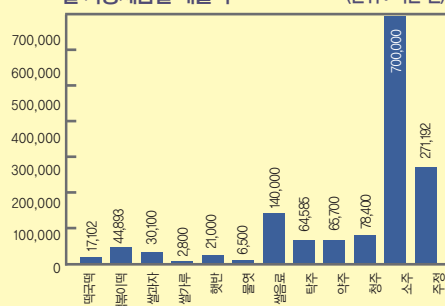
(2006년 기준)

순위	식품품목군	식품품목명	생산량(T)	국내출하액(천원)	수출액(\$)
1	기타식품류	밀가루	1,636,747	779,621,919	2,675,399
2	당류	설탕	1,309,887	520,505,202	99,067,655
3	음료류	탄산음료류	1,283,274	1,053,927,200	8,267,714
4	음료류	과실·채소류음료	877,632	1,010,207,878	13,770,473
5	음료류	기타음료	681,497	947,852,120	10,040,582
6	면류	유방면류(봉지라면)	635,832	1,037,403,045	29,923,992
7	일반가공식품	곡류가공품	607,572	397,456,475	37,643,482
18	과자류	식빵/빵	224,074	604,452,278	857,619
20	면류	유방면류(용기면)	183,793	411,986,772	80,512,715
41	과자류	떡류	79,072	143,603,643	563,307
42	과자류	피자·만두·파이	76,939	144,531,593	10,445,524
55	과자류	케이크류	45,967	308,007,584	31,424

자료 : 한국식품공업협회 2007

쌀 가공제품별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결혼식날 먹어선 안 되는 떡은?

story 1

신랑신부가 찰떡처럼 붙어서 백년해로 하라는 '인절미'

쫄깃해진 찰떡에 공가루를 발라 꿀에 찍어 먹던 인절미는 조선조 인조 임금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임 씨 성을 가



진 농부가 찰떡을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임금님께 바쳤는데, 그 떡 이름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임금은 '임 서방이 만든 기가막히게 맛있는 떡'이라는 뜻으로 '인절미'라는 이름을 친히 지었다. 인절미라는 이름은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 '인절미'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다가 돌아갈 때 만들어가는 인절미는 '입을 막는다'는 뜻의 '입마개떡'이라 불리기도 했다. 시집간 딸이 시댁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묵묵히 순종적으로 살아가라는 뜻과 시집식구들이 맛있는 인절미를 먹고 입을 딱 봉해 딸의 험담을 하지 말고 너그럽게 보아달라는 뜻이다.

story 2

고집불통 시어머니도 살살 녹었다는 '빙어리 찰떡'

고물은 떡의 '생명'이다. 안동의 빙어리 찰떡은 콩과 팔



으로 된 고물을, 찹쌀로 만든 떡 주위에 넉넉하게 묻힌 게 특징이다. 1920년대 지금은 고인이 된 김노미 할머니가 처음 만들었다. 당시 할머니의 둘째아들이 빙어리였다. 그 아들이 떡이 맛있어도 말을 못하니 사람들이 '빙어리 찰떡'이라 불렀다. 또한 찰떡이 워낙 크고 맛이 좋아 한 입 베어 물면 말을 잘 할 수 없어서 빙어리처럼 된다고 해서 '빙어리 찰떡'이라 불렀다.

story 3

돌처럼 딱딱한 '돌빼떡'

겨울철이 되면 찰떡을 굳혀서 차가운 시령에 보관했다가 화



로나 솥뚜껑에 구워서 식사대용으로 먹었던 돌빼떡. 일반 떡은 해서 바로 먹는데 이 떡은 돌처럼 딱딱하다 해 돌빼떡이다. '돌빼'는 돌맹이의 경상도 사투리다. 예전 선비들의 장거리 여행 비상식량으로 말린 떡을 뚝배기에 가져가다가 시장해지면 모닥불을 피워 간단히 구우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했

다.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되고, 구웠을 때 떡의 호화(말랑하게 됨)가 제대로 일어나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장점이다.

story 4

단아한 한 폭의 그림 같은 '각색편'

귀한 떡으로 손꼽히는 '각색편'은 멥쌀을 주재료로 해 떡고물 없이 각색의 켜를 지어 시루에 찌는 떡이다. '각색편'



이라는 이름은 흰 색의 '백편', 대추와 꿀을 곤 물을 넣어 갈색을 띠는 '꿀 편', 승검초(당귀)가루와 썬 잎을 넣어 초록빛이 나는 '승검초 편' 등 세 가지 색깔이 잘 어우러져 붙여진 이름이다. 연안이씨 집안에는 궁중 음식 중 하나인 각색편 제조 비법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기능보유자인 이만희 씨의 선조는 고려시대 지다방사(知茶房事:왕의 겸식관)였다.

story 5

임금의 탄신일에만 먹을 수 있었던 고급 궁중떡 '두텁떡'

두텁떡은 일반 민가의 떡과는 격이 다른 궁중의 떡이다. 궁



중에서도 왕의 탄신일에 빠짐없이 올렸던 가장 귀한 떡이다. 찹쌀가루를 찌서 유자청 등의 소를 바고 각종 견과류를 넣고 볶은 팔가루고물을 얹어 찌는 것으로 조리법이 한층 발달하여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두텁떡은 얹어 놓은 합 모양이어서 합병, 혹은 도둑하게 하나씩 먹는다는 뜻으로 두터울 후를 써 후병으로도 불린다.

story 6

결혼식에 금기된 '바람떡'

바람떡은 말랑말랑하고 맛이 좋아 사시시절 즐겨 만들어 먹지만 결혼식 잔치상에는 절대 올려놓지 않는다.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만들 때 떡 속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바람떡'이라고 하는 이 떡을 결혼식 날 만들어 먹으면 신랑 신부가 바람이 난다는 속설에 따른 것이다. [1]



빵보다 떡!



빵보다 떡이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본 재료인 쌀과 밀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대부분 긴 유통기간을 거친 '정제 가공' 수입 밀가루. <동의보감>은 "묵은 밀가루는 열(熱)과 독(毒)이 있고 풍(風)을 동(動)하게 한다"고 경고한다. 정제된 수입 밀가루는 당지수(GI)가 높아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이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빠르게 일어나 쉽게 저혈당 상태가 된다. 저혈당 상태에서는 험기증, 식은땀, 짜증, 집중력 저하 증상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더 쫄깃한 빵, 더 바삭한 과자를 먹으려는 서양인들이 품종개량을 통해 한껏 높여 놓은 '글루텐' 성분이 소화기능 장애를 야기해 중요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한다. 한약을 먹을 때나 병원 진료 후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반면 쌀은 밀에 비해 당지수가 10% 가량 낮을 뿐만 아니라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글루텐 제외 식품'이다. 또 탄수화물은 물론 우유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우수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필수지방산을 40%나 함유하고 비타민, 무기질도 풍부할 뿐 아니

라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

빵보다 떡이 좋은 또 다른 이유? 그건 첨가되는 부재료에 있다. 빵은 주로 생크림, 잼, 버터, 초콜릿 등이 따라오지만 떡에는 콩, 팥, 밤, 호박, 호두, 잣 등이 따라온다. 심지어는 오미자, 쑥, 검은깨, 대추, 구기자, 뽕잎, 백련초 등 한약재까지 들어가 '건강식'이란 말이 부끄럽지 않다.

떡이 가진 단점이라면 오직 하나 유통기간이 짧다는 것. 금방 굳어 딱딱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떡에 묻은 콩가루 같은 고물이 쉬이 상해 오래 두고 먹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유통기간이 짧은 음식일수록 소비자가 누리는 신선도도 높다.

떡을 먹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가장 쉽고 가깝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낡아빠진 것도 아니다. 눈과 입의 즐거움, 전통문화의 향기에 건강까지 챙기고 싶다면 이젠 빵보다 떡이다. 

서지영 나라경제 기자

콩, 팥, 밤, 호박, 호두, 잣 등을 듬뿍 넣은 떡케익은 맛은 물론 건강에도 그만이다.



'월병(月餅)'은 떡이 아닙니다

떡 문화의 본거지는 쌀 생산국인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까지 해당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떡을 먹을까?

일본에는 유명한 '모찌'가 있다. 모찌는 찹쌀을 찌서 손이나 기계로 만든 떡을 통틀어 일컫는다. 모찌 외에도 멥쌀 분말을 건조시켜 밀가루 전분, 설탕, 익힌 팥소, 쑥을 넣은 쑥떡, 찹쌀분을 굳혀 콩가루를 묻혀 먹는 갈분떡도 있다. 콩가루에 설탕을 넣으면 빨리 단단해진다. 살짝 구운 떡에 팥 등을 발라 꼬치에 끼워 파는 '단고'도 있고, 최근에는 즉식 떡이라는 인스턴트 식품도 생겼다. 찹쌀을 찌서 떡을 만들

어 가열한 후 롤러 사이를 통과시켜서 건조, 분쇄한다. 물에 개기만 하면 금방 친 것 같은 부드러운 떡이 되므로 휴대용으로 좋다.

중국의 떡은 일반적으로 찹쌀을 멥쌀로 갈아 앙금을 찌서 만든다. 추석 때 많이 먹는 월병은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반죽에 팥소와 말린 과일을 넣어 만든 것으로 떡이라기보다는 과자나 빵에 더 가깝다. 북방지역에서는 밀을 이용한 빙(餅, 전병)을 즐겨먹는 반면 남방에서는 쌀을 이용한 까오(糕, 떡)를 즐겨먹는다. 인카오(印糕)는 모양틀로 찍어낸 떡으로 쌀가루 혹은 녹두가루로 만들고 팔이나 녹두를 소로

넣는다. 쌀가루로 옥처럼 하얀 띠를 두른 모양의 위따이까오(玉帶酥), 계화(桂花) 꽃잎이 들어간 푸꾸이까오(富貴酥), 우리 인절미와 비슷한 찹쌀떡인 다까오(打酥) 등이 있다.

베트남에는 설에 먹는 떡으로 반떼가 있다. 찹쌀 안에 대추·콩·잣 등을 넣어 아자수 잎으로 싸서 찌 먹는다. 필리핀에서는 물소 치즈와 소금을 넣은 오리알을 이용해 만드는 떡(rice cake)인 비빙가가 있다. 크리스마스에 즐겨 먹으며 달콤하고 부드럽다.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뉴욕에서 떡카페 하자네요”

광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을 가다



광주시에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전통식품으로 각광받
는 ‘떡’을 산업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김
치와 떡을 지역 대표적 ‘문화 관광상품’으로 선정하고, 떡 산업
육성 선포식을 갖는 등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다.

떡 산업화는 정부의 향토산업 육성에 따른 3개년 사업으로
2009년까지 10억 원을 들여 신상품과 떡 가공시설, 포장재, 디
자인 등의 개발과 판로확대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게 된
다. 특히 떡의 취약점인 보존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대량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인터넷 쇼핑몰 구축 등에도 나서
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광주디자인센터 내에 산·관·연구소
가 참여하는 떡산업육성사업단(단장 강홍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은 광주지역의 650여 곳의 떡 제조업소 중에서 창역, 명
지원, 시루연 등 7개 업체와 공동으로 예와 정성을 담았다는 의
미의 ‘예담은’이라는 브랜드로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광주시 농산유통과의 최광호 총괄은 “2년 전에도 전남도청
에서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떡산업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논
의했다가 실용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대로 묻어 버리기엔 너

무 안타깝더라. 호남지역은 떡 만들 재료가 많으니 향토지원지
원사업의 일환으로 떡사업을 육성하자고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다행히 제안이 받아들여져 광주시는 지방자
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떡사업단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사업단의 정금남 연구원은 “예담은을 알리기 위해 행사가 있
는 곳은 어디라도 어김없이 떡보따리 싸들고 찾아 다녀 브랜드
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며 이제는 사업이 성과를 거둬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장담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예담은은 미국 수
출 길에도 올랐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18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강홍원 사업단장은 “아직은 미국 교포들을 대
상으로 한 판매가 대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입소문”이
라면서 수출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자신했다. 소비자 반
응이 좋아선지 뉴욕에서 예담은 브랜드로 떡카페를 내지는 프
로포즈도 받아 놓은 상태다.

전통 떡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기도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우리쌀 소비를 위한 퓨전 떡 육성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미로 만든 떡을 스타벅스 무교점·소공동점 등에서 판매
했으나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떡제품만을 내세웠던 떡카페들
도 성과 없이 문을 닫았다.

차와 접목시키거나, 즉석에서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발상
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떡을 문화화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사업단에서 주력하고 있는 일이 바로 문화화 작업이다.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건물 한 채 짓거나 자동화설비 몇 대 건
네는 생색내기로 끝내버릴 수도 있는 액수다. 이런 하드웨어 지
원은 떡사업단의 목표가 아니다. 떡산업을 육성한다면서 왜 디
자인센터가 사업을 주관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문화’라는 접점
을 통해서 비로소 풀렸다.

떡은 단순히 음식이라기보다 문화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단순히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의미의 속담이 아
니다. 떡을 디자인을 하는 일은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하는 일이다. 외국의 도넛전문점은 이미 우리 동네 골
목까지 들어섰다. 신세대 입에 도넛 대신 떡을 먹이기 위해 광
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 사람들은 오늘도 떡보따리를 짊어지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계속]



1 강홍원 광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장

2 최광호 광주시 농산유통과 총괄

3 정금남 광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 연구원





“전통 떡의 계량화가 급선무죠”

박흥수 시루연 대표

광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에서는 광주 시내 650여 떡 제조업소 중 7개 업체를 선정해 '예담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시루연'의 박흥수 대표를 만났다.

– 어떻게 떡 사업을 시작했나?

나는 외식사업에 20년 종사했고 손안상 대표는 전통음식 1급 기능인이다. 외식사업을 하다 보니 떡이 꾸준히 필요한 데 맘에 드는 떡을 찾을 수 없어 직접 만들겠다고 맘먹고 둘이 함께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전통음식을 산업화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다. 전통만 찾으면 발전이 안 되고 현대화만 하면 전통의 맛이 없어진다. 두 가지를 잘 접목해야 생산성도 있고 고객도 좋아한다.

– 창업한 지 얼마나 됐나? 규모는?

2006년 12월에 시작했고 그동안 약 40억 원 정도 투자했다. 직원은 28명이고 하루에 떡을 3,800kg 생산한다. 스팀찜기, 성형기 등 자동화시설도 갖췄고 냉동·냉장 창고와 영하 60℃ 급속 동결이 가능한 동결실도 있다. 작년 매출은 10억 정도 올랐다.

– 어떤 떡을 만들고 있나? 자랑하고 싶은 떡은?

우리가 만드는 떡은 약 60여 가지다. 전통 떡뿐 아니고 현대화된 다양한 떡을 개발하려 노력한다. 호남지역은 예부터 농산물이 풍부하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나는 천연재료만 사용한다. 우리가 만든 복분자 설기나 딸기 설기, 호박시루떡을 보고 색깔이 너무 예뻐 색소를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떡은 맛있지만 한 게 아니라 몸에도 좋다.

– 떡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조건은?

전통 떡 기능 보유자에게 떡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 한다. 이론적 뒷받침이 없고 제조공정이 계량화되지 못해서다.

떡을 확산시키려면 정확한 레시피부터 만들어야 한다. 문광부에서 2년 전에 떡의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어 이젠 누구나 그걸 보면 떡을 만들 수 있다.

–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나?

전문 업체 하나 창업하려면 기술과 자본,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기술과 마인드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곳을 정부가 선별, 지원해야 한다. 지금은 광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에서 일곱 군데를 선정해 '예담은' 브랜드를 만들어 지원해주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홍보도 더 해줬으면 한다. 개인이 홍보하면 상업적 목적이라고 하겠지만 관에서 홍보해주면 사람들이 신뢰하게 아닌가.

– 전망은?

떡 산업은 충분히 비전이 있다. 떡은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다. 최근 3년 광주지역 빵집이 2.9% 줄고, 떡집은 22.8% 늘었다. 공교롭게 광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이 우리 시루연과 하루 차이를 두고 생겼다. 관에서는 떡 산업을 육성하고, 나는 부지런히 떡 홍보하니 광주 떡 수요가 크게 는 거다. 내 홍보를 본 사람 중 30%는 시루연에 주문하지만 70%는 동네 떡집에 주문했을 거다. 광주 떡집들이 내 떡을 많이 본 거지.

떡 산업이 발전하면 우리 전통음식도 계승하고, 떡의 재료인 쌀 소비도 증가한다.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니 농민 좋고, 빵 대신 떡을 먹어 소비자도 건강해지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닌가?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이젠 쌀이 아니라 쌀가루다

1차 농업에서 2차 가공산업으로 눈 돌려야

우리나라 농업은 높은 땅값과 인건비로 식량자급도 어렵고 국제 경쟁도 갖출 수 없는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방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WTO 체제가 이미 우리의 현실이자 가정사실이 되고 말았다. 품질 좋고 값싼 수입쌀이 국산 쌀을 밀어내고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이 임박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쌀의 중요성이 더 한층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0년간 쌀 수입 개방에 착실하게 대비했다. 유기농 식품 개발, 유통과정 전면 개혁, 농산

품 전문 슈퍼마켓, 수입농산품에 대한 농약농도 규정 및 검사 기관 강화 등 외국 쌀의 대대적 공세로부터 지국 쌀을 보호할 만반의 대책을 세워 놓았다.

우리도 우선 쌀농사 위주의 농업체계를 개편해 소농 다품종 재배에서 대농 특화품종 재배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1차 농업에서 2차 쌀 가공산업으로 전환해 부가 가치를 높이며 농업의 국제브랜드화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쌀과 쌀 가공품을 생산해야 한다.

둘째 1차 농업에서 2차 가공 산업으로 농업구조를 연동시켜 고부가가치의 쌀 가공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현재는 쌀 가공원료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며 단순 쌀 가공수준의 제품이 일반화되어 있다. 쌀 가공제품은 3백여 종이나 되지만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며, 쌀 가공생산 기반도 열악한 형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쌀 가공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수한 유기농 · 친환경 쌀을 이용한 쌀 가공식품을 세계로 수출해야 한다.

쌀이 부족했던 때는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에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쌀 가공제품 브랜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 결국 승부는 쌀 가공식품에 있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쌀 가공식품을 생산해 수출한다는 것은 국산 쌀의 중요한 소비시장이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첫째 쌀가루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밀가루처럼 쌀 가공산업의 기초가 되는 쌀가루 산업을 육성해 쌀 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고품질 ·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 · 보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균 포장밥 제조 기술, 고기능성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고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이다. 쌀을 원료로 한 쌀국수 · 쌀음료 등 쌀 가공식품을 계속 개발해 김치 · 된장 · 불고기 등의 우수한 식품과 함께 국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는 WTO 체제하에서 가장 시장개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공품 무역은 천연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기사화생한 경제 모델이며 지금도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경제의 주축이다.

셋째 생산 · 가공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자동화 설비를 확대

쌀가루와 엿기름으로 한과를 만드는 전통식품업체



보급해야 한다. 다양한 고품질의 쌀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야 쌀 가공산업도 활성화된다.

이러한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쌀 소비가 연 50만 t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밀가루 제품 대체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로 연 1,200억 원을, 가공설비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로 연 7,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는 쌀 가공 기술을 선점할 수 있어 쌀 가공제품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쌀 가공산업이 활발해지면 식량안보에 안정적 태세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국립농업과학원 제공]



김준석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위원
jskum@kfrl.re.kr

온달(滿月)이 뜨는 추석에 왜 반달(半月) 모양 송편을?

햇 곡식이 익는 추석은 명절 중에서도 상차림이 가장 풍성하다. 그중에서도 추석 음식하면 단연 송편이 꼽힌다. 추석에 뜨는 보름달 형상과는 대조적인 반달 모양의 송편. 그 유래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땅속에서 파낸 거북 등에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반달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점술사는 백제는 다음날



예로부터 반달을 닮은 송편은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 결국 백제는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였고 그런 마음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

송편은 추석날 제일 먼저 수확한 햅쌀과 햅곡식으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여 조상의 차례상에 바치던 명절 떡이다. 한국전통음식연구소는 송편 모양을 달 모양과 연관지어 의미를 설명한다. 송편은 반달 모양이지만 송편 안에 소를 넣고 접기 전에는 온달 모양이다. 달의 생성→숙성→소멸 단계처럼 곡식도 생성되고 숙성되므로 송편은 달의 열매를 상징한다. 너 하나 나 하나 만들어 온달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국립농업과학원 제공]

정월부터 그믐까지

정월 초하루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가래떡

이월 초하루 새해 농사를 시작하며 수고해 달라는 뜻으로 노비 송편

삼월 삼짇날 진달래꽃으로 두견화전

사월 초파일 석가의 탄생을 축하해 느티나무 싹을 넣은 느티떡과 장미화전

오월 단오 거미팔시루떡으로 단오차사를 지내고 해썩으로 버무리, 절편, 인절미

유월 유두 쌀가루에 막걸리를 넣어 발효시킨 후 고명을 얹어 찐 증편

삼복 개찰 떡, 밀전병, 주악

칠월 칠석 흰 쌀로 만든 백설기

팔월 추석 한가위 햅쌀로 만든 시루떡, 송편

구월 중양절 국화꽃으로 만든 국화전

시월 상달 동리 이웃과 나누어 먹는 시루떡

동지 팔죽에 넣는 찹쌀 경단

섣달 그믐 은시루떡

‘깊은 맛’에 관한 한 나는 완벽주의자

여의도 떡방 김옥희 대표

전통 재료와 비법을 잃지 않으면서도 늘 새롭고 진화된 떡을 만들어내는 여의도 떡방을 찾았다. 365일 갇혀 있는 떡만 팔기로 유명하다. 오전 10시, 예닐곱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 떡방의 하루 시간표가 궁금하다.

보통 새벽 3~4시에 출근한다. 전날 준비한 재료로 떡을 만들어 오전에 판다. 새벽에만 떡을 만들어 저녁까지 파는 다른 집과 달리 우리는 오후 2시까지 계속 떡을 찐다. 저녁때 오는 고객에게는 오후에 만든 떡만 판다. 3~4시부터는 내일의 재료를 준비한다. 명절이 다가오면 바상이다. 밀려드는 주문에 2주 전부터는 하루 두세 시간밖에 못 잔다. 추석 주문이 이미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무섭다.

—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되나?

점포 두 곳과 공장 한 곳 합쳐 28명이다. 명절에는 50명 정도 일한다. 일가친척에 아들 친구들까지 동원한다. 평소 직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다.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아서 되겠나. 나보다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더 힘들게 일하는 걸 알기에 내가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직원들을 더 배려하려고 애쓴다.

— 왜 떡을 만들게 됐나?

작은 아버지가 여의도에서 하던 떡집을 76년부터 도왔다. 콩과 쌀을 삶고 팔을 물에 불리고 껍질을 까 조리질하는 일부터 했다. 그 때 기계가 있었나. 밤새 떡국 떡 썰고 80kg 쌀가마니를 이고 다니면서도 결근 한번 안 했다. 그러는 동안 떡의 깊이를 이해하고 애착을 갖게 됐다. 1985년 독립해 강남으로 내려와 내 가게를 냈다. 여의도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고 심어 상호를 ‘여의도 떡방’이라 붙였다.

— 여의도 떡방의 경쟁력은 뭘까?

끊임없는 연구개발이다. 늘 새로운 떡을 만들어 먹어보고 분석해 본다. 됐다 싶으면 품평회를 열고 상품화한다.

우리 집에서 최고 인기인 완두배기 찰떡과 퓨전 오메기떡 모두 내가 개발했다. 건강과 맛, 하나도 소홀할 수 없다. 방부제나 인공첨가물은 한 방울도 안 넣는다. 얼마 전 당뇨환자들에게 좋은 현미찰쌀로 검은깨 시루떡을 만들었다. 테스트가 잘 끝나 곧 상품화된다. 유명해지다 보니 다른 떡집에서 보고 베껴간다. 그러나 철저한 재료관리와 연구가 없으면 절대로 깊은 맛을 낼 수 없다. 그 ‘깊은 맛’에 관한 한 나는 완벽주의자다. 내 입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고객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거저 드릴지언정 절대 돈 받고 팔지 않는다. 떡 만드는 사람에게 떡을 사랑하고 꼼꼼하게 연구개발해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가지가 없다면 떡 문화는 발전할 수 없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은?

한국계 혼혈인으로 미식축구 해서 유명해진 하인즈 워드다. 떡을 함께 만들어보는 방송 프로그램을 찍었다. 참 착하고 열심이다. 구릿빛 피부가 너무 예뻐다. 차 6대가 시골벽적하더니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들어오는 걸 보며 유명세를 실감했다. 유명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 단골도 많다. 역대 대통령 덕 중 우리 떡이 안 들어간 떡이 없다.

— 전통 음식의 현대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면 의미가 없다. 재료의 선정과 손질은 철저히 전통방식을 따지지만 맛과 모양은 현대인들에게 어필해야 한다. 나는 떡을 ‘ 많이’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 떡은 맛과 영양 면에서 비싼 가격으로 소수 고객에게만 파는 소위 ‘명품 떡’과 전혀 다르지 않다. 돈 벌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떡을 왜 몇 명만 먹어야 하나. 더 많은 사람이 더 맛있게 먹도록 하고 싶다. 그게 우리 전통을 더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장사 잘되는 집에 재고없다’는 진리가 여의도 떡방엔 통한다. 늦게 가면 떡이 없다. 이따금 떡이 남는 날이면 냉동고에 꽂꽂 얼려 시간 날 때마다 전국의 경로당과 독거노인, 고아원에 나눠주는 김옥희 대표. 내가 만드는 떡,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대해 진심과 열정을 가진 그가 진정 ‘명품’이 아닐까?

서지영 나라경제 기자



떡에 美를 입힌다

잔칫날엔 화조문, 혼례식엔 포도문



여러가지 모양의 떡살과 다식틀

나무를 깔고 무늬를 새겨 떡 위에 찍는 도구, 떡살. 그 모양새가 고울 뿐 아니라 깊은 의미와 정성을 담아 찍는 떡살은 옛 사람들의 생활필수품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떡살을 만들 때에도 재질이나 강도, 색상에 따라 구별해 용도에 맞춰 사용했다. 또한 떡살에 고운 색이 우러나오도록 돌배나무·대추나무·박달나무 등은 2~3년간 땅에 묻어놓았다가 사용하기도 했고, 옷칠·황칠을 하거나 동백기름을 발라 부식을 막기도 했다.

소도 들어 있지 않고 맛도 모양도 평범한 절편을 최고의 떡으로 만들어주는 떡살. 지금의 절편에는 일제의 잔재인 빗금(국수문)만이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무늬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달랐다. 큰 잔칫날이나 경사스러운 날에는 화사한 꽃문이나 화조문, 혼례식에는 다산과 복을 기원하는 석류문, 포도문, 나비문, 박쥐문, 톱니문 등을 사용했다. 긴 줄무늬의 국수문이나, 백일홍문, 수복강녕(壽福康寧)이라는 문자문으로 무병장수를, 제사 때는 수레차문·물고기문 등으로 조상의 수호를 빌었다.

귀(만)자는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가슴에 있었던 무늬. 이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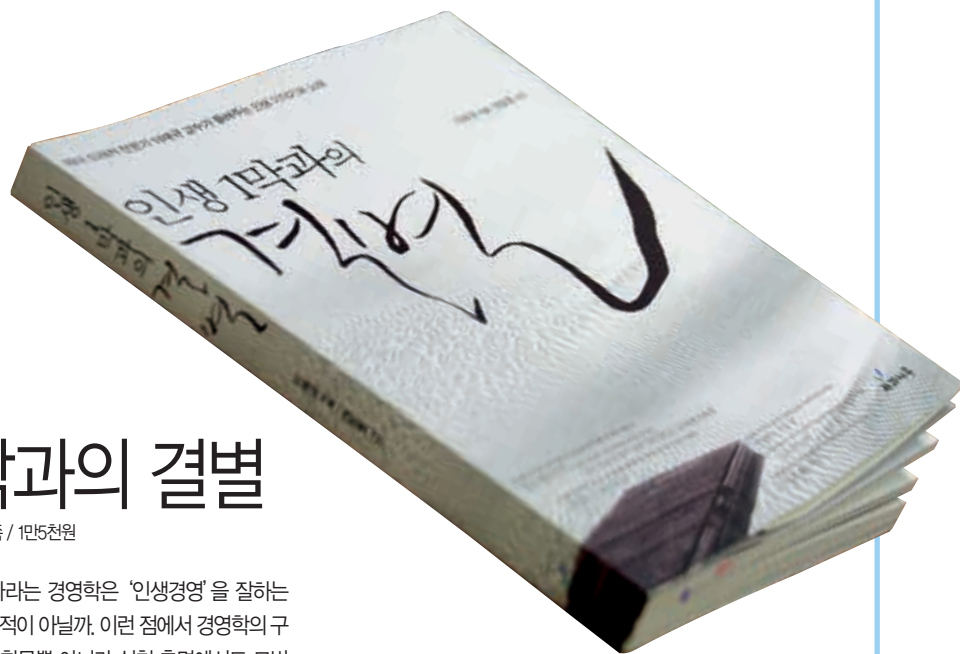
늬는 후세에 이르러 길상의 표시로 인식됐다. 떡살에서는 주로 밑그림으로 쓰이며 다른 무늬와 함께 어우러져 사용된다. 새우는 허리가 굽었다 해서 해로(海老)라 불리며 해로(偕老)와 독음이 같다. 이 때문에 새우문은 부부가 오래도록 잘살게 해달라는 뜻이 있다. 또 주로 해안 지방에서는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름문은 우주의 자연 현상을 형상화시킨 것이며, 구름이 있는 곳에 하늘이 있기에 떡살에서는 성스러움을 표현한다.

삼다(三多)란 다수(多壽), 다복(多福), 다남(多男)을 말하는 것으로 인생의 최대 행복을 상징한다. 상징적인 식물은 복숭아, 석류, 불수감이 있다. 거북은 심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한다. 등껍데기는 상갑(上甲)이라 하여 하늘의 지붕을 상징하고 배껍데기는 하갑(下甲)이라 하여 땅을 상징한다. 이 둘은 천지음양의 조화를 나타낸 것으로 길운과 상서로운 번영의 의미로 사용돼 떡 위에 아름답게 간절하게 찍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무늬를 하나씩 입 속에 집어넣으며 살아왔다.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 고승철의 '추천 이 달의 경제서'

고승철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cheer@donga.com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장·부국장·출판
국장을 역임했다. 경제와 문
화를 아우르는 칼럼을 집필
하며 재화와 인문 정신의 통
섭을 꾀한다. 어려운 경제서
적의 서평을 이해하기 쉽고
맛깔나게 쓰는 데 대한민국
1인자다.



인생 1막과의 결별

사과나무 / 이재규 지음 / 240쪽 / 1만5천원

실천 학문의 간판스타라는 경영학은 '인생경영'을 잘하는 것이 학문의 궁극목적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경영학의 구루(guru)인 피터 드러커는 학문뿐 아니라 실천 측면에서도 모범을 보였다. 그는 구순이 넘게 살면서도 평생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가치 있는 일에 흥미를 잃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늙음을 치료하는 최고 명약"이라면서 "사람은 호기심이 사라질 때부터 늙는 것"이라 갈파했다.

피터 드러커를 사부로 모시고 그의 책을 국내에 번역하는 데 앞장선 이재규 전 대구대 총장도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경영학자인 그가 펴낸 인생 경영서는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인생 1막과의 결별'이 그것이다. 부제로 '피터 드러커 전문가 이재규 교수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와 노래'를 달았다. 저자는 경영학 교수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은퇴식을 자신의 테너 리사이틀 자리로 활용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은퇴 체험담과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2008년 4월 1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은퇴식 겸 성악 발표회 이름을 '생전(生前) 영결식'으로 붙인 것이 파격적이다. 저자는 "내가 죽으면 누가 오겠으며 조문을 온다한들 이미 나는 떠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면서 "그동안 신세진 분들을 모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멋있게 이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인생 1막'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생 2막'에서는 '하고 싶은 일'에 몸을 맡길 작정이라고 한다.

그 생전 영결식에서 저자는 '별은 빛나건만' 등 주옥 같은 노래 8곡을 불렀다. 대학 축제 때 노래를 불러 그때 만난 여학생과 결혼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야기 등 노래에 얹힌 사연도 소개했다. 저자는 그동안 낸 여러 저서의 인세 등으로 모은 5천만 원을 대구대장학회(기금 1억5천만 원)에 기탁했다. 그 장학회는 총장 퇴임 때 어머니 이름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이 책에는 부록으로 생전 영결식에서 부른 노래를 담은 음반이 붙어있어 현장 분위기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저자는 이에 앞서 'CEO를 위한 클래식, 음악 에피소드'와 'CEO를 위한 클래식, 작곡가 에피소드'라는 책을 쓴 바 있다. 고교생 때부터 음악에 심취한 저자는 40여 년 동안 읽고 보고 모은 음악 에피소드를 정리했다. 지휘자, 솔리스트, 악기, 작품, 오페라 등 5부로 묶었다.

최근 에피소드 하나. 2007년 1월 12일 미국 워싱턴의 지하철역에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 조수아 벨이 거리의 악사처럼 야구 모자를 쓰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45분간 연주했다. 35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로, 멈추어 음악을 들은 사람은 7명이었고 바이올린 케이스에 모인 돈은 32달러였다. 그 해 4월 17일 런던 워털루역에서 타스민 리틀이 비슷한 실험을 했다. 모은 금액은 14파운드로 조수아 벨과 엇비슷했다. 보름 후인 5월 2일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성신여대 피호영 교수도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나와 연주했다. 번 돈은 1만6,900원이었다. 두고두고 화제에 올랐던 에피소드들, 인생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인지 보여주는 일화들이 책 속에 수두룩하다.

심리학이 경제학을 만나다

토네이도 / 야마모토 미토시 지음 / 이서연 옮김 / 254쪽 / 1만2천원

저자는 경제활동을 풀어내기 위해 행동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을 동원한다. 이 책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 심리가 경제학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펴보고, 마음의 눈으로 경제를 보는 지혜를 담았다. 먼저 사람들이 믿는 상식 그중에서도 경제적 통념에 얼마나 많은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경제현상을 심리학적 통찰력으로 바라볼 때 보다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1



2

1 '비디오 아트' 창시자 백남준.

2 백남준 作, 〈Wright Brothers〉, 1995년작, 56 x 173 x 403 cm,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2007년 11월 홍콩 크리스티 경매 출품, 낙찰가 USD 540,120

베이징 올림픽에서 날아온 우리 대표선수들의 선전 소식은 올 여름 무더위를 식혀 주고도 남았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건 분명 희열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웅들은 비단 스포츠 분야에만 있는 건 아니다. 박빙의 승부를 가능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미술 분야에도 작가 순위를 매기는 곳이 있다.

독일 경제잡지 '카피탈(Capital)'에서 발행하는 미술관련 잡지 '예술나침반(Kunstkompass)'은 매년 생존 작가 중 가장 많은 활약을 보인 '세계의 작가 100인'을 선정한다. 미술관·화랑에서의 전시나 아트페어, 미술품 경매에서의 판매 기록 그리고 유명 언론에 소개된 작품평 등을 근거로 점수를 합산한다. 여기에 백남준(1932~2006)이 아시아 작가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었다. 그는 독일의 시사 주간지 '포커스(Focus)'에서 선정한 세계 유명 예술가 1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가 현대미술사의 주요 인물로 주목 받는 이유는 '비디오 아트'라는 예술장르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백남준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텔레비전을 예술적 표현 매체로 다루고자 했고 어떻게 하면 TV를 탈교육화·탈목적화시킬까를 고민했다. TV가 전달하는 정보나 미감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의 방법을 깨뜨리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후에 '디지털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와 같은 관객참여 또는 작품과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을 유발했다. 그의 사상은 우리 일상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디지털 방송, IP TV와 같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했던 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은 바로 그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시대건 예술가는 자동차로 달린다면 대중은 버스로 가는 속도"라고 말했던 백남준.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7세 때 한국을 떠나 일본과 독일에서 미학·음악사·미술사 등을 전공하고 미국에 정착해 살다가 74세에 생을 마감한 다문화 체험 이민자다. 그러나 그가 모국에 남긴 한마디는 그의 진정한 뿌리는 한국인이었음을 말해준다.

"한국에 비빔밥 정신이 있는 한 멀티미디어 시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비디오 아트 낳은 비빔밥 정신



이미란

아트블루 전시기획실장
saykoala@naver.com
서양화를 전공하고 63갤러리에서 큐레이터를 지냈으며, 현재는 아트블루 국제부 전시기획 실장 및 오페리아 미술아카데미 원장으로 있다. 주로 현대미술에 관련된 기획, 마케팅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소비지표만 ‘제대로’ 읽어도 투자 고수

시장 혹은 경제 현상은 그것을 계측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마다 일부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920년대에는 기업 실적만 먼저 입수해도 돈 다발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거시와 미시가 뒤엉킨 경제현상과 기업 요인에 시장요인까지 얹혀 특정 정보가 더 이상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없다. 최근 신문을 봐도 그런 현상은 너무나 명백하다.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정보양이 얼마가 되건 신문마다 그것을 담아내는 시각이 다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 밖의 GDP 성장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면, 바다 건너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융기관의 추가상각과 주택착공률 하락을 메인 기사로 다룬다. 혹은 동일한 신문에서도 고용지표의 예상 밖 호조와 함께 소비자 기대심리의 하락을 같은 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쯤 되면 거시적 판단을 위한 계량경제학의 방정식이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a + b + c + d + e + \dots + y = z$ 라고 가정하자. a는 금리, b는 고용지표, c는 주택가격, d는 GDP 성장률과 같은 식으로 변수를 정해두고 각 변수는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둔다고 하자. $a + 2b + 5c + \dots + 3y = z$ 로 두고 z가 100 이하면 침체, 100~120은 중립, 120 이상이면 호황이라고 하자. 당신은 과연 이 방정식에 따라 경기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피식 웃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모 유명 증권사의 임원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자신의 모델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경제를 예측하는

무림의 비급이 손아귀에 있는 양 으스스했다. 결과적으로 그 임원은 바로 그 순간부터 차라리 그러한 모델이 있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훨씬 나았을 입장에 처하고 말았다.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다.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변수 중에서 a는 b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b는 c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계량화할 수 있는 예측지표는 애당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을 판단할 정보를 구하길 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예측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시장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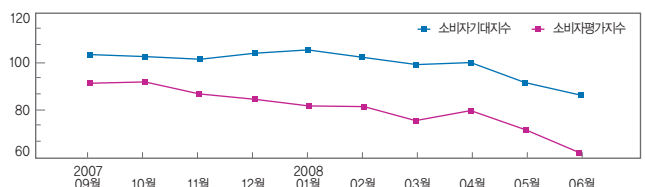
것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가공하는 사람과 그것을 사는 사람의 거대한 먹이 사슬을 구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의외로 단순한 데 답이 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예측하는 데 모든 정보와 기술적 분석의 도구들을 동원하는 순간 오리무중이 되듯이 주가예측의 기초자산인 경기를 판단하는 흐름에도 복잡다단한 정보들을 모두 원용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지적 범주 안에서 해석 가능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몇 개의 정보를 제대로 ‘비교활용’ 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은 거시지표가 시장예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틀렸다”이다. 거시지표는 오히려 미시지표보다 이해하기 쉽고, 최소한 기업 분석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유용하다.

〈그림 1〉 소비자 전망지수 추이



우리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대충 소비 관련 지수, 고용 관련지수, 재정 관련지수, 경제성장율, 금리, 인플레이 등이고 이들에 대한 정보는 매일 같이 시장에 쏟아진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시적 지표들은 무엇이고 그것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거시지표들을 해석하는 것은 시장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일단계절차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아닌 기업을 사라”고 말하지만 장티프스가 창궐할 때 돼지고기가 팔리지 않고, 돈이 넘쳐날 때 술집이 흥청거리는 이치를 생각해 보면 거시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치에 닿는 일이다. 하지만 그 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은 거시지표가 시장 예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

연 그럴까? 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틀렸다”이다. 거시지표는 오히려 미시지표보다 이해하기가 쉽고, 최소한 기업분석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유용하다.

우 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거시지표들 중에서 투자에 원용할 수 있는 지표는 소비지표다. 소비지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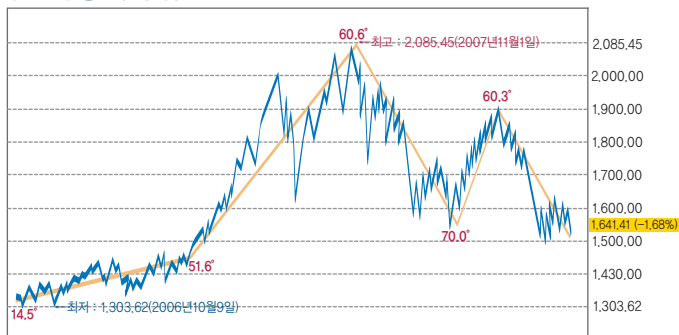
먼저 <그림 1>을 보자. 소비자 기대지수는 2008년 4월을 기점으로 100을 하회하면서 현저히 꺾이고 있고, 소비자 평가지수는 이미 2007년 10월에 고점을 기록한 후 현격한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래 이 그래프를 2006년 11월부터 살펴보면 2007년 후반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현저한 하강국면에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을 <그림 2> 종합주가지수 차트와 비교해 보면 의미 있는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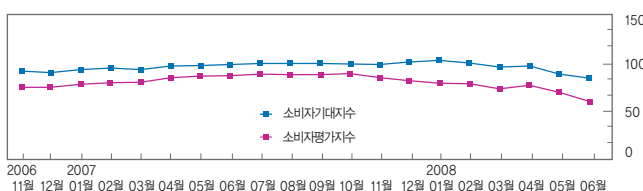
종합주가지수 차트에서 고점을 기록한 것이 2007년 11월이고, 2008년 4월 반등한 후 2005년 5월부터 투자심리가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이 거시지표와 주가지수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소비자 평가지수가 놀랍게도 주가지수와 거의 동행하고 <그림 3>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그에 약간 후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식시장은 곧 소비지출과 동행한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불안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산 투자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비지출의 악화는 연이은 기업실적 악화를 가져올 것이 확연해 유가증권 시장은 소비지출과 거의 동행하는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지표나 설비투자 등을 보고 침체에 빠졌다고 판단해 주식시장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이미 지진이 지나간 자리에서 여진을 걱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 된다.

<그림 2> 종합주가지수



<그림 3> 소비자 신뢰지수



박경철 donodonsu@naver.com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경제방송 진행자, 증권사에서 투자를 가르치는 애널리스트, 방문객 3백만을 넘어서 블로그 운영자, 안동 신세계연합병원의 외과의사이다. 최근 네 번째 에세이집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를 출간했다.

때: 2008년 8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곳: 서울팔래스호텔

참석자: 함상문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한수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DNA 바꾸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함상문: 금융허브,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열어보자.

김주현: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뤘다. 초기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국 등 우리나라의 경쟁상대는 사회주의에 빠져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국제무역규범도 개도국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제 제조업만 가지고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한수: 경제학 이론상에서도 한계수익(marginal return)은 감소한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시장이 작아 수출은 계속해야겠기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IT 산업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한계가 있고 결국은 서비스업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중 가장 유망한 것이 금융 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 금융서비스를 수출하려면 무언가를 만들어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고객을 불러와야 한다. 이것이 금융허브의 개념이다. 유럽 선진국을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 위주로 가다가 1인당 GDP 2만불 정도에서 정체되고 이후의 성장은 서비스, 특히



김한수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심리학과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금융서비스를 특화해 3~4만불로 성장한 사례들이 많다.

함상문: 그렇다면 금융 부문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할 텐데 현재까지 관련 법체계는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 궁금하다.

김주현: 정부는 지난 2003년 자산운용업을 특화해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3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비판도 많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자본시장통합법,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설립 등 발전된 부분도 많다. 또한 금융허브 추진의 법적 기반으로서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작년 말에 만들었고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기반해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로드맵 성격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세웠다. 9~10월 중에 발표된다. 또 금융 클러스터가 지정된다. 특정 지역에 금융 관련 기관과 인력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월 말에는 해외에서 들어 온 금융기관들에 대해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로 나갈 때 필요한 정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선보일 것이다.

김한수: 제도적 차원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금융허브의 실현가능성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 금융허브에 관련된 여러 기



함상문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조지타운대 경제학과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서울대 경제학과
워싱턴대 경영학 석사

준을 우리가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해 본 결과 약 80%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왔다. 런던에서 나오는 GFCI(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는 그보다 낮은 70% 수준으로 나온다. 우리가 현재 금융허브 측면에서 아시아의 장자 격인 싱가포르, 홍콩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여기서 6~7% 정도 상승한다. 결국 15% 정도의 갭은 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관건은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제공할까이다.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국기관의 법인세를 10%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회원국으로 있는 OECD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내부에서 금융허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가 하는 것이다. 국민 공감대가 절대 부족하다. 예전에 아일랜드 더블린이 금융허브를 추진하면서 파격적인 조세 인센티브로 인해 조세회피처(tax heaven)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았다. 이때 더블린 당국은 '우리의 1차 목표는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실제로도 고용창출을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했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고민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함상문 : 동북아 금융허브 캐치프레이즈는 내걸었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면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감내할만한(tolerable)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한·미 FTA, 미국 쇄고기 협상 문제를 보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익집단들이 너무 많아 힘든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추구(rent seeking)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사회적 사안에 대해 공적으로 논쟁(public debate)해야 한다. 또 경쟁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 기관들에게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 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이들이 위협이 돼 국내 기관들이 경쟁체제에 발맞출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오는 외국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이 과연 한국민의 정서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우를 원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정답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는 것이다. 선진국

에서 통하는 원칙이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다. 제도적, 생활환경 면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보다 가까이 가야 한다.

김주현 : 금융허브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 기관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이 모여야 하고, 둘째, 금융전문가들이 모여야 한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원하는 허브의 모습이 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뉴욕, 런던 모델은 굉장히 먼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가장업만 하는 버뮤다, 케이만군도 모델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분야를 찾아 특화해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regional center)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한국’ 하면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다는 것이 인식돼야 한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의 금융전문가들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가족 모두 데리고 와 한국에서 일해라 했을 때 “한국? 좋다! 살아보겠다!”라고 답할 것이라 자신할 수 있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양보하고 타협하고 있나. 제주도만이라도 영어를 써 보자, 외국인학교를 만들자는 말이 무성했지만 결국 ‘평등’ 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매력 있는 이유는 금융업무가 투명하고 감독이 선진화돼 있어서가 아니다. 시장이 있어서다. 살기 불편하고 통역을 붙일지언정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보다 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낮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시스템이 선진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안정적이지만 폐쇄적·보수적이며 리스크 테이킹이 거의 없다. 일본의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 세계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 많다. 홍콩, 싱가포르 등이 금융허브로 앞서 있지만 우리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금융산업은 통상 실물경제가 발달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실물경제 쪽에서 계속 비즈니스가 있고 투자가 이뤄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보다도 분명 장점이 있다.

함상문 :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 소위 ‘칸막이식 규제’나 시스템 리스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는 것이 결국은 건



함상문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전성 감독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김주현 : 금융허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국내·외 금융회사, 금융인력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능력껏 활동하는 데 불합리한 제한이 없는지 따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력은 핵심 인프라다.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글로벌 마인드와 언어실력을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도 활용해야 한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거래, 지급결제 및 신용정보 활용 등을 위한 IT 기반도 주요 인프라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적절히 경쟁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감독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불신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감독 기술능력이 국제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본다. 사실 감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도 드러나지 않는가.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감독하다보면 리스크는 줄지만 그만큼 영업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영업활동의 제한을 풀다보면 감독 운영에 어느 정도 구멍은 없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감독인력은 민간 금융전문 인력에 비해 인력 수나 인센티브 구조에 많은 한계를 가진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얼마나 빨리 알아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김한수 : 금융허브는 금융 분야가 주도한다 해도 생활환경 문제처럼 결국은 모든 사회구조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번에 ‘금융중심지 조성개발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은 금융위가 주도하는 글로벌 허브 전략이 법적기반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금융위가 강한 구심점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허브를 구축하다보면 건설규제를 양보받을 일도 있을 테고 외국인학교도 만들어야 할 텐데 법제화 이후에도 아직 금융허브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프라가 아무 것도 갖춰지지 않은 섬나라에

는 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들까지 들어간다. 그러나 런던, 더블린, 룩셈부르크 등의 도시들은 혜택은 똑같이 주면서도 감독체계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똑같다. 단, 감독을 유연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규제회피나 차익거래(arbitrage)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와 노동력, 정부의 지원 등을 보고 들어간다. 금융클러스터가 조성되고 빌딩들이 들어서면 우리는 그곳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론스타 사례를 보라. 우리는 너무 애국가라서(웃음) 외국기업이 이익만 챙겨서 나가버리면 어쩌나 걱정만 한다.

김주현 : 금융허브의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놔지만 보다 근본적인 언어, 노동시장, 국민 정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이 시행된 지 다섯 달밖에 안됐지만 금융규제 개혁에 관한 한 우리는 'DNA를 바꾸는'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기획재정부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조정·정비하고 있다.

금융클러스터의 기본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외국 금융기관과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도록 하고, 거기 맞춰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들이 마련한 구체적 계획을 바탕으로 다른 중앙부처에게 협조를 구한다. 경험상 중앙부처의 협조나 지원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금융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지난 정부보다는 확실히 추진력이 있을 것이다.

함상문 : 어떤 감독체계를 가지고도 시스템 리스크를 없앨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는 '허용 가능한 수준(tolerance level)'의 위험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인당 GDP가 2만불, 3만불 넘어갈 때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살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는 점, 정부가 이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큰 그림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설득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모르고 당하면 당황하지만 충분히 예측하고 각오한다면 더 잘할 수 있다.

김주현 :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던 시절은 대외 여건도 유리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좋은 물건 만들어 수출해 잘 살아보자는 비교적 단순한 목표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추진했다. 지금은 가치가 다원화되고 경제가 성숙해가면서 제조업뿐만 아니



김한수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라 다양한 업종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굳이 금융산업에 국민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금융산업은 고용유발효과도 제조업보다 작다. 이런 조건에서 학교에서 초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쳐 국제경쟁력 높이지는 주장이 얼마나 인정받을 것인가. 노동시장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 과연 노조가 동의하겠는가.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과 발전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 이는 단지 행정부 차원에서 머물 문제는 아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언론, 국회 등이 주도해야 한다.

김한수 : 금융허브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는 런던의 한 연구기관 조사 항목에 '신흥시장으로서 금융허브로 성장할 것 같은 도시는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서울을 대담한 응답자는 하나도 없었다.

압도적인 응답은 'AI센터'였다. AI센터란 두바이(DUBAI), 상하이(SHANGHAI), 뭄바이(MUMBAI), 끝에 AI가 들어간 세 도시를 칭한다.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여겨 온 도시들보다도 오히려 인지도와 성장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틀림없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과 발전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 이는 단지 행정부 차원에서 머물 문제는 아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언론, 국회 등이 주도해야 한다.

이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더블린의 경우, 1987년 미국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금융산업 전략을 시작했다. 당시 많은 금융기관들이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티브를 계기로 성장했다. 지금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국제 금융의 혼란기라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준비해 온 우리의 금융허브 전략, 타이밍이 좋다고 본다. 특히 정부가 바뀌면서도 이어서 추진된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함상문 : 희망적인 이야기로 끝낼 수 있어 좋다. 장시간 감사드린다.



고일동 KDI 연구위원 idkoh@kdi.re.kr

국내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북한 경제 전문가인 고일동 박사는 자신의 전공 분야 외에도 곤충과 식물, 천문과 지리, 역사와 인간에 해박한 식견과 왕성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다. 걸어 다니는 위키피디아라 불리는 그의 눈으로 세상 만물의 컷속을 들여다본다.

> 고일동의 박물관

마로니에나 칠엽수나



‘지 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40대 중반이상의 연령층은 마로니에라는 단어에 정취와 낭만을 느끼는 정서가 있다. 특히 가을에 접어들면 더욱 그런 느낌이 짙아진다. 마로니에의 생김새가 궁금해서 마로니에 공원을 찾았다는 얘기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최근 어느 보도를 보면 마로니에 공원에 마로니에는 없고 칠엽수만 준비해서 실망이란 얘기가.

마로니에의 원산지는 헝가리 등 동남부 유럽 지역이고, 칠엽수는 일본에서 육종한 수종이다. 실제로 유럽 지역의 여러 도시를 둘러보면 가로수로 혹은 공원의 조경수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수종이 플라타너스 아니면 마로니에다.

플라타너스의 딱딱한 씨방망이는 겨울 내내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다. 플라타너스는 봄이 돼서야 부스러져 바람에 흩날리지만, 마로니에 열매는 밤처럼 가을이면 이미 땅에 어지럽게 떨어진다. 습한 곳에서는 열매가 부패하기 때문에 청소가 만만치 않아 관리자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나무다.

사실 나무 생김새만으로 마로니에와 칠엽수를 분간하기란 쉽지 않다. 두 나무를 마주 세워 보면 줄기나 잎이 약간은 다르게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열매가 열렸을 때, 그 껍질에 바늘이 들어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8월 말이 되면 이들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데, 한 달여 지나면 열매의 껍질이 흡사 목화나 오동나무 열매같이 딱딱하게 말라 들어가서는 밤송이처럼 땅에 떨어진다. 탐스러운 바늘이 소복이 들어 차 있는 열매 껍질에 가시가 다수 돌아 있으면 마로니에이고, 그렇지 않으면 칠엽수로 간주하면 틀림이 없다. 이를 식용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깨물어 보기도 하지만 쓴 맛 때문에 사람이 먹기는 곤란하고 말(馬)들은 가끔 주워 먹는다.

마로니에든 칠엽수든 실질적인 외양이나 용도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다만 ‘칠엽수 공원’ 보다는 ‘마로니에 공원’으로 칭해야 멋있어지는 이유는 그 옛날 유행했던 노래의 향수 때문인가, 아니면 서양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인가.



“신성장전략 찾아 경제의 성장활력 되찾아야”

KDI 주최 ‘대한민국 경제60년 학술세미나’ 열려



(사진 왼쪽부터) 현정택 KDI 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KDI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60년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거시경제, 산업·무역, 국토개발 및 남북경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모여 지난 60년을 회고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관련 공무원,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빈틈없이 자리를 채워, 이번 세미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가 현재의 지위에 안주할 경우 ‘만년 중진국’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신성장전략을 찾아 경제의 성장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0년의 성과에 대해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960년대 수출주도의 공업화 전략과 1980년대 금융·재정 등에 관한 안정화 정책이 경제 도약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현정택 KDI 원장은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FTA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 외국자본 유치가 중요하며 폐쇄적으로 비치는 국가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각 세션에서의 토론은 커피 브레이크로까지 이어져,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도 볼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좀처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한덕수 전 총리도 참석했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주역으로서 이 시기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발표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날 배부된 월간 『나라경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많아졌다는 반응을 보여 편집자를 으쓱하게 만들기도. 본 세미나의 발표 및 토론 자료는 KDI 홈페이지 ‘보도·해명자료’에서 볼 수 있다.



일시: 2008. 8. 20
장소: 서울 신라호텔



미국 유통업 '그린 정책'으로 변신중

4년 후 미국 소비자 43% 친환경제품 구입할 것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유통 기업인 월마트는 최근 친환경 마케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리 스콧 월마트 CEO

월마트 · 홀푸드마켓 등 유통기업들 그린 정책 속속 발표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유통 기업인 월마트가 최근 친환경을 위한 마케팅 정책을 공표하면서 미국 내 그린 열풍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월마트는 지난 2005년부터 환경문제를 사회 이슈로 삼고 환경개선을 위한 다각도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주력해 왔다.

리스콧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매니저들과 가진 연례 회의를 통해 월마트 납품업체들에게 환경 관련 법·규약을 지키도록 하는 일환으로 월마트의 환경 기준을, 주요 납품업체들이 소재한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미국 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친환경 정책은 중국에 진출해 대미 수출에 일조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국내 수출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까지 포장쓰레기를 25%까지 절감한다고 발표한 월마트 외에도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 타깃(Target) 등 다른 유통기업들도 친환경을 표방한 그린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제품포장, 재활용 소재산업 및 기존 제품 판매 시장까지 파급 효과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들의 친환경 트렌드는 유기농 전문 유통 체인점인 홀푸드마켓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플라스틱 용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파우치(Pouch) 스타일로 포장 디자인을 바꾼 천연세제, 미네랄 및 천연성분

을 활용한 오가닉(Organic) 화장품, 천연비료로 키운 유기농 야채·과일 및 식품 등 다양한 그린 제품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홀푸드마켓은 회사 내 Green Mission Team이라는 친환경 TF팀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홀푸드사의 매출액은 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6%의 신장을 보였으며 매장 수도 90개가 늘어 총 276개에 달한다. 최근 4년간 홀푸드사의 평균 매출 신장률은 20.4%에 달하고 향후 2010년까지 약 376개 매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다른 예로 친환경 선도 기업을 표방하는 월마트는 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사용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텍사스와 콜로라도 지역에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한 맥키니(McKinney)점과 오로라(Aurora)점을 각각 실험매장으로 개점해 필요한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해 오고

있다.

월마트가 2개 점포를 실험 매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기후 조건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텍사스 지역은 대체로 덥고 습하다. 콜로라도 지역은 고도가 높아 건조하고 강설량이 많다. 이런 대조적인 기후여건에 따라 냉난방 및 공기조절 시스템 운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또 천장높이를 낮추면 일반 매장보다 건축자재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천장높이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매장 운영에 효율적인지도 연구하고 있다.

맥키니점 외부에는 본래 발전기 용도로 사용되는 50Kw 규모의 풍력 터빈이 설치되어 있다. 텍사스 지역처럼 풍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위해 고안된 소형 터빈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유지비용도 저렴해 전체 매장 소비전력의 15%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요 벽에 태양패널을 부착하고, 튀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주부



김닭에 사용된 식용유를 매장 난방용으로 재 활용하며, 외부 간판·식품간·냉동간에 절 전효과가 있는 LED 조명을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가공육, 생육, 유제품 코너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다른 음식 쓰레기들 과 분리돼 퇴비 제조업체로 보내지고 이렇게 생산된 비료는 맥키니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콜로라도의 오로라 매장은 외부 사인간 판들도 PV(Photovoltaic) 패널을 활 용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스테이플턴(Stapleton) 공항 활주로 해체 후 남은 콘크리트 블록을 인공연못 및 포장도 로 공사에 재활용했다. 지붕에 설치된 134Kw의 PV 유리 패널 시스템과 3개의 각 각 다른 타입의 PV 플라스틱 코팅 패널들의

에너지 발생량 차이가 어떤지도 실험하고 있 다. 음식을 만들고 남은 각종 폐유를 보일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장의 유제 품 및 냉동식품 코너에 활용된 LED 시스템 은 기존 매장에서 냉장고 문을 열면 찬 공기 가 밖으로 새나가 전기소비가 많았던 결점 을 보완해 디스플레이 케이스에 유리문을 더 해 연간 60만Kw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월마트는 성공적 실험 케이 스로 뽑힌 LED 시스템의 시판을 위해 제너 량 일렉트릭사와 협업 중이다.

월마트에서 조사한 'Live Better Index' 에 따르면 현재 전체 소비자의 약 11%만 친 환경 및 그린 관련 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있 으나 2012년 이내 미국 소비자의 43% 이상 이 친환경 및 그린 관련 제품을 구매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풍력발전 시설 앞에서 한 모델이 포즈를 취 했다. 친환경 화장품으로 유명한 아베다는 올해 초 미네소타 본사 의 공장과 물류 센터 에너지를 모두 풍력으로 대체했다.

이렇듯 친환경 그린제품이 향후 몇 년 이 내에 미국시장에서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내 시장 트렌드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그린 열풍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아이디어 상 품과 포장 디자인 및 재활용 소재 개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고유가 시대에 자원 이 빈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월마트의 실 험매장 사례처럼 각종 자원의 절약 및 재활 용, 그리고 대체에너지 활용 방법의 적용등 이 시급하다. [문]



박상협 KOTRA 델러스무역관장
shpark@kotra.or.kr

「나라 밖 경제」는 해외 주요 경제지널에서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를 선별하여 발췌, 소개하는 난입니다.

쓰레기로 기름을 만든다고?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by Matthew L. Wald, 'Gassing up with garbage', July 24th, 2008

지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쓰레기를 연료로 바꾸는 것에 대해 말해왔지만 '저렴한 석유의 시대(an era of cheap oil)'가 지속되던 얼마 전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석유가 배럴당 125달러, 휘발유가 갤런당 4달러에 국제 거래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쓰레기를 연료로 전환하는 산업(waste-to-fuel industry)에 잠재해 있는 경제성에 사람들이 갑작스레 열광하기 시작했다. 허니웰, 듀폰, GM, Shell, BP(British Petroleum)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앞 다퉈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성공을 점치는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십억의 정부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이란 그저 꿈에 불과하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고 해도 의도치 않은 결과나 불명확한 생산비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석유와 식량을 제외한 그 어떤 것에서라도 연료를 추출해 내는 산업은 큰 인센티브를 가진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이산화탄소를 거의 내뿜지 않는 새로운 연료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수소·탄소·산소만 함유하고 있다면 어떤 물질이든 연료로 전환될 수 있다. 플라스틱, 건설폐기물, 잔디나 나무 부스러기, 밀짚, 사탕수수 줄기 등의 쓰레기라도 가능하다. 생각에만 머물렀던 일들이 오늘날 첨단기술과 만나 점점 실현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새로운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에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옥수수 에탄올 생산 보조금의 두 배에 달하는 갤런당 1.01달러씩의 보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미 의회는 생물연료(biofuel)의 사용을 2022년까지 360억 갤런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현재 생산되는 옥수수 에탄올의 절반 수준이다. 생물연료의 이러한 빈자리는 '비식품 재료(nonfood sources)'에서 추출되는 연료로 채워질 전망이다.

실리콘 밸리에서 인터넷 혁명을 이끌었던 벤처자본들은 이제 새로운 연료 공급 쪽에서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해조류(algae)로부터 연료를 추출하고 있는 Solazym사는 2003년 설립 당시만 해도 자본가들에게 외면당했지만 지금은 두 개의 벤처기업으로부터 후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 분야에 투자된 벤처 투자금은 작년 한 해 동안 3억7천5백 달러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6억1천2백 달러에 달했다.

미국 각지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폐기된 소나무 자재, 음식쓰레기, 폐유, 비소에 오염된 전신주, 심지어는 칠면조의 내장까지 활용해 연료를 만들어 내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빠르면 연말 시판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있다. 물론 실험결과를 상업적 판매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무리하게 공장을 신설해 자금난을 겪는 등의 시행착오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가 이뤄지는 한 쓰레기 연료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BMW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 공장은 연간 소비 에너지의 65%를 인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충당하고 있다.

눈과 귀만즐거운 오락영화? 머리를깨우는 오락영화!

최 근의 미국 영화가 대단한 것은 '하임 나트 데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데어 월 비블리드' 처럼 탁월한 예술적 성취를 이뤄낸 작품들 때문만은 아니다. '다크나이트' 나 '월·E' 처럼 여름철 블록버스터의 자장안에서도 장르를 혁신하고 영화를 재생하며 시대를 근심하는 뛰어난 결과물을 연이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늦여름이 되어서야 국내 개봉한 이 두 작품은 올해 할리우드가 내놓은 최고의 오락영화들이다.

배트맨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인 '다크나이트'에는 대작 오락영화 고유의 활력과 흥분이 있다. 동시에 언뜻 허황되게 보일 수 있는 슈퍼 히어로 장르의 영화이면서도 그 속에 괴테와 셰익스피어와 구약성서 욕기의 저자를 사로잡았던 윤리적 딜레마와 철학적 성찰까지 선명하게 담아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에선 언제나 텍스트와 스타일을 장악

한 자의 자신감이 넘쳐난다. 데뷔작 '미행' 때부터 서스펜스를 다루는 재능을 과시했던 그는 자신의 장점을 집대성해 '다크나이트'를 그의 최고작으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어떻게 이야기의 퍼즐을 능수능란하게 맞춰나갈 것인가의 '메멘토', 로케이션으로 어떻게 인물의 심리를 그려낼 것인가의 '인썸니아',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고 어디서 생략할 것인가의 '프레스티지'의 방법론이 모두 들어 있다.

'다크나이트'에 이르러 슈퍼 히어로 장르는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와 스타일의 폭을 크게 넓히며 진화했다. 만화적인 조엘 슈마허나 표현주의적인 팀 버튼의 배트맨과 달리, '배트맨 비긴즈'에 이어진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은 무척이나 사실적이다. 마천루가 압도적인 시카고에서 직접 자동차들을 전복시켜 가며 찍은 이 영화는, 초인이라기보다는 특별한 힘을 갖출 수 있

는 재력가에 가까운 배트맨의 행동과 고뇌를 흡사느와르 영화처럼 다룬다. 근래 들어 어두운 블록버스터가 많아졌지만 이쯤 되면 암흑의 심장을 가진 슈퍼 히어로 영화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크리스천 베일에서 모건 프리먼까지, 이 영화의 출연진들은 모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히스 레저의 영화다. 혀를 날름거리나 입맛을 다시거나 땀을 오물거리면서 연기하는 그의 모습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왜 악마가 유독 뱀에 자주 비유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브로크백 마운틴’이나 ‘아임 낫 데어’ 같은 영화에서 잘 드러나듯, 히스 레저가 대사 처리 방식에서 아주 뛰어난 배우라는 사실은 이 작품에서도 고스란히 증명된다. 이런 영화를 유작으로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배우라니! 히스 레저를 생각하는 순간, ‘다크 나이트’는 참으로 서늘하고 쓸쓸한 영화가 된다.

장편 애니메이션 ‘월 · E’는 스스로 차(車)와 포(砲)를 쏠 채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는 장기의 고수 같은 솜씨를 보여준다. 쓰레기 수거용 로봇을 주인공으로 삼았기에 대사가 거의 없고 동작마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 영화의 각 장면들에는, 그 한계 덕분에 역설적으로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애니메이터들의 흥분과 야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탁월한 표현력과 눈부신 상상력을 보여주는 초반 30분은 도저히 흠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

‘토이 스토리’에서 ‘라파두이’까지, 지난 십수년간 애니메이션계에서 거대한 성과를 기록하면서 단 한 작품도 태작을 내본 적이 없는 픽사 스튜디오를 ‘최고의 두뇌집단’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리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만약 인류가 지구를 떠나면서 최후에 남은 로봇의 전원을 끄는 것을 깜빡 잊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최초의 기발한 착상에서 캐릭터와 이야기를 풍부하게 펼쳐나가고, 황폐한 지구에서 두 로봇과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누는 교감을 그 어떤 인간관계 못지않은 깊이로 그려낼



줄아는 감성이야말로 픽사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진짜 이유일 것이다. 버려진 것과 쓸모없게 된 것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바라보는 픽사의 시선은 기술에 중독된 많은 테크니션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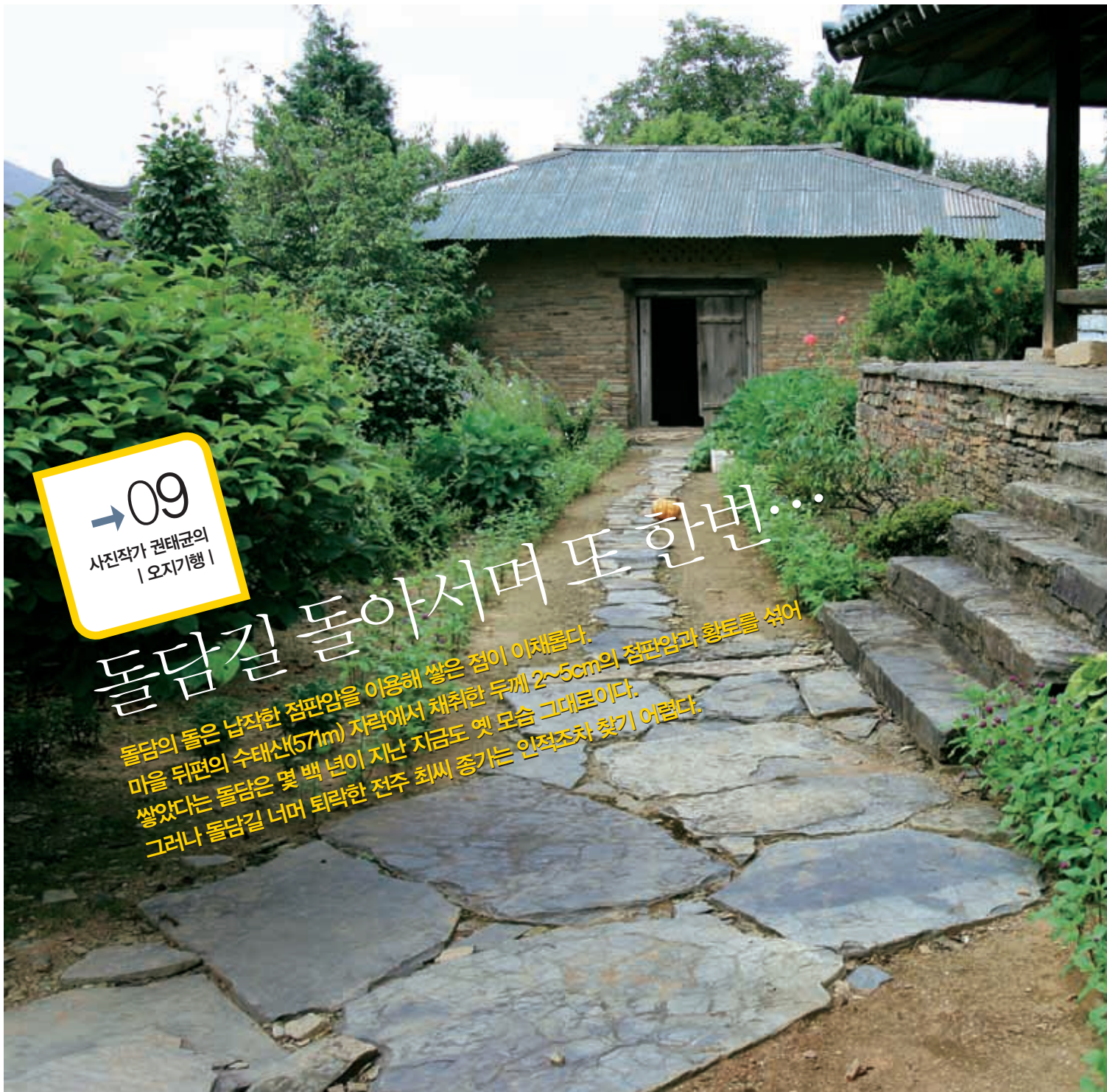
루빅스 큐브에서 VCR 플레이 어와 초기 전자오락 게임이었던

‘퐁’까지, 미래 세계를 무대로 삼고도 짙은 향수를 곳곳에 붙여 넣은 이 작품에는, SF로부터 어드벤처와 성장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관객을 가장 매혹시키는 것은 아마도 멜로적 요소일 것이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로맨틱한 경험인지를 이 영화만큼 멋지게 표현한 작품은 없었으니까.

기술적 측면에서도 ‘월 · E’의 성취는 예사롭지 않다. 이 영화의 그림체와 촬영 방식은 이전 픽사의 작품들에 비해 사실적인 감각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 초반부에서 삭막하고 황량한 느낌이 들도록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따뜻한 톤으로 바뀌며 관객의 감정을 서서히 데워 올리는 조명이 좋다. 쌍안경과 캐터필러를 눈과 다리 삼아 직각의 녹슨 고철덩어리처럼 표현한 월 · E에서, 계란 모양의 광택 나는 타원형으로 만들어진 이브까지, 캐릭터 디자인 역시 훌륭하다.

전체적으로 ‘월 · E’는 단편의 느낌이 강한 장편이다. 은하계를 떠도는 우주선 내부에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중반 이후는 상대적으로 긴장이 줄어들고 영화적 힘도 좀 떨어진다. 그러나 두 로봇이 우주 공간을 유영하며 춤추는 환상적인 2인무와 천공을 올려다보는 월 · E의 두 눈에 밤하늘 별들이 고스란히 비쳐지는 모습만으로도 이 영화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이 장면들은 애니메이션이 꿈을 담아낼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테니까.

이동진 영화평론가 lifeisntcool@naver.com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10여년간 조선일보에서 영화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현재 1인 미디어 ‘이동진닷컴’을 운영하며 명쾌한 글쓰기와 섬세한 감성으로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 09

사진작가 권태균의
| 오지기행 |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번...

돌담의 돌은 납작한 점판암을 이용해 쌓은 점이 이채롭다.
마을 뒤편의 수태산(571m) 자락에서 채취한 두께 2~5cm의 점판암과 황토를 섞어

쌓았다는 돌담은 몇 백 년이 지난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이다.
그러나 돌담길 너머 퇴락한 전주 최씨 종가는 인적조차 찾기 어렵다.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번 보오~고, 징검다리 건너갈 땐 뒤 돌아 보오~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돌담길, 여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이 서울로 떠나간 사람들을 배웅하던 고향의 길이다.

개발연대, 돌담길을 뒤로 하고 서울로 간 사람들은 주로 어린 소녀들이었다. 무작정 상경했던 그들, 식모로 여공으로 비정한 도시에서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을 보냈다. 이름하여 공순이와 식순이, 지금은 잊혀졌지만 물기 없이 부를 수 없는 호칭들이 아닌가. 돌담길을 멀리 두고 서울로 떠밀려 온 우리의 누이들, 하녀처럼 기계처럼 창백하게 일하면서도 그리워한 것이 고향의

돌담길이고 그들의 젊음은 그렇게 아위어만 갔다. 돌담을 뒤로 한 채 이별을 주고 받았던 길, 지금은 대부분 사라진 채 흔적조차 찾을 길 없다.

그러나 돌로 쌓은 담, 돌담 하나로 유명해진 마을이 있다. 한 반도의 가장 끝자락인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동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학이 알을 품은 형상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닷가조그만 마을이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독특한 모양의 돌담길 때문이다.

이곳 돌담의 돌은 넓으면서도 납작하다. 군불 때는 구들장 돌을 상상하면 된다. 돌담의 돌은 납작한 점판암을 이용해 쌓은 점



◀▲ 전주 최씨 종가집. 창고도 점판암을 쌓아 만들었고 대문에서 축담까지 이르는 길에도 점판암을 깔았다.



▲ 굴뚝 두께도 넉넉한 돌 1개로 마감했다.



▲ 돌로 만든 우물. 구멍으로 두레박을 집어넣어 물을 길는다.
◀ 돌로 만든 독특한 담장. 돌 사이로 대나무 창살이 보인다.



- ▲ 대문을 들어서면 나타나는
중담은 인체가 바로 보이는 것
을 막아준다.
- ◀ 대청마루 위에서 목침을 베
고 단잠이 든 할머니.
- ▶ 축담과 댓돌까지도 점판암
을 이용했다.



이이채롭다. 마을 뒤편의 수태산(571m) 자락에서 채취한 두께 2~5cm의 점판암과 황토를 섞어 쌓았다는 돌담은 몇 백 년이 지난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이다. 그러나 돌담길 너머 퇴락한 전주 최씨 종가는 인적조차 찾기 어렵다. 우거진 나무 그늘과 한여름 풀이 꽃보다 오히려 볼 만한 시절(綠陰芳草 勝花時節)이라지만 집은 잡초터미에 숨겨져 있는 형상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축대와 주춧돌, 섬돌이다. 심지어 곳간의 벽체, 닭장까지도 구들장 돌로 만들어 놓았다.

돌담의 역사가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니 4백 년 남짓한 세월이 느껴진다. 손바닥을 가만히 갖다 대니 늦여름 열기에 손바닥이 뜨겁다. 모든 것이 잊혀지고 풍화되는 것이 세월일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돌담길도 저만큼 늙어가고, 인적이 끊긴 텅 빈 마을에는 여름이 떠나지 못한 채 서성거리고 있다. 한글

생가(生家)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제 9월이 오면 강원도 봉평 일대에 선 ‘효석문화제’가 열릴 것이다. 작가 이효석 선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 고스란히 배경이 된 이 문화제는, 십 년 가까운 세월 이어져오면서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축제기간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뜻이다(사실 지역문화제의 성패는 바로 그것이다. 사람). 실제로 문화제 기간 중에 몇 번 봉평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평일엔

오만 명, 주말엔 십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외지에서부터 몰려든다고 했다. 과연 좁은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메밀묵 집 앞으론 무슨 기차놀이하듯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왔을까? 왜 길도 험한 이곳까지 가족을 데리고 차를 달려왔을까?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봉평은 사실 풍광이 뛰어난 곳은 아니다. 산세가 험하고, 평지가 별로 없고, 나무들이 울창하다는 것 정도,

하지만 그 정도야 다른 어느 지역을 찾아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니 그것들이 답이 될 순 없겠다. 숙박시설이 풍족한 곳도 아니고 다른 여가시설이 잘 갖춰진 곳도 아니다. 시내도 십분 정도 걸으면 끝날 정도로 작다. 그러니까 분명 눈이 즐겁거나, 잠자리가 편해서 찾아가는 곳은 아니다. 혹 메밀묵 때 문인가? 분명 훌륭한 맛이긴 하지만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그 오지까지 가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에 위치한 '이효석 문학관'

에둘러 말할 것도 없이 ‘효석문화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까닭은 그 문화제가 ‘이효석’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다. 봉평 일대가 고스란히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역문화제를 찾아가다가 찌증이 나는 경우는 대개 문화제와는 상관없는 가요제나, 불꽃놀이, 풍물시장의 번잡함 때문이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인상과 함께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돈이 목적인 문화제라는 찝찝한 마음도 덩어로 갖고 오게 된다. 숙박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통이 편리하고 위락시설이 풍족해도, 그런 문화제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그렇게 명칭하지 않는다. 어떤 문화제가 자신의 지갑을 노리는지, 자신을 존중해주고 소외시키지 않는지, 대변에 눈치챈다. ‘효석문화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는 연원엔 바로 그런 ‘존중’의 마음이 ‘지역경제’보다 우선했기 때문이다.

물론 ‘효석문화제’에 가도 풍물시장이 있고, 시끄럽게 향토음식을 파는 매상들이 있다. 한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메밀밭이다. 불꽃놀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 백일장 대회이고, 가요제보다 더 자주 메인무대를 차지하는 것이 소설낭독회이다. 그리고 그것의 중심엔 지역자치단체가 아닌 ‘이효석문학선양회’가 있다. ‘효석문화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런 공지가 떠 있다.

“남안교다리부터 생가 앞까지 인접한

도로에서는 어떠한 상업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효석문학선양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자세히 알 순 없으나 이 공지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어떤 자세로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는지 대변에 알 수 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효석’ 선생과 그의 작품이지, 관광객들의 지갑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이효석’ 선생과 그의 소설을 읽히는 일뿐이다. 봉평에 있는 ‘이효석문학관’을 가보면 알 수 있다. 장담컨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문화관 중 가장 관리가 잘 된 곳이다.

도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예술가들의 생가(生家)를 보존하고 그를 기리는 어떤 축제를 기획하는 것은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길 없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소프트웨어이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자세이다. 지역에서 태어난 예술가를 기리는 것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이 본질적이고 단순한 질문은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짚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휘이 한 번 돌아보자면 사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로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소설가 현진건의 옛집이 그렇고, 홍지동 산기슭에 자리잡은 이광수의 집필실이 그렇다. 을씨년스럽고 황량하게 방치된

그곳은 찾아오는 이, 관리하는 이 하나 없이 쇠락해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곳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화사적으로 이효석 선생에 비해 현진건 선생이나 이광수 선생의 존재가 미미한 것은 아닐 텐데 후대에선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있는 모차르트의 생가에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천재의 체취를 맡아보기 위해 찾아온다고 한다. 축제가 아니더라도, 문화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전세계에서 꾸역꾸역 밀려들어온다. 그 예술가를 흠모하고 존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살갓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보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용’이 아닌 ‘보존’ 같다. ‘보존’만 잘해준다면, ‘보존’만 윤리적으로 잘 지켜진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들의 예의이다.

이효석 선생은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실 것이다. 선생은 복도 많으시다. 그러면서든 엉뚱한 생각 하나, 만일 내 자식이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 후에 그의 생가를 보존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4동 803호, 이것이 잘 보존될까? 그때까지 재개발은 안 될까? 

이기호 antigih@hanmail.net
소설가.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1999년 <현대문학> 신인추천공모로 등단. 소설집으로 <최순덕성령충만기>,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가 있다

금산에 살어리랏다



백두대간과 금남정맥을 사이에 두고 푸르른 금강이 굽이쳐 흐르는 금산은 금수강산(錦繡江山)을 줄여 이름지었을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인구 5천8백 명의 금산은 충남 최남단에 위치해 영호남의 관문이 된다. 그런데 금산이 과거에는 전라도 땅이었다고 한다. 금산에서 전북 도청이 있는 전주까지 가려면 배꽃재를 비롯한 험난한 고개를 수없이 넘어 몇 시간 씩 가야 했다. 반면 17번 국도로 만인산을 넘으면 대전이 멀지 않았다.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대전에 속하게 되자 63년 충남으로 편입됐다. 행정구역은 그렇게 변했지만 말투는 쉽게 변하지 않

는 모양이다. 금산 사람들의 말투에서는 아직 전라도 억양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충남 최고봉인 서대산(904m)이 있는 금산은 지형의 70%가 산지이며, 해발 평균이 250m로 충남 해발 평균보다 2.5배나 높다. <동국여지승람>에도 금산은 산이 지극히 높은 곳이라 기록하고 있다. 고려시대 문장가였던 이규보는 “산이 지극히 높아 들어갈 수록 점점 그윽하고 깊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금산은 산이 많고 높은 지형적 특징 덕분에 유명세를 탄 것이 있다. 그 하나가 바로 인삼이다. 가는 곳마다 인삼약초 향기로 가득한 금산은



1. 1천 5백여 년 전 백제시대 최초로 인삼을 재배했던 금산군 성곡리 개삼터.
2. 마을 노인들이 수백년 된 느티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3. 140여 개 상점이 입점한 금산수삼센터. 장날(2, 7일)은 발 디딜 틈이 없다.

1

어디를 가도 ‘인삼의 고장’이라는 글귀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금산인삼 중 26%가 산지에서 재배되는데 기후 토양 등 여러 면에서 산삼과 가장 가깝다. 금산의 농가 호수가 1만 2천 683호인데, 이 중 5천 227호가 지난해 인삼농사를 지었다 하니, 대략 한 집 건너 한 집은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는 충절의 유적지가 많다는 것이다. 금산은 다른 곳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산간분지를 이루고 있어 백제와 신라,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의 격전이 이곳에서 치러졌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과 왜적과의 처절한 살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지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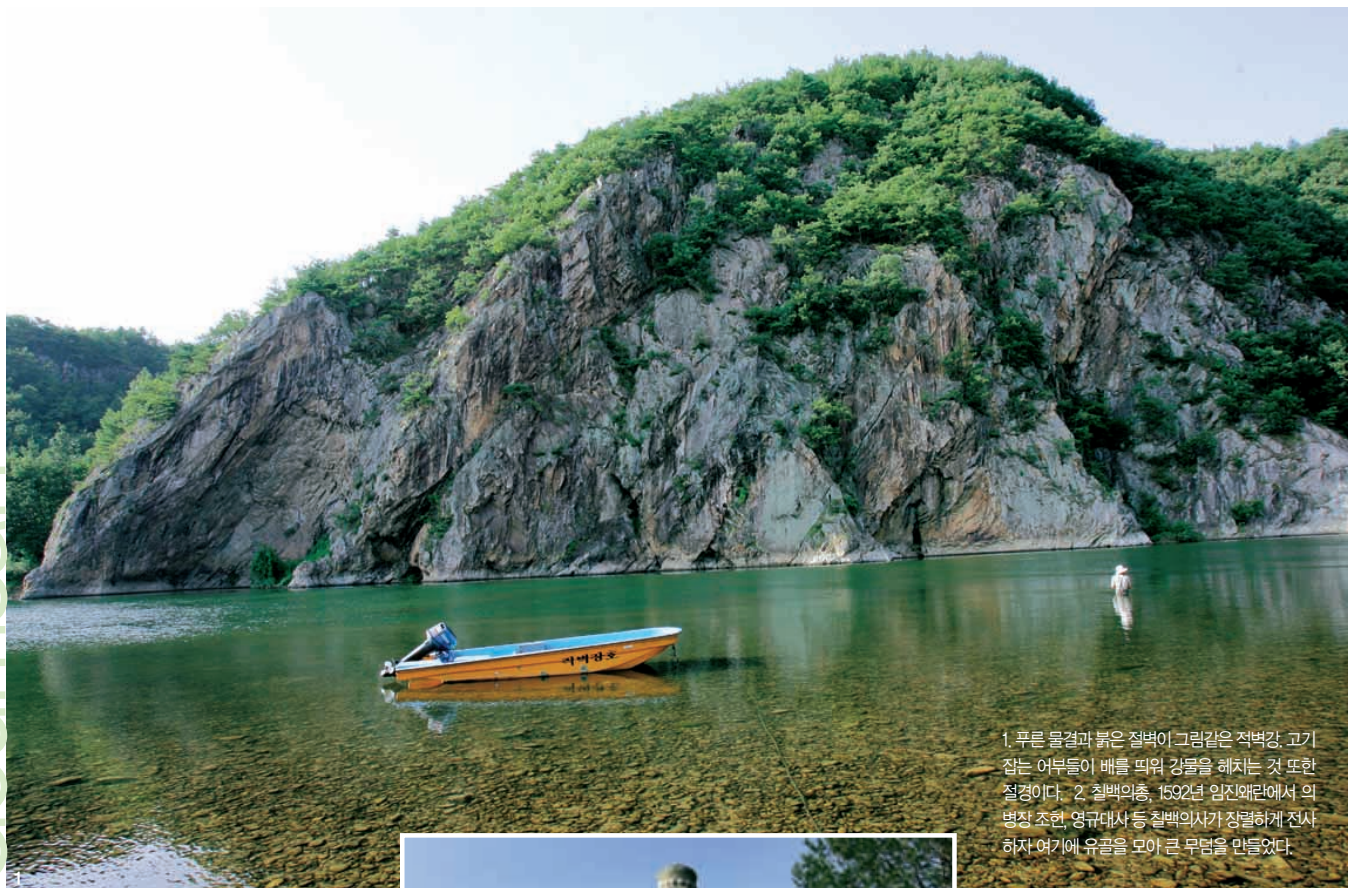
형적 이유에서 금산은 칠백의총 이치대침지, 육백고지 전승탑 등 충절의 유적지가 유독 많다.

금산에 왔다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 140여 개 상점이 입점한 금산수삼센터는 전국 최대의 수삼 판매센터로 장날(2, 7일)에는 발 디딜 틈이 없다. 가격도 시중가보다 저렴해 5년 근 한 채(750g)가 1만 5,000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다. 인삼 수확량철인 가을이 되면 금산에서는 인삼축제가 열린다.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금산인삼축제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로, 국가가 인정한 축제 중의 축제다.

삼국시대의 격전지로 유명

축제의 내용을 보면 장금이 만드는 대장금 요리교실과 약초 공부를 하고 식사예절도 배우는 체험 이벤트, 홍삼 족욕, 홍삼팩 마사지 등 건강 및 미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금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인삼 캐기 체험은 인삼축제를 대표하는 이벤트로 인삼밭에서 직접 인삼을 캐보는 프로그램이다. 체험료는 없고 캔 인삼은 시중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금성면 파초리에는 인삼주 공장이 있다.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이는 94년 농림부로부터 전통식품 명인 2호로 지정 받았고, 96



1. 푸른 물결과 붉은 절벽이 그림같은 적벽강. 고기 잡는 어부들이 배를 띄워 강물을 해치는 것 또한 절경이다. 2. 칠백의총, 1592년 임진왜란에서 의병장 조헌, 영규대사 등 칠백의사가 장렬하게 전사하자 여기에 유골을 모아 큰 무덤을 만들었다.

년에 충청남도로부터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 받은 김창수 선생이다. 불로장생의 명약인삼으로 빚어내는 ‘금산 인삼주’는 신비한 약효 때문인지 술을 마신 뒤에도 숙취로 인한 괴로움을 겪지 않고, 알싸한 인삼향과 혀끝에 감치는 맛은 어느 명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당시 각국 지도자의 공식 건배주로 지정돼 전 세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만찬에도 올려져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그는 “향토 위주의 민속주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전세계인을 고객으로 하는 한국의 전통주, 나아가서 세계인의 술로 자리잡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화려한 색깔의 배롱나무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금성면 의총리의 칠백의총. 임진왜란 때 1만 5천명의 일본군과 싸우다가 장렬히 순절한 조봉 조헌과 영규대사를 비롯해 칠백의사를 모신 호국영령의 성지다.

당시 금산싸움에서 칠백의사가 목숨을 걸고 지킨 까닭에 전라도 점령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역사적 이야기를 듣고 나니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간 전쟁을 다룬 영화 <300>이 불현듯 떠올랐다. 300은 페르시아 백만 대군에 맞서 싸운 스파르타의 정예병의 수



자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니! 다시 한번 선열들의 아름답고 값진 희생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총 4만여 평 규모의 칠백의총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을 만큼 역사적 의미가 깊다. 특히故 박정희 대통령은 71년

청와대 집무실 앞에 심어 아끼던 금송을 칠백의총 경내에 직접 옮겨 심었다고 한다.

금강사를 지나 계속 올라가면 자동차 한 대가 간신히 다닐 정도의 다리를 건너게 된다. 이 다리를 건너면서 상류쪽을 바라보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적벽강의 아름다움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깊은 골짜기 사이로 푸른 강물이 흐르고 붉은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적벽아래 흐르는 금강은 호수와 같이 잔잔하고 모래사장이 길게 깔려 더욱 운치를 돋군다. 일설로는 중국 양자강 상류에 있는 절경 적벽강과 흡사해서 적벽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저녁노을 질 무렵 적벽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보는 멋도 부러볼 만하다.

인삼향이 풍기는 금산에서 나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을을 맞이해 보는 건 어떨까?



열 대아와 장마의 긴 여름이 지나면 식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다. 옥수수 대 높

이가 어른 키를 넘기고, 관리하지 않은 묵정밭은 잡초들의 별천지가 된다. 아물러 버가 고개를 숙이고, 비로소 과일들이 자그마하게 열린다. 장하(長夏)의 기운은 카우기만 하지 여물

게 하지는 않는다. 벼도 만져보면 잔액이 물컹당하게 나오고, 감도 따서 맛보면 텅텅하고, 어느 정도 큰 사과도 따서 맛보면 싱겁고 아무 맛이 없다. 아마 '월케'도 이 사실을 알아 '가을날'에서 '마지막 과실(果實)들을 익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南國)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라고 한 모양이다.

가을은 고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맑고 청아한 기운이 오래도록 유지된다. 인체에서 가장 맑고 청아한 기운이 있으면서 하늘의 위치-제일 높은 곳-에 있는 곳이 폐(하파)이다. 그래서 폐에는 이물질이 끼면 곧바로 반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콧물·가래이다. 폐와 같이 인체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호흡을 담당하는 피부 또한 폐의 식구이다. 코도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워주는 곳으로 한 식구이다. 폐의 주요 기능이 가스교환으로 청기(淸氣)가 들어오고 탁기(濁氣)를 배출하는바 이것이 원활하지 못하면 탁기가 체내에 남아서 병리적인 산물인 담음(痰飲: 진하거나 묽은 가래)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더욱 폐의 기능이 떨어져 해수(咳嗽: 기침), 천식(喘息)에 이르게 된다.

폐의 표면에 습기가 없으면 가스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구름이 하늘에 모여서 비를 뿌리듯 인체수액은 인체에서 가장 높은 폐에서 아래로 내려주게 된다. 만약 이런 수액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부종(浮腫), 소변불리(小便不利), 자한(自汗), 도한(盜汗) 등이 발생된다. 반면 담배를 많이 피거나 스트레스 등 열로 폐를 줄이면 폐포에 있는 습기가 사라져 건조해진다. 그 결과 폐호흡의 장애를 가져와 폐의 식구인 피부와 코가 거칠고 마르게 된다. 색깔도 탁하게 되며, 남아있는 탁기를 일시에 밖으로 배출하고 청기를 일시에 받아들이기 위해 기침을 하게 된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호흡이 어려워 몇 번이나 포기한 적이 있을 것이다. 즉 폐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인 기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초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여름 내내 늘어져 있던 정신을 반짝 일깨워 준다. 폐주(肺主氣)다. 인체의 아래에 있으면서 수분을 관리하는 대장은 폐와 부부(夫婦)의 장부(臟腑)이다. 대장에 대변이 오래 있게 되면 대장이 수분을 흡수해서 딱딱하게 되고 그 결과 피부에 영향을 미쳐 거칠고 지저분해지거나 여드름 같은 것이 솟게 된다. 고향의 푸근한 기운을 받고 와서 활기차게 올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

인체에서 가장 맑은 폐



김철규

하늘꽃한의원장
a7969129@hanmail.net
김철규 원장은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10여년간 정유회사를 다니다 30대후반에 한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한국일보에 건강칼럼을 연재했으며 기공 수련에도 관심 이 크다.

최경수



KDI 연구위원
미 Chicago대 경제학 박사
노동 · 계량경제학

우리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우 리나라가 지난 60년간 이룩한 업적은 경이롭다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절대 후진국에서 출발해 국민의 의지와 노력, 지성만으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정치적 민주화, 양성평등, 이념적 균형 등 가치와 문화 측면에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이런 성공 스토리는 인간의 집단적 의지와 지성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권위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많은 국가들이 국민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됐다. 13억 인구의 중국에게 그러하며 동남아 · 남미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에는 여전히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잘못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교육문제다. 공교육을 포기하는 계층은 점차 증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화, 지식경제의 흐름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교육수요는 고급화되고 있고 조기유학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대로 다니고 지식은 사교육으로 얻는 세태는 20년 전이나 다름없다. 교육기간은 세계적으로 1~2위를 다퉈다. 그러나 대학졸업자에게는 충분한 일자리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대졸자의 수준도 낮다.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OECD 최고지만 시간당 생산성은 폴란드 수준이다. 저출산에 대응한다고 했지만 그 근본원인인 여성의 경제활동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고령화에 대비한다고 했지만 청년층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보지도 못했으며, 노후소득 불안정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현재의 샌드위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식해 R&D 투자를 늘렸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부진하다.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육의 경우 1970년대에 입시지옥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평준화라는 선택이 있었다.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분의 투자부족은 이미 이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1990년대 대학진학 수요 팽창은 사립대학의 확대로 흡수됐다. 대졸 실업은 이미 예정됐었다. 장시간근로는 원래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임금은 오를 대로 올랐는데도 일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 투자는 나뉘먹기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면서는 본말이 전도돼 미래보다는 현재 표심의 변화에만 더욱 관심이 쏠렸다.

정치권은 현재의 대중적 수요를 현실화하는 데서 정당성을 찾고 있었으며, 그 대가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귀착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주의는 있지만 장기적 노선을 지향하는 정당정치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관료체제는 정치권에 종속된 양상이다. 인간의 의지와 이성만으로는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현재가 미래보다 더 중요해져 가고 있다.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OECD 최고지만 시간당 생산성은 폴란드 수준이다. 저출산에 대응한다고 했지만 그 근본원인인 여성의 경제활동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고령화에 대비한다고 했지만 청년층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보지도 못했으며, 노후소득 불안정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